

원어로 푸는 하늘 비밀

데이빗리 목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성경 원어의 맥을 짚어 구속사적 진리를
깨닫는 생명의 서적"



목 차

CONTENTS

제1부: 창조와 존재: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 제1장 <루아흐>와 <누아흐>
- 제2장 <바라> <아사> <아차르>
- 제3장 <아담>과 <아다마>
- 제4장 <토브>와 <라>
- 제5장 <첼렘>과 <데무트>
- 제6장 <에제르>와 <네게드>
- 제7장 <카보드>와 <헤벨>
- 제8장 <레브>와 <네페쉬>
- 제9장 <초크마>와 <비나>
- 제10장 <아하브>와 <하샤크>
- 제11장 <필레오>와 <아카페>
- 제12장 <세굴라>와 <카도시>

제2부: 죄와 구속: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가

- 제13장 <하타>와 <페사>
- 제14장 <하마르티아>와 <아노미아>
- 제15장 <나함>과 <슈브>
- 제16장 <메타노이아>와 <에피스트레포>
- 제17장 <가알>과 <파다>
- 제18장 <루트론>과 <아폴루트로시스>
- 제19장 <카라트>와 <베리트>
- 제20장 <헤세드>와 <에메트>
- 제21장 <사파트>와 <미슈파트>
- 제22장 <엘 샤다이>와 <다이>
- 제23장 <임마누엘>과 <에벤에셀>
- 제24장 <호산나>와 <예슈아>

제3부: 시간과 변혁: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 제25장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 제26장 <네오스>와 <카이노스>

제27장 <비오스>와 <조에>
제28장 <살롬>과 <에이레네>
제29장 <유앙겔리온>과 <로고스>
제30장 <바라크>와 <아샤르>
제31장 <쉐마>와 <아사>
제32장 <아만>과 <바타흐>
제33장 <피스티스>와 <엘피스>
제34장 <자가르>와 <샤카흐>
제35장 <아다>와 <사칼>
제36장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

제4부: 성품과 제자도: 어떻게 살 것인가

제37장 <카리스>와 <카리스마>
제38장 <디카이오쉬네>와 <카타라게>
제39장 <아나우>와 <프라위스>
제40장 <휘포모네>와 <마크로뒤미아>
제41장 <사바트>와 <누아크>
제42장 <하기오스>와 <나오스>
제43장 <말아크>와 <나비>
제44장 <디아코니아>와 <둘로스>
제45장 <마르투리아>와 <케리그마>
제46장 <테필라>와 <파가>
제47장 <포보스>와 <세바스마>
제48장 <유카리스티아>와 <카이로>

제5부: 임재와 소망: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제49장 <파라클레토스>와 <프뉴마>
제50장 <코이노니아>와 <에클레시아>
제51장 <샤칸>과 <아샤브>
제52장 <말라크>와 <나하>
제53장 <할랄>과 <자마르>
제54장 <레이투르기아>와 <프로스쿠네오>
제55장 <도카>와 <에피파네이아>
제56장 <스테파노스>와 <브리베이온>
제57장 <소테리아>와 <텔레이오스>
제58장 <코하브>와 <차다크>
제59장 <마라나타>와 <아멘>
제60장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

들어가는 말

문자를 넘어 생명의 맥을 짚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생명의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번역된 언어라는 한계에 갇혀,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 박동을 놓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라는 성경 원어는 단순한 고대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당신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담아내기 위해 선택하신 거룩한 그릇입니다.

‘원어로 푸는 하늘비밀’은 성경의 핵심 단어 60개를 원어 분석을 통해 창조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거대한 맥(脈)을 추적합니다. 우리가 원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지식

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어 하나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정밀하게 읽어낼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관념을 벗어나 실제적인 생명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네 가지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집필되었습니다.

첫째, 언어의 심층 분석입니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적, 신학적 배경을 통해 원어가 가진 본래의 무게감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구속사적 진리입니다. 모든 단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향해 수렴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가 신약의 헬라어와 어떻게 만나 복음의 정수를 완성하는지 그 연결 고리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셋째, 영적인 적용입니다. 주석은 머리를 채우는 정보가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계시여야 합니다. 원어에 담긴 영적 원리가 오늘날 우리 영

혼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깊이 있게 성찰했습니다.

넷째, 구체적인 삶의 적용입니다. 진리는 삶으로 번역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독자들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인 <루아흐>에서 시작하여, 역사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인 <알파와 오메가>에 이르는 이 대장정은 당신의 영적 지평을 넓혀줄 것입니다. 원어의 숲을 거니는 동안, 문자에 갇혀 있던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실재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1월
데이빗리 목사

제 1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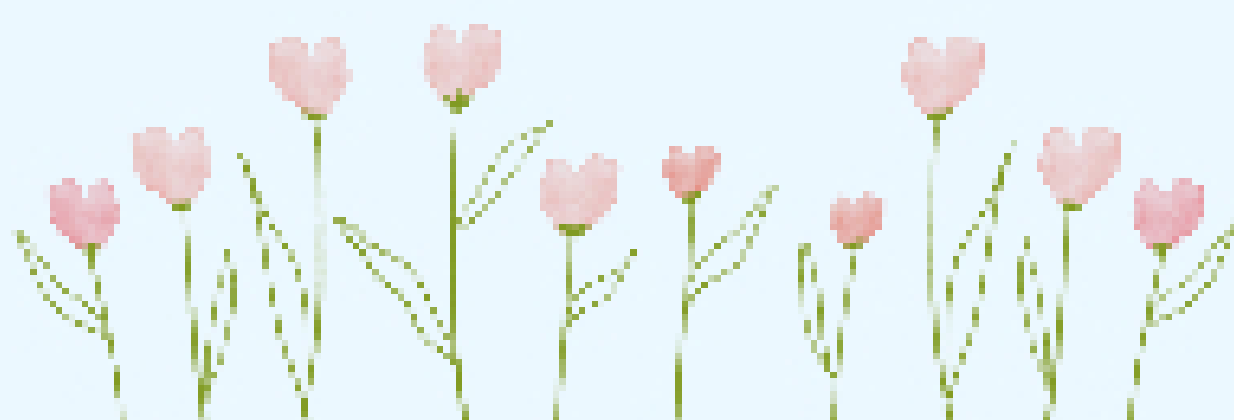
창조와 존재 -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제1장

숨결이 머무는 곳에 안식이 시작됩니다:
<루아흐>와 <누아흐>



제1장 숨결이 머무는 곳에 안식이 시작됩니다: <루아흐>와 <누아흐>

하나님의 숨결과 영혼의 안착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겉보기에는 아주 비슷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서로를 완성해 주는 아름다운 단어 쌍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루아흐>와 <누아흐>입니다. 이 두 단어의 신비로운 연결 고리를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고단한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그 거대한 설계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루아흐와 누아흐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로 <루아흐>는 '바람', '호흡', 그리고 '성령'을 뜻합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 이 단어는 생명의 근원이자 무질서한 혼돈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역동적인 에너지로 등장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루아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2)

이 <루아흐>의 흥미로운 점은 '냄새를 맡다' 혹은 '흠향하다'라는 동사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호흡과 바람, 그리고 향기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는 생명의 흐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실 때, 그분의 '호흡'이 우리를 향하게 됩니다.

반면, <누아흐>는 '머물다', '정착하다', '쉬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성경은 노아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비로소 이 땅에 심판의 격동이 멈추고 안식이 찾아왔음을 이 두 단어의 절묘한 조합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루아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8:21)

여기서 '흠향하시고'에 해당하는 원어적 배경에는 하나님의 영(<루아흐>)이 인간이 드린 정성스러운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진심을 흠향하실 때, 그 결과로 우리 삶에는 요동치 않는 평안인 <누아흐>가 시작됩니다. '노아'라는 이름 역시 이 <누아흐>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을 때처럼 가장 안전한 곳에 영혼이 안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속사적 진리 : 루아흐가 임할 때 누아흐가 완성됩니다

성경은 이 두 단어를 결합하여 복음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이 바람(<루아흐>)을 불게 하셨을 때 비로소 방주가 산에 머무는(<누아흐>) 안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드린 제물에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를 흠향(<루아흐>)하셨을 때, 하나님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평화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의 호흡이 우리와 맞닿을 때만 인간에게 진정한 심이 찾아온다는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은 신약의 예수님에게서 실체로 나타납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루아흐>)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누아흐>)" (요한복음 1:32)

노아의 비둘기가 안식할 곳을 찾아 방주로 돌아왔듯이, 하나님의 영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처소를 찾아 그 위에 안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그분을 흠향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늘 불안하고
갈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
(<루아흐>)이 하나님 안에서 머물 곳(<누아흐
>)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평안
을 얻으려 애쓰는 삶은 풍랑 속에서 필사적으
로 노를 젓는 방주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흠향하실 만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
님의 숨결이 내 심령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분의 성령
이 내 삶 위에 머무실 때, 비로소 우리의 방황
은 끝이 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안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
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당신의 예배를 흠향하시고 당신의 삶을 덮을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가장 안전한 포구에
돛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

흠향하시는 예배: 오늘 하루의 모든 행동이 하
나님이 기쁘게 들이마시는 향기(루아흐)가 되
도록,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와 정성을 담아 행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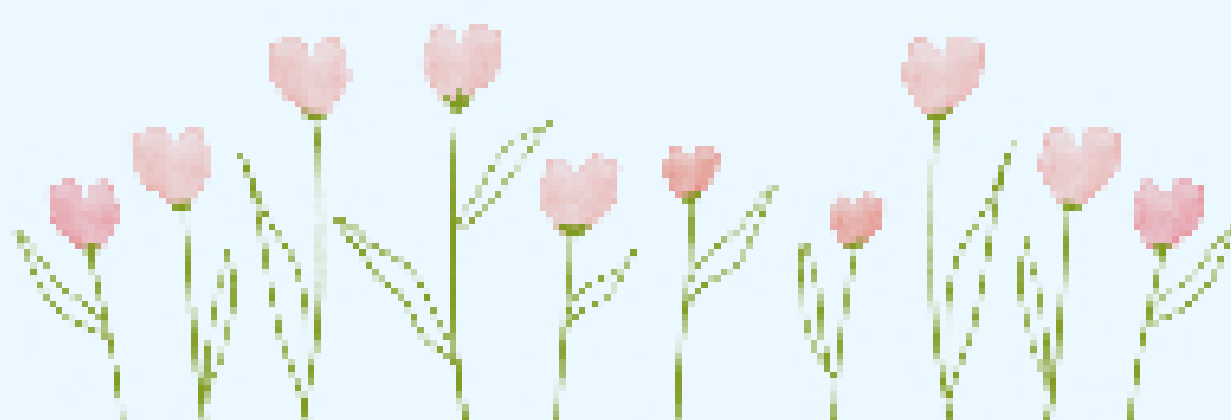
생명의 호흡 기도: 마음이 소란할 때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며 "하나님의 성령(루아
흐)이 지금 내 영혼에 임하십니다"라고 고백하
며 주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영혼의 안착: 복잡한 생각들이 나를 흔들 때, "
내 인생의 방주는 이미 주님의 은혜라는 산 위
에 머물러 있다(누아흐)"는 사실을 신뢰하며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제2장

존재를 부르시고 목적대로 빛으시는 손길 :
<바라>, <아사>, <야차르>



제2장 존재를 부르시고 목적대로 빛으시는 손길 : <바라>, <아사>, <야차르>

창조의 신비 속에 담긴 세 가지 신적 행동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세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를 <바라>, <아사>, <야차르>라는 단어로 구분하여, 우리 존재가 얼마나 치밀한 설계와 사랑 속에 태어났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라, 아사, 야차르의 심층 분석

첫째, <바라>는 '무(無)에서의 창조'입니다. 성경의 시작에서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로 쓰이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존재 자체를 있게 하시는 절대 권능을 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

기 1:1)

둘째, <아사>는 '목적을 위한 완성'입니다. 이미 창조된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게 기능을 부여하고 정교하게 정돈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26)

셋째, <야차르>는 '형태를 빚는 정성'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손으로 직접 주물러 모양을 잡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명령으로 내신 것이 아니라, 직접 손수 빚으시는 친밀함과 정교함을 쏟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 지라" (창세기 2:7)

이 구절에서 '지으시고'가 바로 <야차르>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구석구석에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구속사적 진리 : 다시 살리시고 끝까지 빛으시는 은혜

이 세 가지 창조의 원리는 구원 사역에서 완성됩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무(無)'와 같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바라> 하셨습니다. 도저히 소생 불가능한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또한, 주님은 십자가라는 정교한 구원의 설계도를 따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사>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토기장이의 손길로 우리

를 <야차르> 하고 계십니다. 일그러진 우리 인생의 진흙 덩어리를 다시 손에 쥐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 아무런 자원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빈털터리 같을 때 주님의 <바라> 하시는 권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또한, 내 삶이 왜 이리 깎이고 다듬어지는지 아플 때, 주님께서 당신을 거룩한 목적에 맞게 <아사> 하시는 중임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의 존재가 형편없이 깨졌다고 느껴질 때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빚으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야차르> 하시는 손길에 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이 당신을 만드시지 않았으며, 그분의 손길에는 단 하나의 실수도 없으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18:6)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린 진흙입니다. 힘을 빼고 그분의 손길에 우리를 맡길 때, 우리 삶은 하나님 나라의 잔칫상에 쓰일 가장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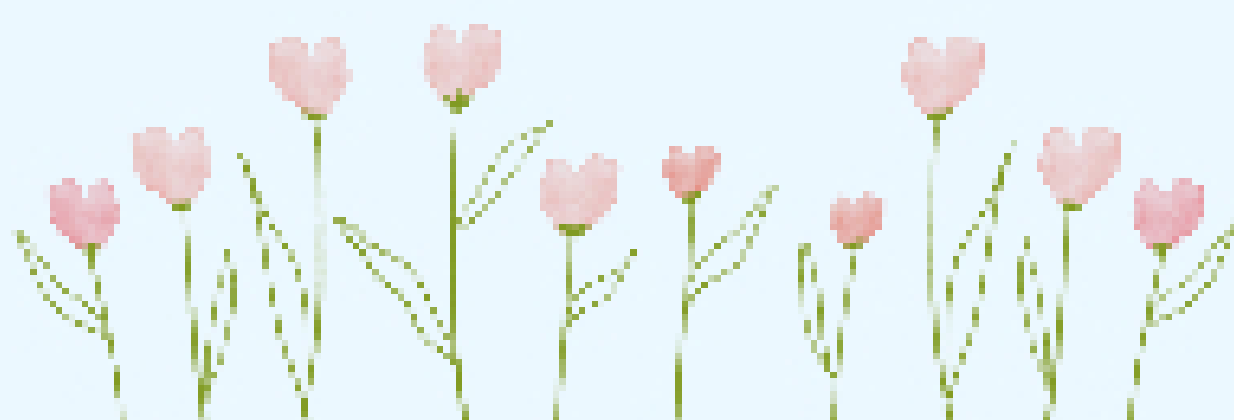
걸작의 자부심: 거울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의 단점을 찾기보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로 정교하게 빚어진(아차르) 하나님의 걸작이다”라고 선포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긍정하십시오.

새로운 창조의 기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무의 상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 새로운 일을 창조(바라)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작은 일(아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3장

낮은 땅의 티끌 같은 존재가 입은 하늘의 생명 :
<아담>과 <아다마>



제3장 낮은 땅의 티끌 같은 존재가 입은 하늘의 생명 : <아담>과 <아다마>

땅에서 취해진 존재의 경비함

하나님께서서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늘의 별이나 찬란한 금붙이를 재료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고 흔한 땅의 흙을 선택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인간을 뜻하는 <아담>과 흙 혹은 땅을 뜻하는 <아다마>는 그 어원이 같습니다. 이 단어들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우리 존재의 현주소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아다마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아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인류' 혹은 '사람' 전체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의 뿌리는 <아다마>에 있습니다. <아다마>는 '붉은 흙'이나 '경작할 수 있는 토양'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근본적으로 흙으로부터 왔으며, 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이름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 지라” (창세기 2:7)

성경은 인간을 ‘티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아주 미미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아다마>(흙)가 하나님의 생기(루아흐)를 만났을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아담>(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재료인 흙에 있지 않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숨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속사적 진리 :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찾아오신 하늘의 아담

죄의 결과로 인간은 다시 자신의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난 <아담>은 다시 가

치 없는 <아다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19)

이 절망적인 흙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첫 아담이 흙에서 나 사멸의 길을 갔다면, 하늘에서 오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흙의 몸을 입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흙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우리를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양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은 밭고 다니는 흙(<아다마>)일 뿐입니다.

다.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작아지고 무력해
지는 이유는 우리가 흠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
시오. 하나님은 흠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
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
라 '누구의 숨결을 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가치 없는 티끌
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우
주보다 귀한 생령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
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낮은
마음이야말로, 흠에서 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지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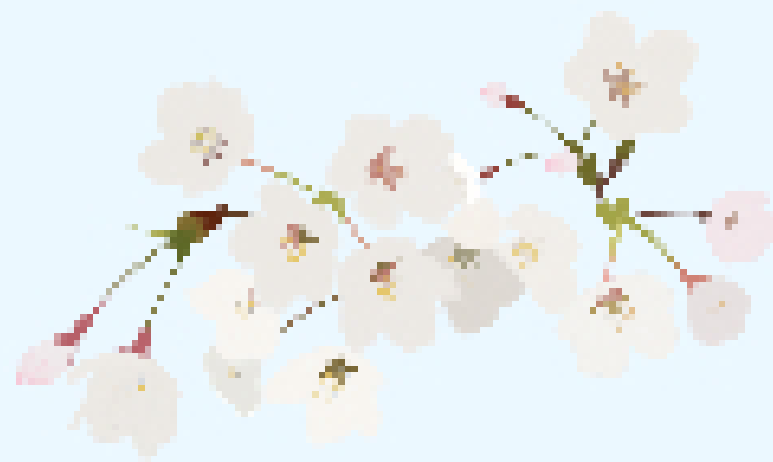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
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14)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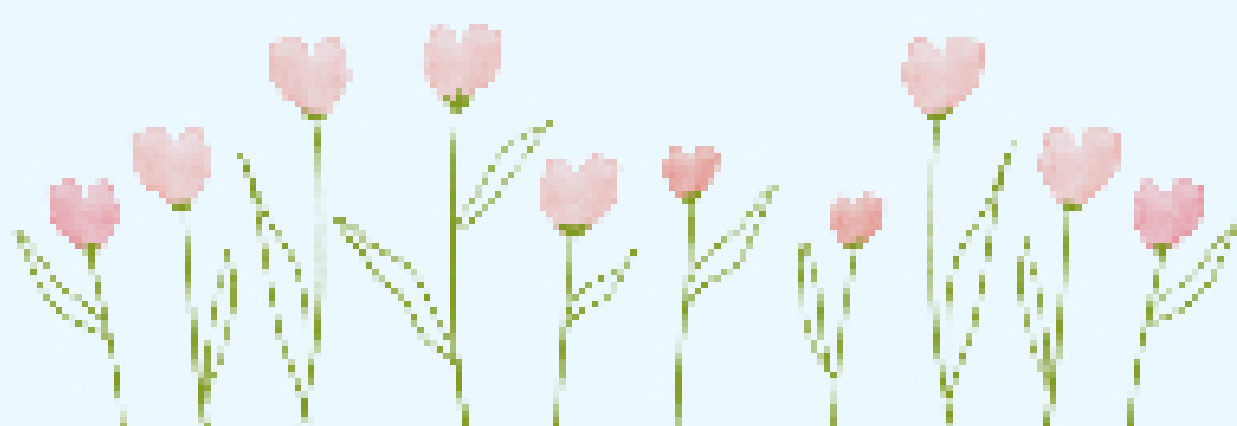
겸손의 회복: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자존심

이 상하는 상황이 생길 때, "나는 본래 흙(아다마)에서 온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분노를 가라앉히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늘의 가치 추구: 흙으로 돌아갈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에너지를 쏟기보다, 오늘 하루 영원히 남을 하늘의 가치(사랑, 친절, 복음 전파)를 위해 30분만 시간을 구별하여 사용해 보십시오.



제4장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는 선함과
깨어진 질서인 악:
<토브>와 <라>



제4장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는 선함과 깨어진 질서인 악: <토브>와 <라>

창조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며 각 단계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감탄을 남기셨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말은 단순히 보기 아름답다는 뜻을 넘어서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토브>와 그 반대 개념인 <라>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발견하게 됩니다.

토브와 라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토브>는 '선함', '아름다움', '행복'을 뜻하는데, 그 핵심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기능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과녁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화살처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존재할 때 성경은 그것을 <토브>라고 부릅니다."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세기 1:4-5)

반면, <라>는 '악함', '나쁨', '불행'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악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이탈하고 목적을 상실하여 혼돈에 빠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불행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토브>)을 잃어버리고 빗나간 자리(<라>)에 서 있을 때 시작됩니다.

구속사적 진리 : 참된 선(토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인 <토브>를 잃어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선악의 주인이 되어 판단하는 <라>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 깨어진 질서 속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10:38)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완전한 <토브>의 본을 보이셨고, 그 공로로 우리를 악(<라>)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다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복귀시키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선과 성경이 말하는 선은 다릅니다. 세상은 소유의 넉넉함

과 성공을 선이라 부르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목적 안에 거하는 것을 <토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라>입니다.

우리의 매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가?"를 묻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의 손길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은 다시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칭송을 듣는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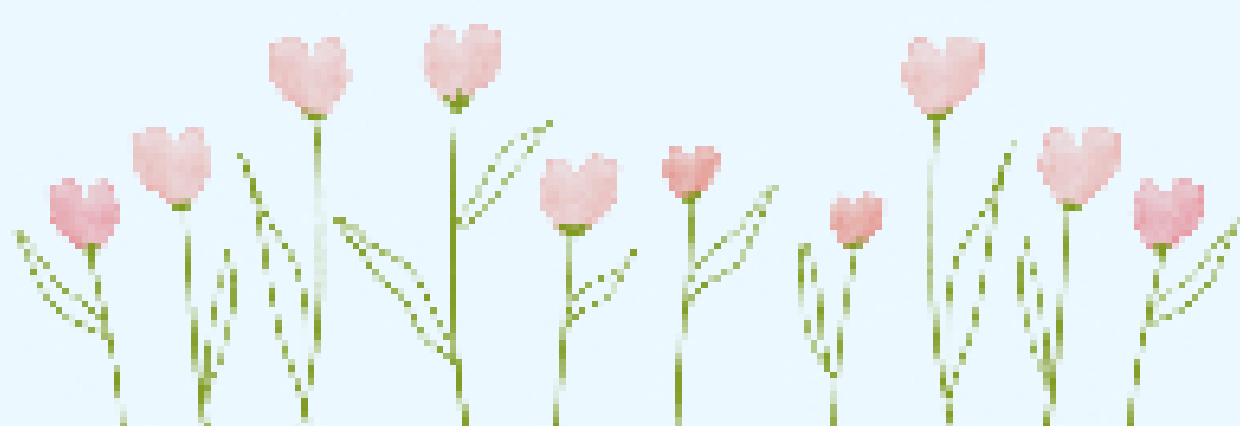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하나님의 시선 일차: 오늘 내 눈에 "나빠 보이

는(라)” 상황이나 사람을 만날 때,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토브)을 보게 하소서”라고 관점을 바꾸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선택의 기준: 오늘 내가 내릴 결정들이 단순히 내게 이익이 되는지보다, 하나님의 질서와 목적에 합당한(토브) 선택인지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하십시오.



제5장
왕의 권위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귀한 정체성 :
<첼렘>과 <데무트>



제5장 왕의 권위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귀한 정체성 : <첼렘>과 <데무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의 영광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히브리어 '형상'<첼렘>과 '모양'<데무트>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왜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첼렘과 데무트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형상'<첼렘>은 본래 '그림자' 혹은 '조각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에 자신의 동상을 세워 그 땅이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첼렘>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적 대리인'으로 부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26)

여기에 짝을 이루는 '모양'(<데무트>)는 '닮음' 혹은 '비슷함'을 뜻합니다. 이는 외형적인 모습 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은 내면적인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성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첼렘>)인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삶으로 담아내는 존재(<데무트>)입니다.

구속사적 진리 :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
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타락은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심하게 일그러뜨렸습니다. 거울이 깨지면 사물을 제대로 비출 수 없듯이, 죄로 오염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골로새서 1:15)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파괴된 <첼렘>과 <데무트>를 다시 복구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단순히 죄를 용서 받는 수준을 넘어,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집니다. 복음은 우리를 본래 창조되었던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되돌려 놓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평판이나 소유에 의해 가치가 매겨지는 존재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 <첼렘>을 담고 있는 고귀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비하하거나 세상의 기준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모양' <데무트>을 가꾸어야 합니다. 거울이 닦일수록 빛을 잘 반사하듯,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것이 당신 존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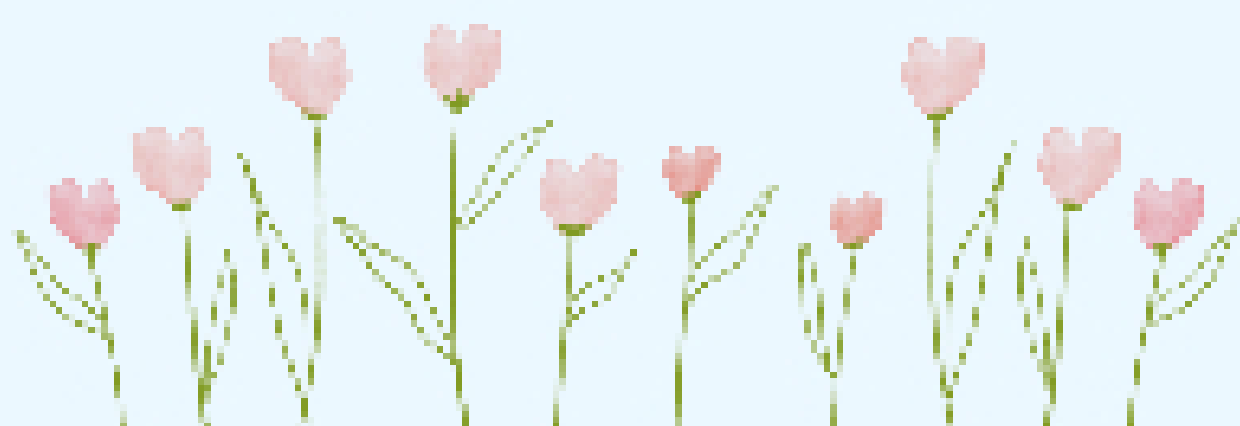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삶의 적용

왕의 대리자 의식: 오늘 일터나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통치자(<첼렘>)임을 기억하고, 무책임하거나 비굴한 태도 대신 당당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성품의 반사: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데무트>)을 보여주기 위해, 비난 대신 격려를, 짜증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한 번 더 건네보십시오.



제6장
나보다 강한 하나님의 조력 :
<에제르>와 <네게드>



제6장 나보다 강한 하나님의 조력 : <에제르>와 <네게드>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창조의 신비

성경은 하와의 창조를 기록하며 "돕는 배필"이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돕는다'는 말을 보조적이거나 부수적인 역할로 오해하곤 합니다. 히브리어 '도움'<에제르>와 '마주함'<네게드>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추적해 보면, 이것이 단순한 도움을 넘어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과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에제르와 네게드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도움'<에제르>는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됩니다. 이는 부족한 자끼리의 협력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를 향해 '더 강한 자'가 내미는 구원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연약함을 온전히 채울 강력한 조력자로 하와를 세우셨습니

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1-2)

여기에 짝을 이루는 ‘맞은편에’<네게드>는 ‘맞은편에’, ‘마주 보는’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돕는 배필”은 원어상 ‘그를 마주 보고 있는 조력자’를 뜻합니다. 이는 옆에서 짐이나 들어주는 조수가 아니라, 거울처럼 상대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며 그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인격적 동반자를 의미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6:8)

여기서 “내 앞에”가 바로 <네게드>입니다. 하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정면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배필이란 서로의 본모습을 투명하게 마주 보며(<네게드>), 그 결핍을 강력

한 도움(<에제르>)으로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인간은 서로를 마주 볼 때 비로소 온전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속사적 진리 : 최고의 에제르, 보혜사 성령님

인간은 죄로 인해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마주 봄(<네게드>)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돕는 최고의 '도움' <에제르>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16)

성령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그분 앞에 정면으로 서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진 수건이 벗겨졌기에,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같이 똑바로 마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파트너로 세워 가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과 이웃들을 당신의 부족함을 채울 '도움'(<에제르>)로 보내셨습니다. 배필은 내 등 뒤에서 수동적으로 돕는 자가 아닙니다. 내 정면에 서서 내 본모습을 비추어 주고, 나의 결핍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8)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정직하게 마주 보며(<네게드>), 서로를 향해 구원의 손길(<에제르>)을 내밀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완성됩니다. 환난 중에 우리와 눈을 맞추며 마주서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시편 46:1)

삶의 적용

거울의 역할: 배우자나 동역자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그를 마주 보고(<네게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강력한 조력자(<에제르>)가 되기로 결단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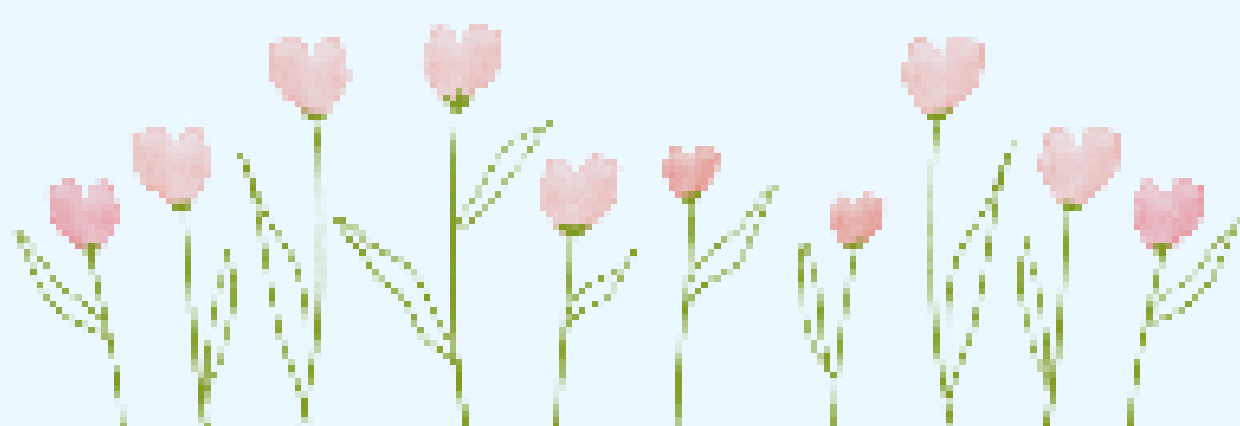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정직한 대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회피하기보다, 오늘 내가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관계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정면으로(<네게드>) 나아가십시오.



제7장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과 헛되고 가벼운 세상의
가치 :

<카보드>와 <헤벨>



제7장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과 헛되고 가벼운 세상의 가치 : <카보드>와 <헤벨>

인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가치 있고 묵직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쫓는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경고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하고 묵직한 영광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어 '영광'<카보드>와 '헛됨'<헤벨>의 대조를 통해,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카보드와 헤벨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영광'<카보드>는 '영광'으로 번역되지만, 그 본래 의미는 '무겁다'는 뜻을 가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화려한 빛이 아니라, 온 우주를 압도하는 존재의 '무게감'과 '실재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무게감 앞에 모든 피조물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견고해지는 비결은 바로 이 묵직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삶의 닳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시편 8:1)

반면, '헛됨' <헤벨>은 '헛됨', '허무'를 뜻하는데, 본래 의미는 '숨결' 혹은 '안개'입니다. 전도서의 핵심 단어이기도 한 이 단어는, 손에 잡히는 것 같으나 금세 사라져 버리는 가벼운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명예, 부, 권력은 결국 아침 안개와 같은 <헤벨>일 뿐입니다. 안개는 결코 인생의 무게중심을 지탱해 줄 수 없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

구속사적 진리 : 비천함 속에 감추어진 지고의 영광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카보드>를 버리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헛된 '안개'<헤벨>를 쫓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벼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무거우신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천하고 가벼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예수님은 세상의 눈에는 헛되이 죽어가는 <헤벨>처럼 보였으나,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광'<카보드>를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안개처럼 사라질 우리 인생을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인생의 허무를 이기고 영원한 무게감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무겁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평판이나 물질의 유무에 인생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벼운 '안개' <헤벨>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거우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에게 전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곧 경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가장 무거운 우선순위로 둘 때, 세상의 가벼운 풍파는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에 당신의 생애를 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 세상의 허무함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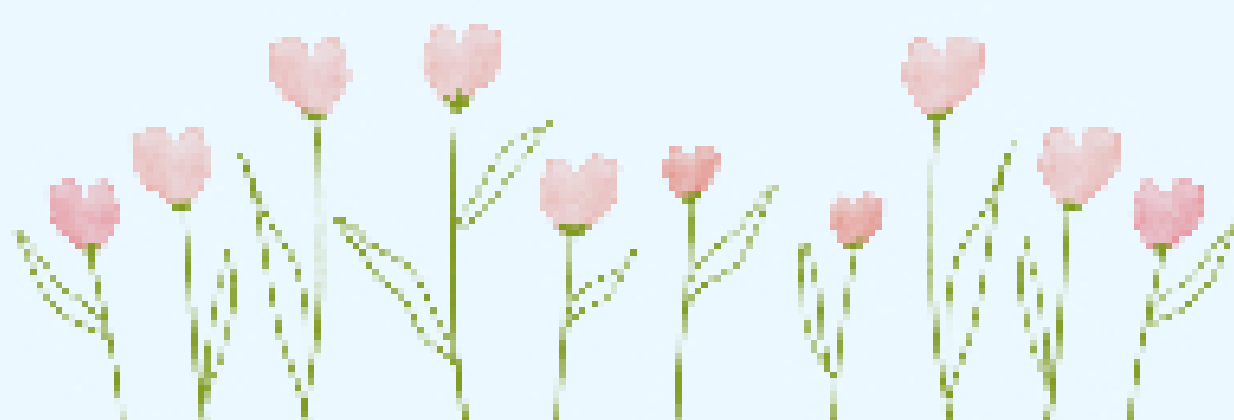
삶의 적용

무게중심 이동: 돈이나 평판처럼 사라질 '안개' <헤벨>에 마음이 쏠려 불안해질 때마다, 영원히 묵직한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를 찬양하며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옮기십시오.

영광을 위한 가치: 오늘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식사, 대화, 업무)이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를 나타내는 일이 되도록, "주님, 저를 통해 주님의 위엄이 나타나게 하소서"라고 의식하며 행동하십시오.



제8장
마음의 중심과 살아 숨 쉬는 생명 :
<레브>와 <네페쉬>



제8장 마음의 중심과 살아 숨 쉬는 생명 : <레브>와 <네페쉬>

영혼의 좌소와 생명의 박동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육체와 정신으로 나누지 않고, 전인적인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 중심에는 인간의 의지와 결정이 담긴 '마음'<레브>와, 생명의 숨결이 약동하는 갈망의 실체인 '생령'<네페쉬>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우리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을 넘어,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무엇을 위해 갈망하는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던집니다.

레브와 네페쉬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마음'<레브>는 흔히 '마음'으로 번역되지만, 이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 지성, 의지, 결정의 근원지를 뜻합니다. 즉, 한 사람의 인생을 운전하는 '조정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조정실에 어떤 가치관이 앉아 있는지를 감찰하십니다.

성경이 "마음을 다하여"라고 할 때, 이는 감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지적, 의지적 자원을 주님께 정렬하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나 여호와와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7)

한편, '생령' <네페쉬>는 '목구멍'이라는 어원에서 유래하여 '살아있는 목숨' 혹은 '갈망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순간도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결핍을 숙명적으로 가진 존재입니다. 목구멍이 타오르는 갈증을 느끼듯,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들이켜야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레브>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라면, <네페쉬>는 그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엔진'이자 '거룩한 갈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네페쉬>) 된지라" (창세기 2:7)

구속사적 진리 : 새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소생 시키시는 주님

죄는 우리의 '마음'<레브>를 완고한 돌처럼 만
들었고, 우리의 '생령'<네페쉬>를 헛된 욕망의
우물에 중독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
간의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며, 영혼은 영원한
목마름 속에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이 깨어진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
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완고한 자
아를 깨뜨리시고 성령을 통해 부드러운 새 '
마음'<레브>를 이식해 주셨습니다(에스겔
36:26). 또한 주님은 친히 '생명의 떡'과 '생수'
가 되셔서, 굶주린 우리의 영혼(<네페쉬>)을
영원히 만족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
을 때만 우리의 빛나간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정렬되며, 우리의 갈증 나는 목숨은 영원
한 생명으로 소생됩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마음은 인생의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샘의 근원입니다. 조정실에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앉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방역하십시오. 또한 당신의 영혼이 느끼는 갈증을 세상의 소유로 달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 더 큰 고통만 부를 뿐입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임재라는 시냇가로 나아가 영혼을 적시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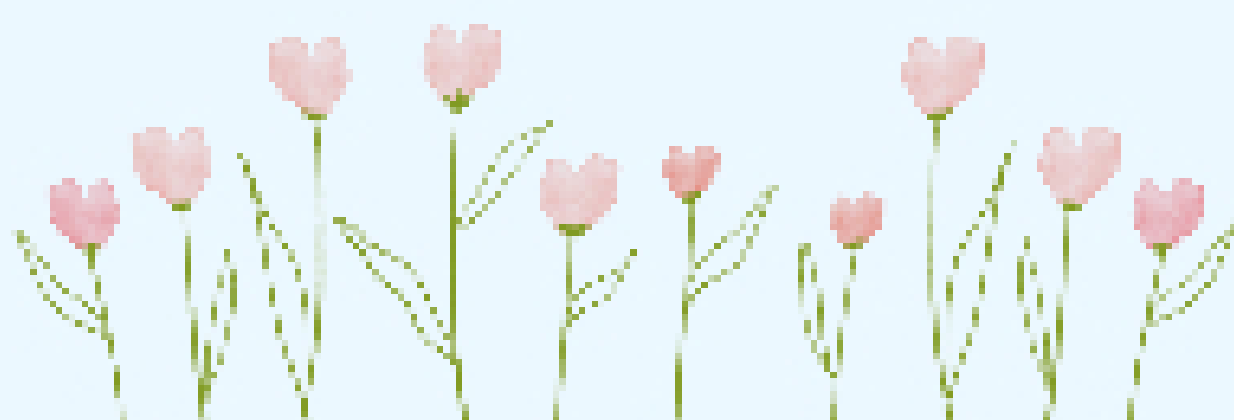
삶의 적용

조정실 점검: 오늘 내가 내린 중요한 결정들의 동기가 나의 유익('마음'<레브>)이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었는지 정직하게 기록해 보십시오.

갈망의 전환: 갈증을 느끼릴 때 스마트폰이나 쇼핑이 아닌, 시편 1편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수('생령'<네페쉬>)로 영혼을 채우는 시간을 10분만 가져보십시오.



제9장
분별의 지각과 헤아림의 명철 :
<초크마>와 <비나>



제9장 분별의 지각과 헤아림의 명철 : <초크마>와 <비나>

지혜의 근원과 영적 통찰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신령한 분별력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어 '지혜'<초크마>와 '명철'<비나>는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초크마와 비나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지혜'<초크마>는 단순히 똑똑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자라나는 신령한 나무와 같습니다. <초크마>를 소유한 자는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질서 안에서 인생을 해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초크마>)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10)

한편, ‘명철’<비나>는 ‘사이(between)’를 뜻하는 어원에서 유래하여, 복잡한 상황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짚어내는 ‘명철’ 혹은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지혜’<초크마>가 지혜의 넓고 깊은 ‘저수지’라면, ‘명철’<비나>는 그 지혜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나누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지혜를 품고 오늘의 현실을 명철하게 헤아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비나>)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잠언 4:5)

구속사적 진리 : 하나님의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는 인류의 총명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을 아

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했고, 인간은 자기 꾀에 빠져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이 어리석음의 흑암 속에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비웃는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필승의 '명철' <비나>를 발휘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교만한 지식을 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드러낸 구속사의 결정체입니다. 복음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는 빛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당신의 좁은 소견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광활한 지혜를 덧입으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소나기를 피하는 요행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당신의 일상을 비추어

보십시오. 주님의 지혜가 당신의 나침반이 될 때, 당신은 복잡한 인생의 광야에서도 가장 바르고 복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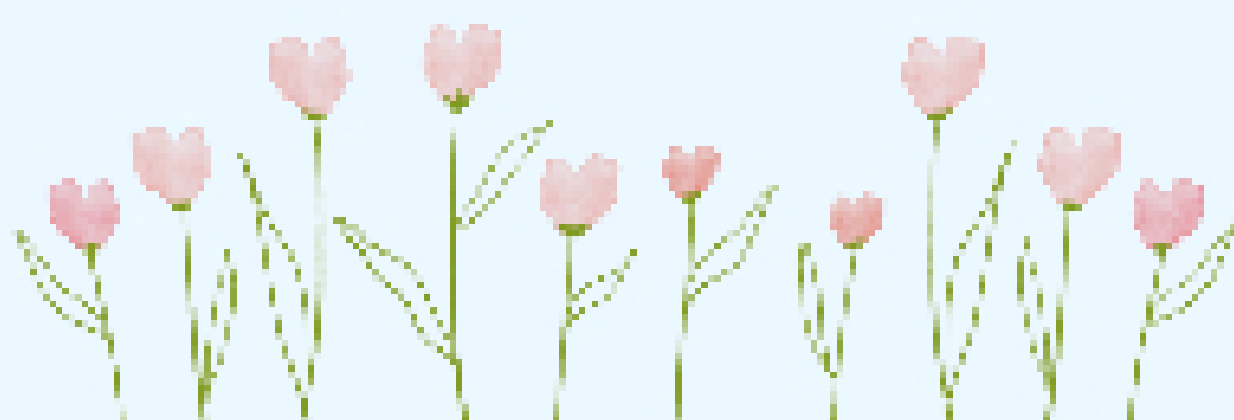
삶의 적용

기도의 우선순위: 오늘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나의 판단을 멈추고, "주님, 이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라고 3분간 먼저 기도하십시오.

분별의 실천: 누군가에 대한 판단이 설 때, 그것이 나의 감정인지 하나님의 '명철' <비나>인지 잠언 말씀 한 장을 읽으며 다시금 분별해 보십시오.



제10장
의지적인 선택적 사랑과 뜨겁게 밀착되는
연모의 열정 :
<아하브>와 <하샤크>



제10장 의지적인 선택적 사랑과 뜨겁게 밀착 되는 연모의 열정 : <아하브>와 <하샤크>

사랑의 결단과 타오르는 열망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감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견고한 의지인 동시에, 우리를 향해 무섭게 타오르는 멈출 수 없는 열정입니다. 히브리어 '사랑'<아하브>와 '사랑함'<하샤크>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입체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하브와 하샤크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사랑'<아하브>는 성경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사랑으로, 감정을 넘어선 '의지적인 선택'과 '언약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주권적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아하브>)”
(신명기 6:5)

반면, ‘사랑함’<하샤크>은 훨씬 더 뜨겁고 강렬합니다. 본래 의미는 ‘결합하다’, ‘단단히 매다’로,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그분의 심장을 단단히 묶어버린 연모의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하브>가 사랑의 ‘건고한 뿌리’라면, <하샤크>는 그 사랑의 ‘뜨거운 숨결’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하샤크>) 말미암아... 너희를 구속하셨나니” (신명기 7:8)

구속사적 진리 : 십자가에 자신을 묶으신 하샤크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함' <하샤크>, 즉 그 뜨거운 연모의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를 다시 품으시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 인생에 영원히 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고통의 자리에 못 박히셨으나, 사실 주님을 그곳에 묶어둔 것은 죄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멈출 수 없는 <하샤크>의 열정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밀착되기를 원하셨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 없이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갈망이 만난 기적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당신은 하나님께 단순히 구원받아야 할 대상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그분의 '연모' <하샤크>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응답이 필요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종교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 딱 달라붙는 <하샤크>의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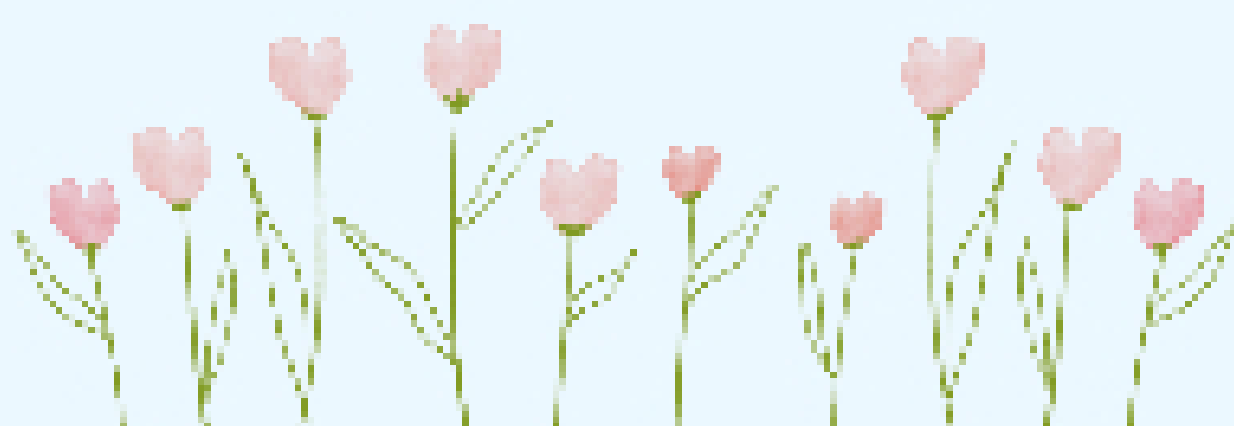
사랑의 확산: 오늘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고(<아하브>), 지금도 나에게 마음이 묶여 계신다(<하샤크>)"라는 문장을 세 번 소리 내어 고백하십시오.

밀착의 시간: 세상의 걱정에서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늘 밤 5분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만 온전히 밀착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제11장

인격적인 우정과 신적이고 절대적인 희생 :
<필레오>와 <아가페>



제11장 인격적인 우정과 신적이고 절대적인 희생 : <필레오>와 <아가페>

사랑의 색깔과 무한한 깊이

신약 성경은 사랑을 표현할 때 두 단어를 사용하여 그 차원을 설명합니다. 인간적인 따뜻한 우정과 정서적 교감을 뜻하는 '사랑'<필레오>와, 하나님의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인 '사랑'<아가페>입니다. 이 두 단어의 조화는 기독교 사랑의 본질입니다.

필레오와 아가페의 심층 분석

헬라어 '사랑'<필레오>는 인격적인 반응과 친밀함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아끼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감정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이런 친밀한 사귀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필레오>)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요한복음 5:20)

반면, '사랑'<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며 선택적인 의지입니다. 이는 대상의 자격이나 가치에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결단한 무조건적인 희생을 뜻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은 오직 이 <아가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아가파오>)"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필레오>)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필레오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가페로 그 부족함을 덮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아가파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16)

구속사적 진리 : 필레오를 넘어 아가페를 완성하신 주님

죄는 우리에게서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빼앗았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깨어진 사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가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아가페 사랑의 절정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시며 우리와 친밀한 '사랑'<필레오>의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최고의 아가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따뜻한 필레오로 우리와 사귀시는 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무한한 사랑이 땅의 비천한 우리를 '친구' 삼은 감격의 자리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아가페의 마

음으로 용납하십시오. 또한 주님과 친밀한 '우정'<필레오>을 나누십시오. 주님은 엄격한 심판주가 아니라, 당신의 사소한 고민까지도 듣고 싶어 하시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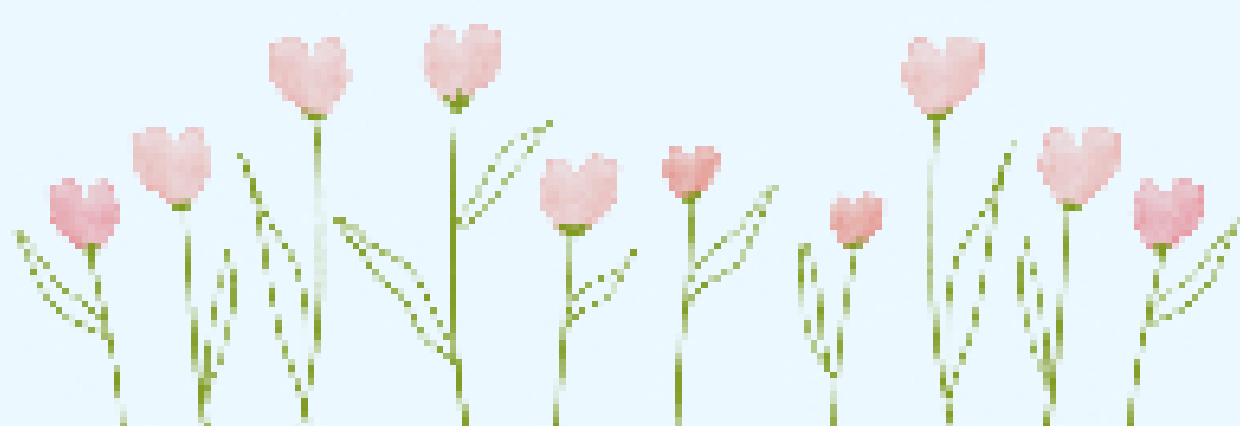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삶의 적용

희생의 실천: 오늘 내게 불편함을 준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그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짧게 드리는 아가페적 결단을 해 보십시오.

친구와의 대화: 오늘 하루 중 가장 기뻐했던 일이나 슬펐던 일을 친구에게 말하듯 예수님께 고백하며 인격적인 '교감'<필레오>을 시도해 보십시오.



제12장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 :
<세굴라>와 <카도시>



제12장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 : <세굴라>와 <카도시>

소유의 기쁨과 구별의 영광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며 특별한 명칭을 부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와 '거룩한 구별'입니다. 히브리어 '소유'<세굴라>와 '거룩'<카도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합니다.

세굴라와 카도시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소유'<세굴라>는 왕이 개인적으로 소중히 간직하는 '사적인 보물' 혹은 '특별한 소장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많은 백성 중 하나가 아니라, 왕이 직접 관리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보석과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지만, 당신이라는 존재를 그분의 가장 은밀한 보물 창고에 소중히 간직하신 <세굴라>로 부르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세굴라>) 되겠고” (출애굽기 19:5)

한편, '거룩'<카도시>는 그 본래 의미가 '잘라 내다' 혹은 '분리하다'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을 넘어, 세상의 가치관과 목적에서 분리되어 오직 하나님의 용도로만 '따로 떼어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석(<세굴라>)을 세상의 잡석들 사이에서 골라내어 거룩한 상자에 구별하여 담으신 것(<카도시>)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7:6)

구속사적 진리 : 보혈로 사신 보배로운 백성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보물(<세굴라>)로서의 광채를 잃어버리고, 부정한 오물 속에 던

저진 가치 없는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이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의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고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존재(<카도시>)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입니다. 복음은 비천한 우리를 왕의 보물로 신분을 격상시킨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세상의 평가가 당신의 가치를 폄하할 때,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소유' <세굴라>라는 왕의 인장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보석은 그에 걸맞은 장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풍조와 섞이지 않는 거룩함(<카도시>)

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은 고립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당신의 언어와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명하십시오.

삶의 적용

정체성 선포: 아침에 거울을 보며 "나는 하나님의 보석(<세굴라>)이며, 오늘 하루 세상과 구별된 거룩(<카도시>)으로 살 것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구별된 행동: 오늘 평소 하던 세상적인 대화나 부정적인 습관 중 하나를 선택해, "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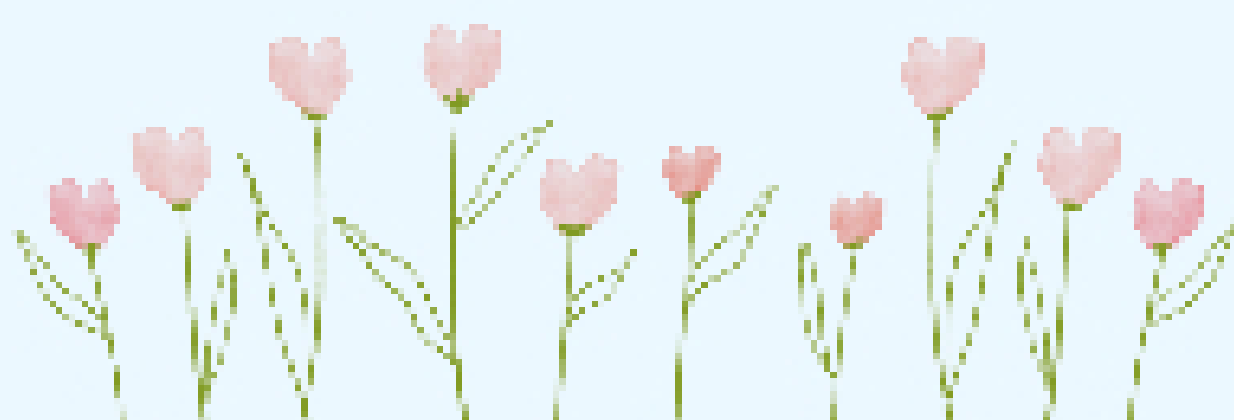
제 2 부

죄와 구속 -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가





제13장
과녁을 빗나간 본질적 죄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 :
<하타>와 <페사>



제13장 과녁을 빗나간 본질적 죄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 : <하타>와 <페샤>

방향의 상실과 관계의 파괴

성경은 죄를 단순히 윤리적인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다룹니다. 히브리어 '죄'<하타>와 '허물'<페샤>는 죄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지 그 치명적인 실체를 폭로합니다.

하타와 페샤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죄'<하타>는 본래 궁수가 쏜 화살이 과녁을 빗나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해주신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서 이탈한 모든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타>입니다. 죄는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열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23)

반면, ‘허물’<페사>는 훨씬 더 악의적이고 의도적입니다. ‘반역’ 혹은 ‘반란’으로 번역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뺏히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그 선을 넘고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과녁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돌려 왕을 향해 쏘는 것과 같은 도발적인 행위가 바로 <페사>입니다. 죄는 부주의한 실수를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거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성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페사>)” (이사야 1:2)

구속사적 진리 : 빛나간 인생을 위해 반역의 형벌을 받으신 주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방향을 잃게 하였

고(<하타>), 아버지를 거역하게(<페사>) 만들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반역한 적이 없으신 온전한 아들이셨으나, 우리가 저지른 모든 <페사>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빛나간 우리 인생의 화살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과녁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반역자들을 용서하고, 길 잃은 자들에게 참된 길을 찾아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 그 자체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과녁을 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하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허물'<페사>입니다. 주님은 반역한 자라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로운 분입니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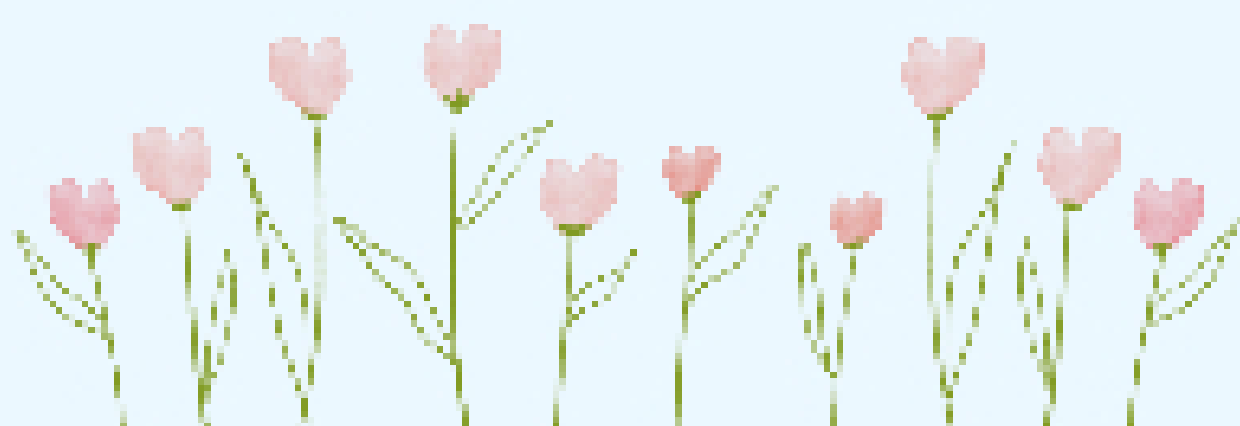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방향 점검: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단순히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과녁)을 향한 것인지 잠잠히 물어보십시오.

순종의 연습: 오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나의 고집(반역)이 느껴질 때, 내 생각을 즉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연습을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제14장

빗나간 화살로서의 죄와
법을 어기는 불법의 상태 :
<하마르티아>와 <아노미아>



제14장 빛나간 화살로서의 죄와 법을 어기는 불법의 상태 : <하마르티아>와 <아노미아>

죄의 원형과 구조적 타락

신약 성경은 죄를 묘사할 때 구약의 개념을 계승하면서 영적인 깊이를 더합니다. 헬라어 '죄' <하마르티아>와 '불법' <아노미아>는 우리 안에 도사린 죄의 실체와 무법함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하마르티아와 아노미아의 심층 분석

헬라어 '죄' <하마르티아>는 히브리어 '하타'와 같이 '과녁을 빗나감'을 뜻하지만, 신약에서는 '사람을 사로잡고 지배하는 힘'으로서의 죄를 강조합니다. 즉, 단순히 한 번의 윤리적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마비시키고 죽음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치명적인 결함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 죄가 우리 지체 속에서 왕 노릇 하며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죄가(<하마르티아>) 단지 우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로마서 6:14)

반면, ‘불법’<아노미아>는 ‘법(nomos)’이 없는 ‘무법’ 혹은 ‘불법’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죄를 정의할 때 “죄는 불법이라”고 선언하며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스스로 법이 되려는 교만이 바로 <아노미아>입니다. <하마르티아>가 우리를 빗나게 하는 ‘죄의 지배력’이라면, <아노미아>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무질서한 삶’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아노미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4)

구속사적 진리 :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인류는 '죄' <하마르티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불법' <아노미아>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이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하마르티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지배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노미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은혜의 법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거룩한 순종의 질서로 인도하는 유일한 승리의 통로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죄' <하마르티아>는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려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당신의 결심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이 죄의 지배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삶 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불법' <아

노미아>의 마음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 삶은 곧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당신의 삶을 맡기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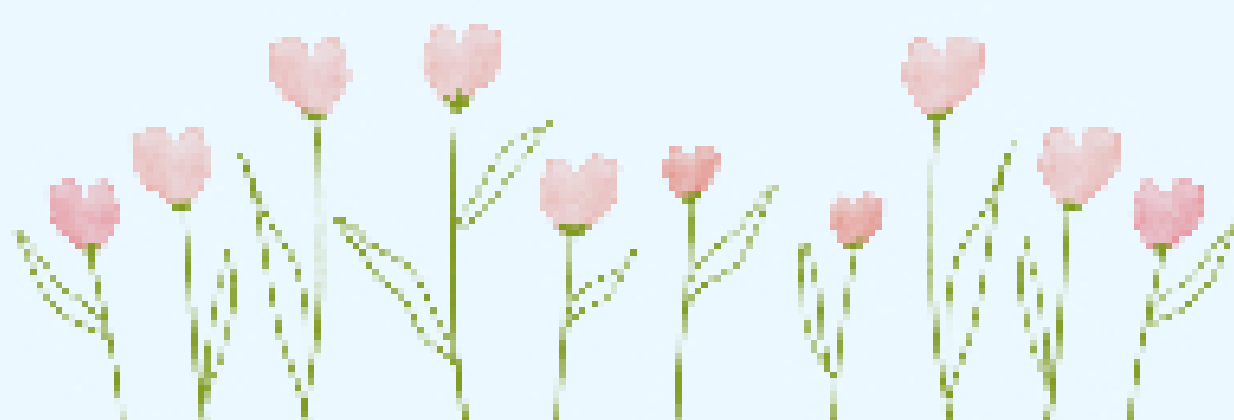
삶의 적용

은혜의 법 선포: "나는 이제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 있다"고 고백하며, 나를 지배하려는 나쁜 생각(<하마르티아>)들을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질서 회복: 오늘 내 삶의 시간표나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아노미아>를 해결하는 말씀의 법)이 무시된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고, 말씀의 원리대로 질서를 바로잡는 행동을 하나만 취해 보십시오.



제15장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후회와
인간의 전인격적인 돌이킴 :
<나함>과 <슈브>



제15장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후회와 인간의 전인격적인 돌이킴 : <나함>과 <슈브>

신적 고통과 인간의 응답

하나님은 차가운 법 집행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 앞에 깊이 아파하시며 후회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어 '한탄'<나함>과 '돌아옴'<슈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참된 회개의 자세가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나함과 슈브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한탄'<나함>은 흔히 '후회하다', '한탄하다'로 번역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실수를 인정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슬픈 상태임을 뜻합니다.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나함>)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6)

반면, '돌아옴'<슈브>는 '돌아가다', '회복하다'는 뜻으로 인간 측면에서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뉘우침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몸을 완전히 돌려 하나님께로 복귀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나함>)을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삶의 방향 전환(<슈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슈브>) 하셨나니" (요엘 2:12)

구속사적 진리 : 하나님의 아픔을 구원으로 바꾸신 그리스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나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대신, 자신의 독생자를 심판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슈브>) 길 자체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으로 드러난 현장이며,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주님은 길 잃은 양들을 찾아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하나님을 슬프게 해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는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나함>)을 느끼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눈물로만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실제로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돌아옴' <슈브>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가장 영광스러운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탕자를 위해 멀리서 부터 달려오십니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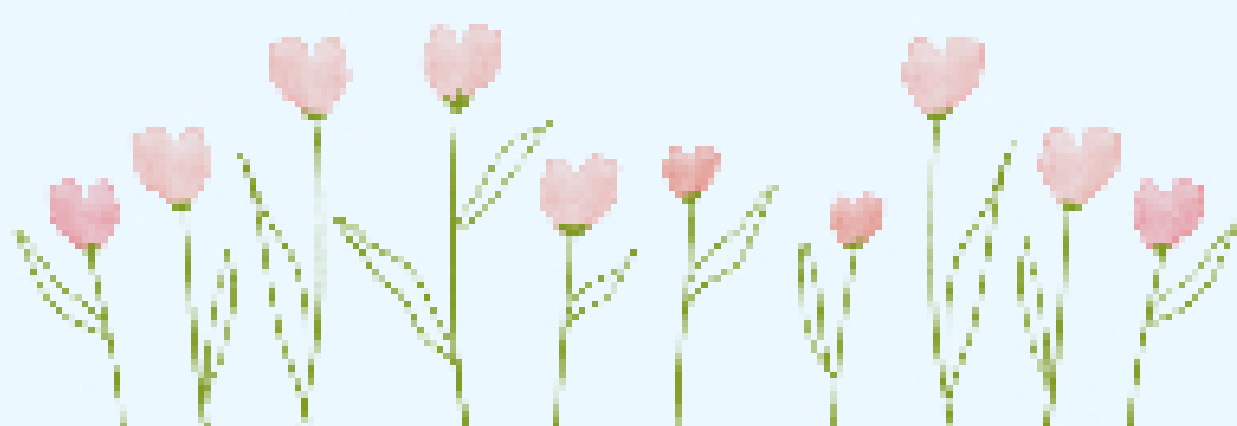
하나님의 마음 묵상: 오늘 나의 죄가 단순히 나의 실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한 사건 ('한탄' <나함>)임을 깨닫고 그분의 슬픔을 1분간 깊이 묵상하며 죄송함을 고백하십시오.

즉각적 유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던 나의 말이나 행동을 즉시 멈추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180도 전환하는 구체적 행동 ('돌아옴' <슈브>)을 실천하십시오.



제16장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와
삶의 방향의 완전한 전환 :
<메타노이아>와 <에피스트레포>



제16장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와 삶의 방향의 완전한 전환 : <메타노이아>와 <에피스트레포>

회개의 두 측면: 마음과 행동

참된 회개는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이동하는 사건입니다. 헬라어 '회개'<메타노이아>와 '돌이킴'<에피스트레포>를 통해 우리 신앙의 핵심인 회개의 신비를 살펴봅시다.

메타노이아와 에피스트레포의 심층 분석

헬라어 '회개'<메타노이아>는 '뒤에(meta)'와 '마음(nous)'이 합쳐진 단어로, '생각의 변화' 혹은 '마음의 고쳐먹음'을 뜻합니다. 이는 죄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마음을 품는 지적인, 그리고 내적인 변화입니다.

"회개하라(<메타노에오>) 천국이 가까왔느니

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2)

반면, '돌이킴' <에피스트레포>는 '완전히 돌아서다'는 뜻으로, 마음의 변화를 넘어 실제적인 '삶의 자취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슈브'와 같은 맥락입니다. <메타노이아>가 내면의 혁명이라면, <에피스트레포>는 그 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시적인 행보입니다. 생각만 하고 돌아서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며, 마음의 변화 없는 행동의 수정은 위선일 뿐입니다. 성경은 전인적인 돌이킴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메타노에오>) 돌이켜(<에피스트레포>)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19)

구속사적 진리 :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죄는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사망의 길에 묶어두었습니다. 이 죽음의 관성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회개의 영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메타노이아>), 죄의 사슬을 끊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에피스트레포>)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절망적인 죄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줍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회개는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영적 호흡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당신의 생각을 교정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했다면 즉시 행동하십시오. 미워하던 자를 사랑하고, 불의한 길에서 발을 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과 발걸음이 오직 주님을 향해 뜨겁게 정렬되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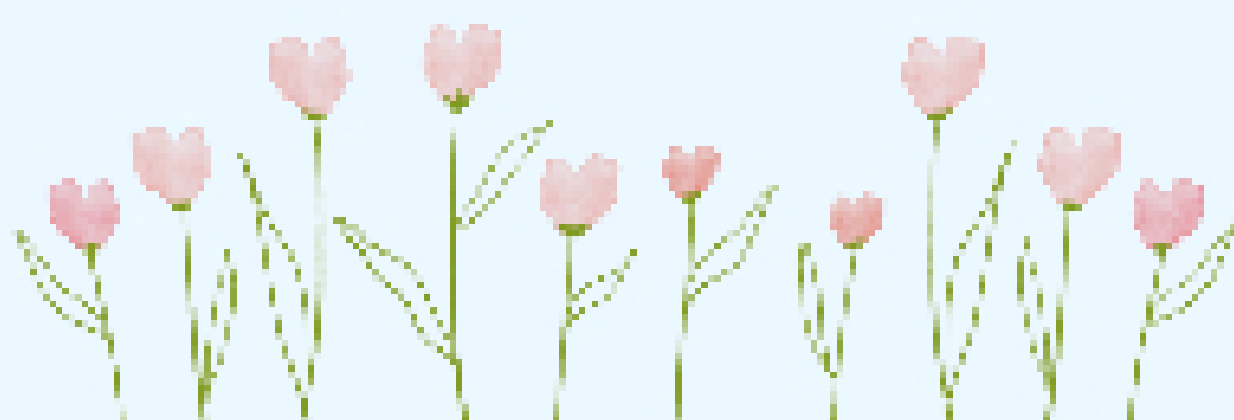
삶의 적용

생각의 교정: 오늘 나의 머릿속에 가득한 부정적이거나 세속적인 생각들을 발견할 때마다, 즉시 하나님의 관점('회개'<메타노이아>)으로 생각을 바꾸는 기도를 하십시오.

발걸음의 증명: 회개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머물고 있는 불미스러운 관계나 장소가 있다면, 오늘 즉시 그곳에서 발을 떼는 행동('돌이킴'<에피스트레포>)을 통해 회개를 증명하십시오.



제17장
가까운 친족이 값을 치러 되찾아오는
속량의 은혜 :
<가알>과 <파다>



제17장 가까운 친족이 값을 치러 되찾아오는 속량의 은혜 : <가알>과 <파다>

사랑의 책임과 대속의 신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순히 명령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셨고,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히브리어 '구속'<가알>과 '속량'<파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희생을 보여줍니다.

가알과 파다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구속'<가알>은 '고엘' 제도와 연결된 단어로, 기업을 무를 자 혹은 친족 구속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까운 친척이 가난하여 팔린 땅을 되찾아 주거나, 종이 된 친족을 위해 몸값을 대신 내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 우리 인생의 모든 빛을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가알>) 내가 너를 지

명하여 불렀나니 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1)

반면, '속량'<파다>는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상응하는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는 특별히 노예 상태나 죽음의 위기에서 대가를 치르고 배내 올 때 사용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노예 된 우리를 그냥 데려오지 않으시고, 합법적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구속'<가알>이 사랑의 '책임'을 강조한다면, '속량'<파다>는 확실한 '대가의 지불'을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파다>)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호세아 13:14)

구속사적 진리 :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피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

우리는 죄의 빚더미에 앉아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린 영적 파산자들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

고엘'('구속'<가알>))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혈통을 입으심으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시어 모든 것을 책임지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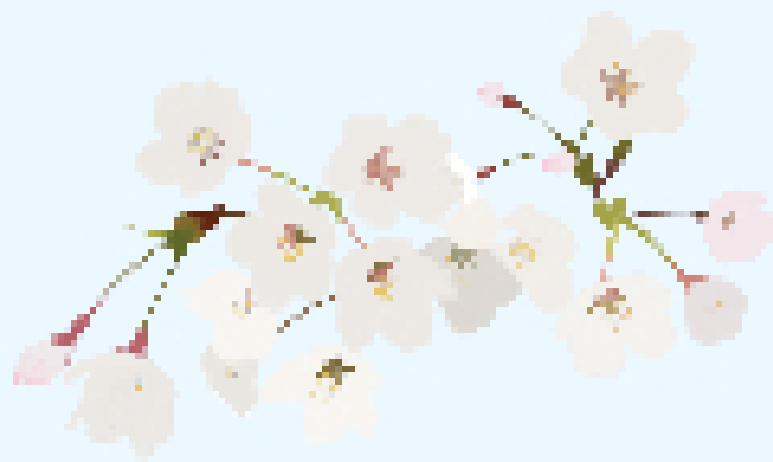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무너진 삶을 책임지고 일으켜 세우실 위대한 친족('구속'<가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값을 이미 치르셨기에, 당신은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요 두려움의 노예도 아닙니다. 사단이 당신의 과거를 들먹이며 정죄할 때, 당신을 위해 피 값을 치르신 주님의 영수증을 보여주십시오.

삶의 적용

신분 확인: 죄책감이 찾아올 때, "내 고엘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사셨다('구속'<가알>)"고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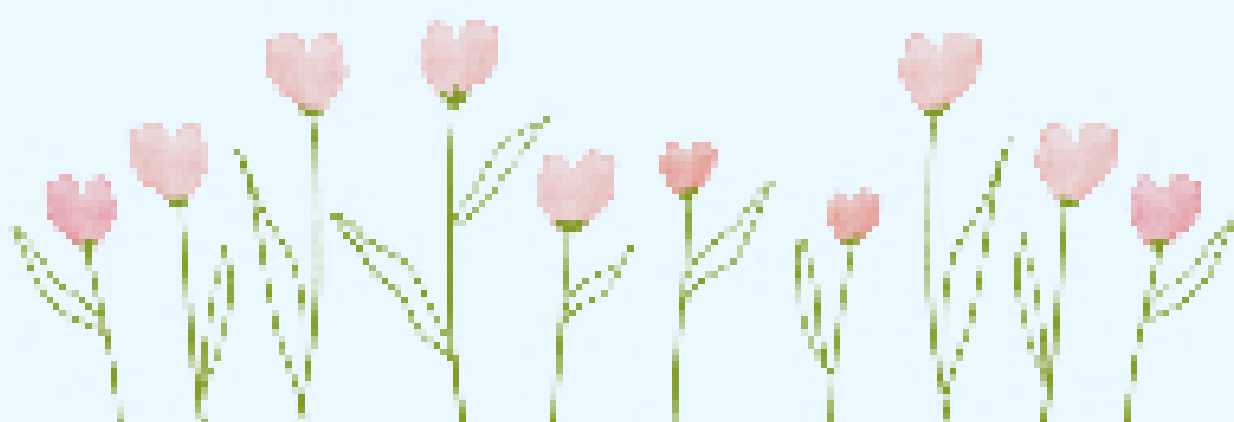
하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을 선포하십시오.

책임 있는 삶: 주님이 비싼 몸값('속량'<파다>)을 지불하셨음을 기억하며, 내 몸과 마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주님의 명예를 지키는 거룩한 삶을 오늘 한 가지 실천해 보십시오.



제18장

죽음의 값을 지불하는 대속과
노예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루트론>과 <아폴루트로시스>



제18장 죽음의 값을 지불하는 대속과 노예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 <루트론>과 <아폴루트로시스>

대가의 지불과 자유의 선포

신약 성경은 구원의 과정을 시장 경제의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헬라어 '대속물' <루트론>과 '속량' <아폴루트로시스>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루트론과 아폴루트로시스의 심층 분석

헬라어 '대속물' <루트론>은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 지불하는 '몸값' 혹은 '대속물'을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 가치에 합당한 금액이 주인에게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몸값이 되셨습니다.

"인자가 온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

속물로(<루트론>)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28)

반면, '속량'<아폴루트로시스>는 그 대속물이 지불된 결과로 얻어진 '완전한 해방' 혹은 '속량'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시는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영구적인 자유를 뜻합니다. <루트론>이 구원의 '수단(대가)'이라면, <아폴루트로시스>는 구원의 '결과(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최고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시장에서 영원히 빼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아폴루트로시스>)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7)

구속사적 진리 :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주신 그리스도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사망이라는 주인에

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 공의의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속량' <아폴루트로시스> 되었습니다. 복음은 비싼 값을 치러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당신의 자유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비싼 대가('대속물' <루트론>)를 치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기에 당신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속량' <아폴루트로시스>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당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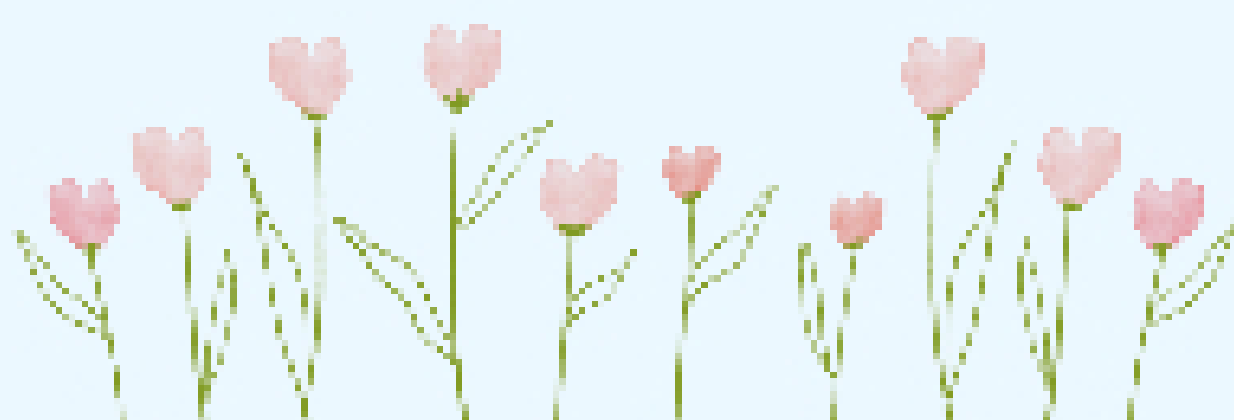
삶의 적용

가치 확인: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나는 예수님의 목숨 값('대속물'<루트론>)짜리 인생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자유 사용: 오늘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위해 나의 시간이나 재정을 기꺼이 사용하는 자유로운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제19장
생명을 건 쫓개짐의 의식과
영원한 관계의 약속 :
<카라트>와 <베리트>



제19장 생명을 건 쏘개짐의 의식과 영원한 관계의 약속 : <카라트>와 <베리트>

피의 언약과 신실한 결속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생명을 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히브리어 '자르다'<카라트>와 '언약'<베리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무겁고 신실한 것인지 묵상합니다.

카라트와 베리트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언약'<베리트>는 '언약' 혹은 '계약'을 뜻합니다. 이는 왕이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관계의 선포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베리트>)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창세기 17:7)

놀라운 것은 언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히브리
인들은 언약을 맺을 때 '카라트 베리트', 즉 '언
약을 자르다(<카라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제물을 반으로 찢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
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제물처럼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생명을 건 맹
세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친히 찢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인간
이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겠다
는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타는 횃불이 찢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카라트 베리트>) 가라사대" (창세기
15:17-18)

구속사적 진리 : 자신의 몸을 찢개어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베리트>를
파기했습니다. 이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영
원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심으로('자르다'<카라트>), 깨어진 옛 언약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약을 파기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셨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생명을 건 '언약'<베리트>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도 주님께 신실하십시오. 세상의 헛된 우상과 언약하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당신의 왕으로 모십시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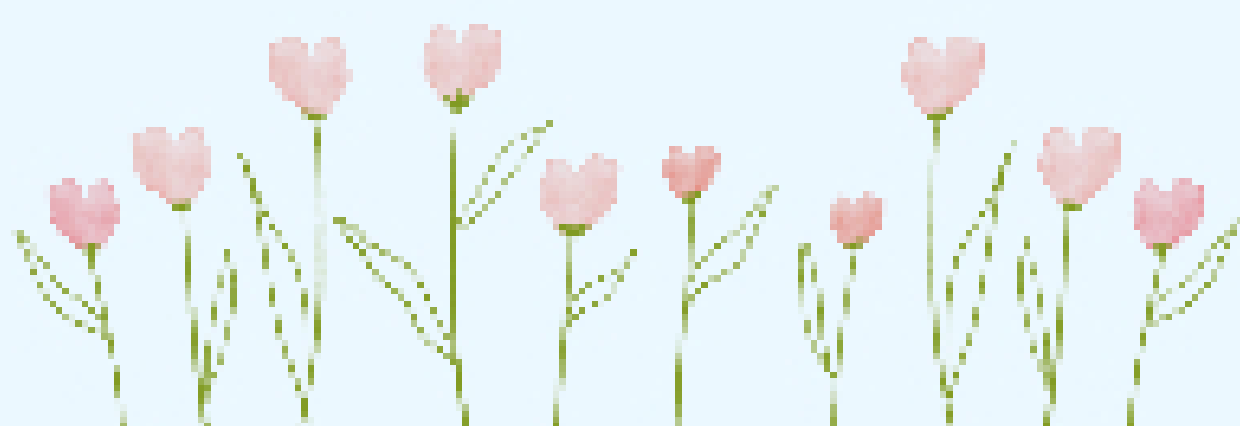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언약의 신뢰: 오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생명을 걸고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잠잠

히 기다리십시오.

세상과의 단절: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기 위해,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세상적인 습관 하나를 과감히 '잘라내는' <카라트> 행위를 해 보십시오.



제20장
변함없는 인애의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진실의 바위 :
<헤세드>와 <에메트>



제20장 변함없는 인애의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진실의 바위 : <헤세드>와 <에메트>

언약의 속성과 신뢰의 기초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히브리어 '인자'<헤세드>와 '진실'<에메트>를 통해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합니다.

헤세드와 에메트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인자'<헤세드>는 '인애',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상태와 상관없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며 베푸는 끈질긴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영원하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헤세드>)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1)

여기에 짝을 이루는 '진실'<에메트>는 '진리', '

진실'을 뜻합니다. 그 어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견고한 기초인 '바위'와 같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헤세드>은 기분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진실하신 성품('진실'<에메트>) 위에 세워진 반석 같은 사랑입니다.

"여호와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헤세드>)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에메트>) 대대에 미치리로다" (시편 100:5)

구속사적 진리 : 인자와 진리가 만난 십자가의 신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동시에 성취하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헤세드>과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로운 '진실'<에메트>이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그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인애를 선물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룩한 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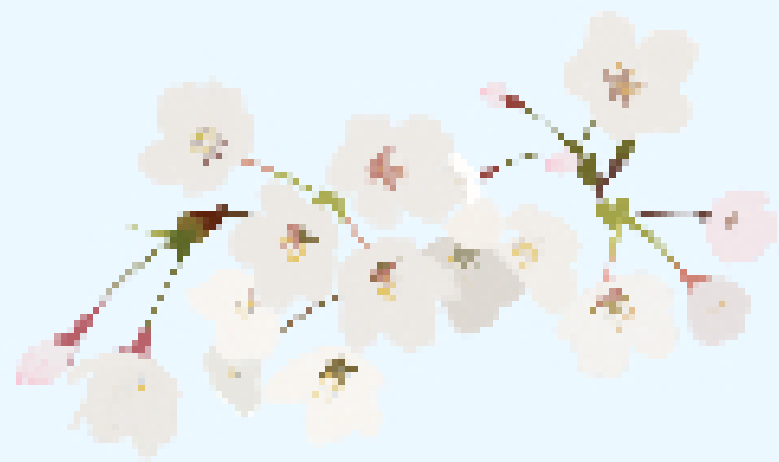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와 '진실' <에메트>는 영원합니다. 상황이 당신을 속일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붙드십시오. 이기적인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의 <헤세드>를 본받아 이웃을 끈질기게 사랑하십시오.

삶의 적용

감사의 고백: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인자함으로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에 3가지 구체적인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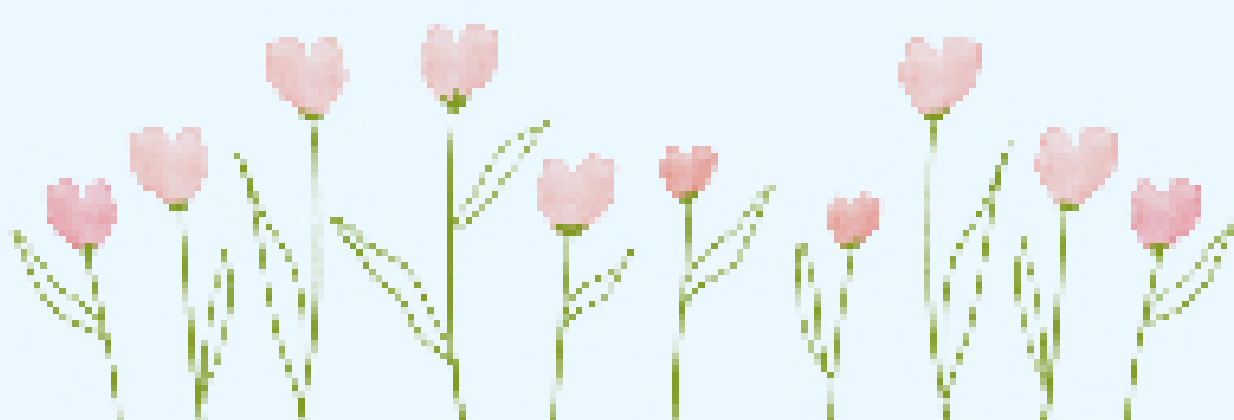
진실의 성품: 오늘 누군가에게 한 약속이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진실' <에메트>를 본받아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제21장

공의로운 판결과 삶으로 드러나는 정의 :

<사파트>와 <미슈파트>



제21장 공의로운 판결과 삶으로 드러나는 정의 : <샤파트>와 <미슈파트>

심판의 엄중함과 통치의 질서

하나님은 우주의 재판장이시며, 그분의 통치는 완전한 정의 위에 서 있습니다. 히브리어 '재판하다' <샤파트>와 '공법' <미슈파트>는 단순히 죄를 벌하는 차원을 넘어,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 억울한 자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정력을 의미합니다.

샤파트와 미슈파트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재판하다' <샤파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는 동사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악인을 벌할 뿐 아니라 의인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능동적인 통치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에게 심판을(<샤파트>) 행하시오리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

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시편 7:8)

여기에 짝을 이루는 '공법' <미슈파트>는 그 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의'와 '법도'를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질서로 나타난 상태입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의 <미슈파트>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공의로운 판결(<샤파트>)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정의(<미슈파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직 공법을(<미슈파트>)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찌로다” (아모스 5:24)

구속사적 진리 : 공의를 만족시키고 정의를 세우신 그리스도

인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샤파트>) 앞에 모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미슈파트>)를 어긴 대가는 죽음 뿐이었습니다. 이 엄중한 심판의 자리에서 우

리를 대신하여 판결을 받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사파트>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참된 <미슈파트>를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을 향한 용서로 나타난 우주적인 재판 현장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은혜의 법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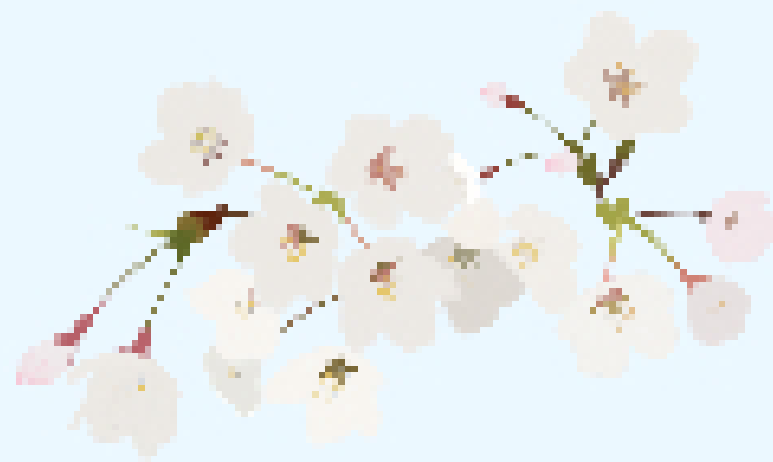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삶을 공의의 저울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파트>는 피할 수 없습니다. 불의한 이익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참된 경건은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고 삶의 <미슈파트>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보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당신의 삶 구석구석에 미치게 하여, 당신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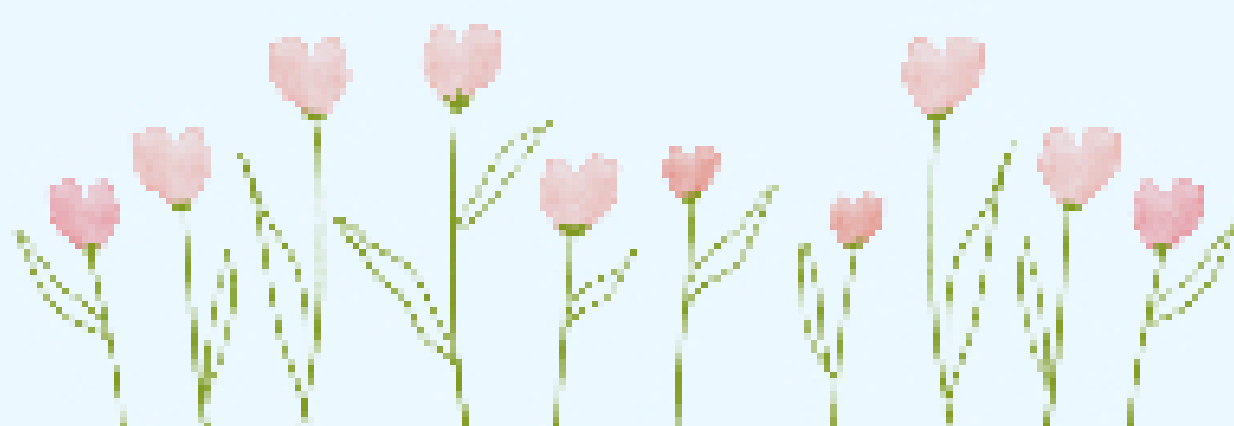
삶의 적용

정직한 정산: 오늘 나의 경제적 이득이나 대화 중에서 하나님의 정의('공법'<미슈파트>)에 어긋나는 거짓이나 편법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즉시 바로잡으십시오.

신원의 위탁: 나를 비방하거나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 내 감정으로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심판'<샤파트>)입니다"라고 선포하며 기도로 그 문제를 주님께 넘겨드리십시오.



제22장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전능자와
충분함의 은혜 :
<엘 샤다이>와 <다이>



제22장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전능자와 충분함의 은혜 : <엘 샤다이>와 <다이>

풍성한 공급과 만족의 근원

우리는 늘 부족함 속에 허덕이며 무언가를 더 채우려 애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어 '전능한 하나님'<엘 샤다이>와 '넉넉하다'<다이>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분 안에서 누리는 자족의 비밀을 묵상합니다.

엘 샤다이와 다이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전능한 하나님'<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되지만, 그 어원적 배경에는 '어머니의 품(젖가슴)'과 '산'이라는 의미가 서려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센 분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양육하고 만족시키시는 '충족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절망에 빠졌을 때 하

나님은 자신을 <엘 샤다이>로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람의 구십 구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엘 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1)

여기에 짝을 이루는 '넉넉하다'<다이>는 '충분하다',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때 예물을 가져오자 "그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다이>) 남음이 있었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간신히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전능하신 분(<엘 샤다이>)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다이>)가 주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구속사적 진리 : 충만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

스도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함에서 끊어버렸고, 인간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텅 빈 인생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기 위해 <엘 샤다이>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주님이 곧 우리를 먹이시는 전능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의 은혜를 단번에, 그리고 충분하게 (<다이>)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기에(골 1:19), 주님을 소유한 자는 온 우주를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결핍의 인생을 신령한 부요함으로 초대하는 소식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세상의 자원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

오. 당신의 공급자는 세상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엘 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산과 같이 견고하고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주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족함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넉넉합니다<다이>"라고 고백할 때 탐욕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십니다. 당신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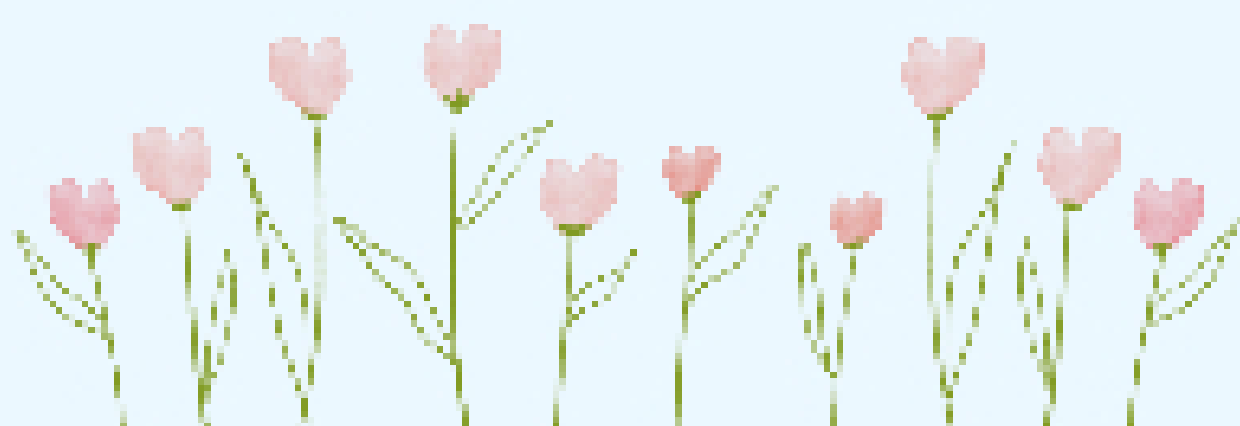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감사의 고백: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내가 가진 것들(건강, 가족, 일터 등)을 하나씩 떠올리며 "주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넉넉하다'<다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5분간 가지십시오.

공급의 신뢰: 재정적인 결핍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할 때, "나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엘 샤다이> 이시다"라고 크게 선포하며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제23장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
<임마누엘>과 <에벤에셀>



제23장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여기 까지 도우신 하나님 : <임마누엘>과 <에벤에 셀>

동행의 신비와 감사의 고백

신앙생활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곁
에는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뒤
에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어 '임마누엘'과 '에벤에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걸음마다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임마누엘과 에벤에셀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임마누엘'은 '함께'라는 뜻의 '임', '우
리'라는 뜻의 '마누', '하나님'인 '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시
기 위해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 소망의 이름을 선포했습니

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한편,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친 후 돌을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는 신앙의 매듭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임마누엘’)이 계시기에, 우리는 고비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에벤에셀’)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12)

구속사적 진리 : 동행과 도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는 도움 없는 고아처럼 방황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거리감을 제거하고 영원한 동행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실체적인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친히 겪으심으로 진정한 동행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심으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에벤에셀'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겠다는 임마누엘 약속의 영원한 확증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당신 곁에서 당신의 숨소리를 듣고 계십

니다.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골짜기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인생 이정표마다 감사의 돌을 세우십시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오늘 당신은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의 밤을 지나오게 하신 분도, 승리의 기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장래에 만날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

임마누엘 연습: 오늘 이동하는 시간이나 일하는 틈틈이 "주님, 저와 함께 계시죠?"라고 속삭이며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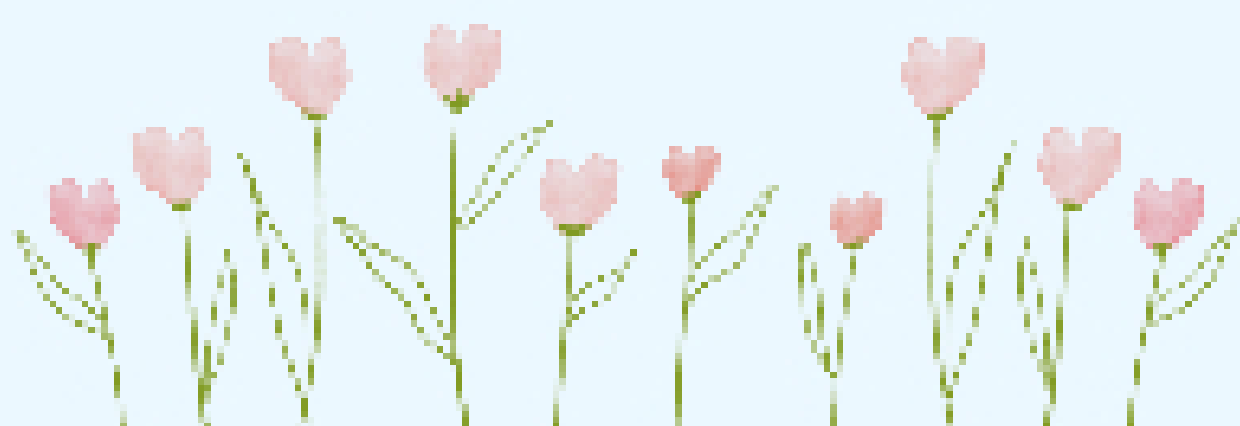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에벤에셀 기록: 오늘 저녁,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3가지를 적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에벤에셀')를 찾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제24장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부르짖음과
구원 그 자체이신 이름 :
<호산나>와 <예슈아>



제24장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부르짖음과 구원 그 자체이신 이름 : <호산나>와 <예슈아>

간절한 호소와 확실한 해답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본능적으로 구원을 외칩니다. 성경은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어 '구원하소서' <호산나>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슈아>를 통해 구원의 긴박함과 그 실재적 권능을 묵상합니다.

호산나와 예슈아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구원하다'는 뜻의 '호샤'와 '간구'를 뜻하는 '나'가 합쳐진 말로, 직역하면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절박한 비명입니다. 이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탄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며 외쳤던 이 부르짖음

은 모든 인류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
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
는 이여” (마가복음 11:9)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
인 대답이 바로 '예수' <예슈아>입니다. '여호와
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은 구원
의 실제적인 성취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호산
나>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
슈아>를 보내주십니다. <호산나>가 우리의 '탄
식'이라면, <예슈아>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막연한 철학이 아니라 예수라는 인격
적인 이름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생명
의 사건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예슈아>)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
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구속사적 진리 : 부르짖음을 구원으로 완성하 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는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서 끊임없이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쳐왔습니다.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호산나>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즉각적인 '구원' <예슈아>을 베푸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낮은 비명인 <호산나>가 하나님의 가장 높은 승리인 <예슈아>로 바뀌는 기적의 성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자존심을 버리고 부르짖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버티는 것은 교만입니다.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구원은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어둠과 질병과 가난의 결박 앞에서도 '예수' <예슈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모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며, 가장 선한 구원의 길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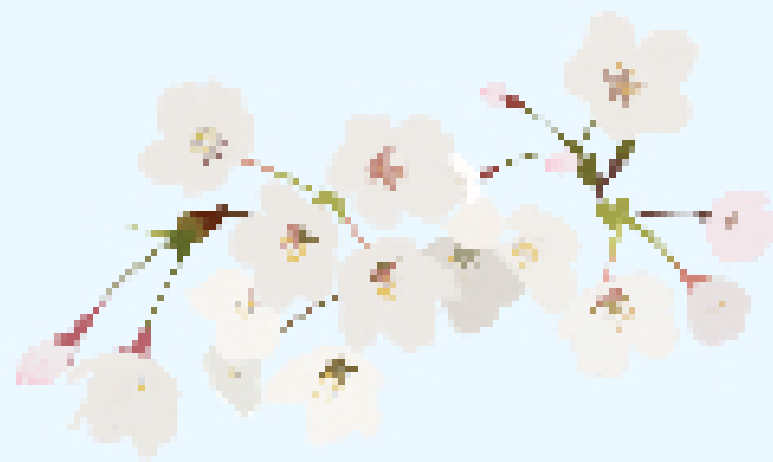
호산나 기도: 오늘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고통스러운 감정 앞에서 억지로 참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소리 내어 "주여,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5번 부르짖으십시오.

예수 이름 선포: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상황이
나 사람 앞에서 속으로 "예수'<예슈아>의 이름
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제 3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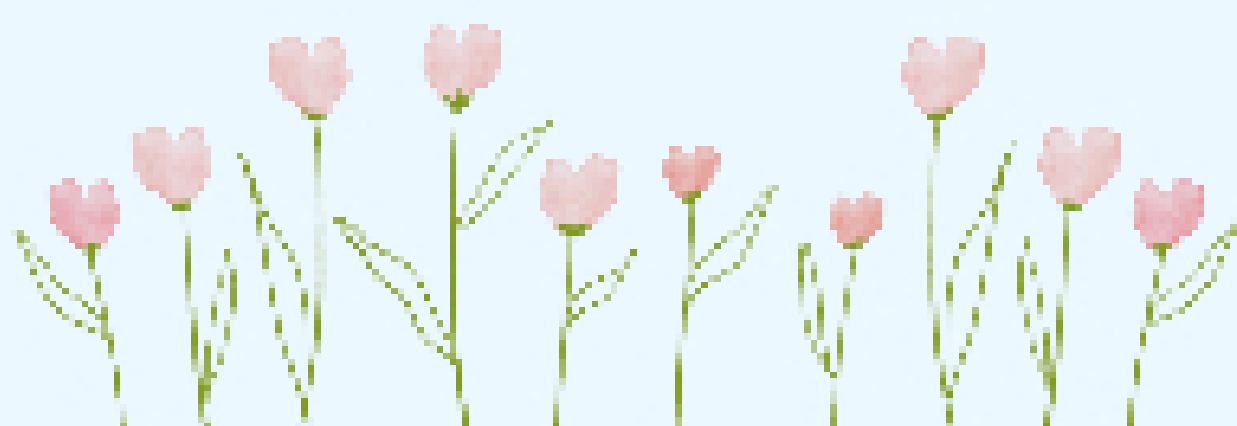
시간과 변혁 -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제25장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 속에 침투하는
하나님의 결정적 때 :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제25장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 속에 침투하는 하나님의 결정적 때 : <크로노스>와 <카이로 스>

시간의 두 얼굴: 흐름과 기회

우리는 매일 시계 바늘의 움직임에 따라 살아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함몰되지 않고, 그 시간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라고 가르칩니다. 헬라어 '시간'<크로노스>와 '때'<카이로스>를 통해 우리 인생의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묵상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심층 분석

헬라어 '시간'<크로노스>는 연대기적으로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이 평등하게 주어지는 기계적인 흐름이며,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성경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기록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때가 차매(<크로노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4)

반면, ‘때’<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이며 ‘결정적인 기회’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찰나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인생의 배경이라면, <카이로스>는 그 배경 위에 그려지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카이로스>)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15)

구속사적 진리 : 크로노스를 뚫고 오신 영원한 카이로스, 예수 그리스도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의미 없는 ‘시간’<크로노

스>의 노예가 되어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허무한 시간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과 잇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시간(<크로노스>)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으나, 그분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때'<카이로스>였습니다. 특히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모든 흐름을 바꾸어 놓은 가장 위대한 <카이로스>의 사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단순히 나이를 먹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만나는 기회의 시간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당신은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분주하게 흘러가는 일상의 흐름(<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의미 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순간(<카이로스>

>)을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목적 없이 낭비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 당신에게 주어진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때'<카이로스>를 발견하십시오.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일에 당신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된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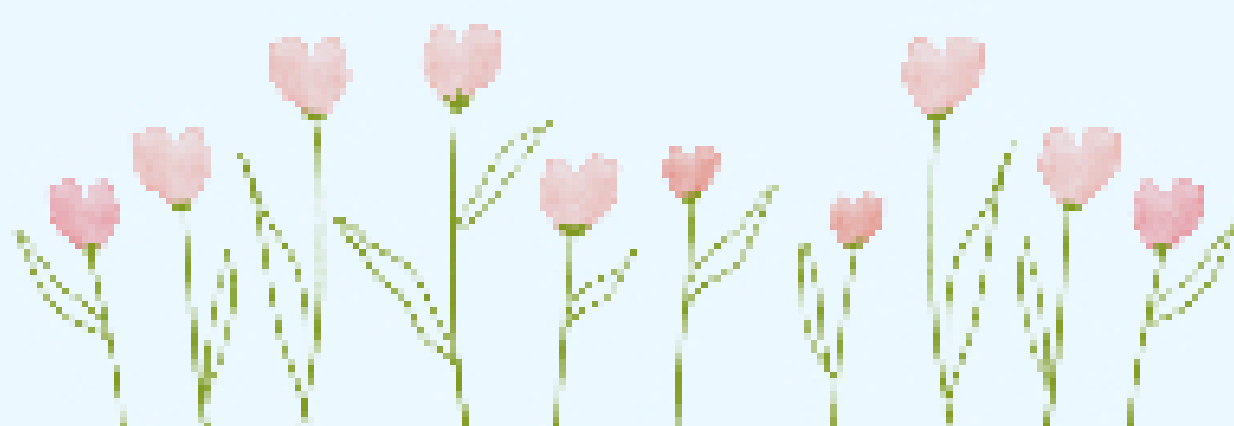
삶의 적용

시간의 구별: 매일 10분만이라도 물리적인 '시간'<크로노스>의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정지된 '때'<카이로스>를 가지십시오.

기회 포착: 오늘 만나는 사람이나 겪는 사건이 우연이 아님을 고백하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카이로스>)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찾아 기록해 보십시오.



제26장
낡은 것의 교체가 아닌
본질 자체가 새롭게 된 재창조 :
<네오스>와 <카이노스>



제26장 낡은 것의 교체가 아닌 본질 자체가 새롭게 된 재창조 : <네오스>와 <카이노스>

진정한 새로움의 의미

세상은 늘 새로운 유행과 물건을 찾아 헤매지만, 인간이 만든 새로움은 금세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결코 낡아지지 않는 본질적인 새로움을 약속합니다. 헬라어 '새로움'<네오스>와 '새로운'<카이노스>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입은 새 생명의 신비를 고찰합니다.

네오스와 카이노스의 심층 분석

헬라어 '새로움'<네오스>는 시간적인 관점에서의 '새로움'입니다. 이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거나, 낡은 모델을 최신 것으로 바꾼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네오스>는 시간이 흐르면 다시 낡은 것이 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네오

스>)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고린도전서 5:7)

반면, '새로운' <카이노스>는 질적인 관점에서
의 '새로움'입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본질과 종류가 완전히
다른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결코 낡아질
수 없는 영원한 성격의 새로움입니다. 성경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언약'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이노스>입니다. 성도는 겉
사람이 바뀌는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 속사람
이 완전히 재창조된 <카이노스>의 존재입니
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
을 새롭게(<카이노스>) 하노라 하시고” (요한
계시록 21:5)

구속사적 진리 :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신 카
이노스의 복음

죄는 인류를 부패하게 하여 본질적으로 낡고

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도덕적인 수양이나 종교적인 노력으로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낡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카이노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낡은 자아를 죽이시고, 부활을 통해 결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낡은 옷을 수선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낡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당신은 겉모습의 변화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새로움(<네오스>)은 당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새로움(<카이노스>)을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신분에 걸맞은 '새로운 방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낡은 고정관념과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생명력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세월이 흐를수록 당신의 속사람은 더욱 빛나고 찬란한 새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

내면의 혁신: 오늘 아침,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카이노스>)다"라고 세 번 선포하며, 낡은 자아의 습관(부정적 생각, 원망)을 거절하십시오.

새로운 시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예전의 선입견('새로움'<네오스>적 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실 가능성('새로운'<카이노스>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한 가지 칭찬을 건네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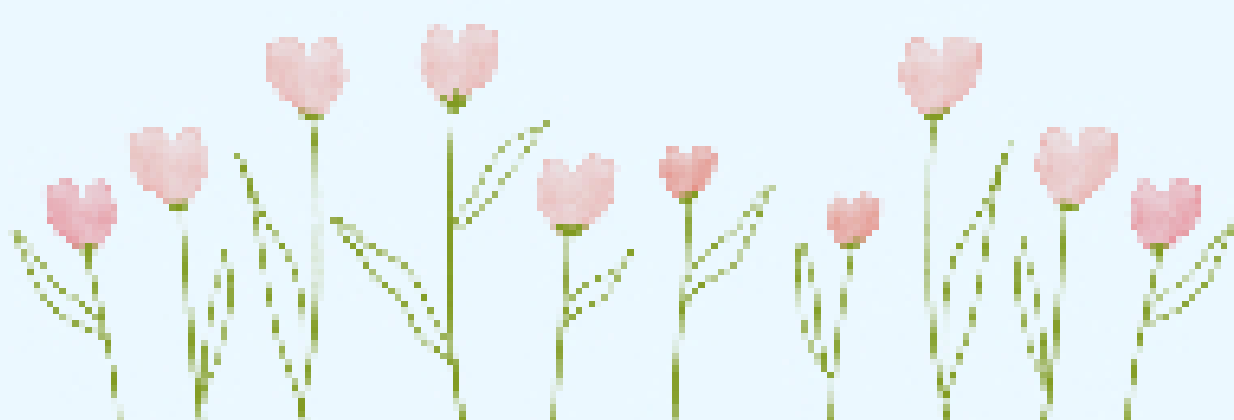


제27장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영원한 생명의 줄기 :

<비오스>와 <조에>



제27장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영원한 생명의 줄기 : <비오스>와 <조에>

생존과 생명의 차이

살아있다고 해서 다 같은 생명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숨이 붙어있는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상태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헬라어 '생활'<비오스>와 '생명'<조에>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생명의 실체가 무엇인지 고찰합니다.

비오스와 조에의 심층 분석

헬라어 '생활'<비오스>는 생물학적인 목숨을 의미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신체적인 생명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과 생활 양식을 포함합니다. <비오스>는 유한하며 시간이 흐르면 소멸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비오스>)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요한일서 2:16)

반면, '생명'(<조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이는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과 연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에너지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말할 때의 생명이 바로 이 <조에>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도는 생존하는 존재(<비오스>)를 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존재(<조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조에>)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10)

구속사적 진리 : 죽은 비오스를 영원한 조에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죄는 인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조에>)을 앗아갔고, 인간을 단순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생물학적 존재(<비오스>)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조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예수님은 자신의 '생활'<비오스>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조에>를 선물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조에>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음을 보여주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이 땅의 생존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 영원히 사는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당신은 생존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인 <비오스>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인 <조에>를 누리는 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육신의 연약함과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당신 안에 있는 결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땅의 양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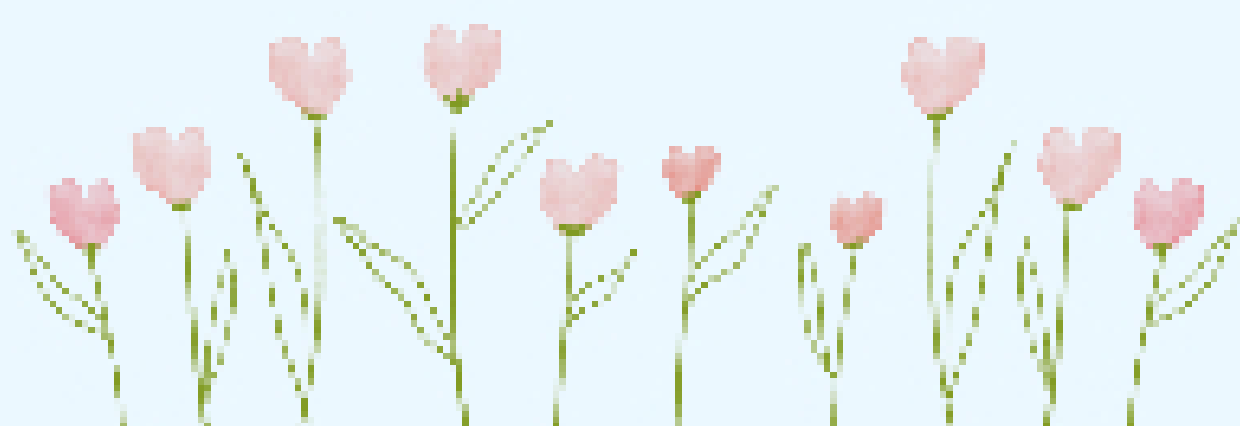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삶의 적용

가치의 전환: 오늘 돈과 건강 같은 '생활'<비오스>적 가치를 위해 걱정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생명(<조에>)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풍성한 삶. 내 안에 '생명' <조에>가 충만하다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짜증이 아닌 생명의
에너지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명에
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십시오.



제28장
전인적인 평강과 온전한 회복 :
<살롬>과 <에이레네>



제28장 전인적인 평강과 온전한 회복 : <샬롬>과 <에이레네>

평화의 뿌리와 열매

평화는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전인격적 조화를 뜻하는 평화와 신약의 관계적 화목을 뜻하는 평화를 연결합니다. 히브리어 '평강'<샬롬>과 헬라어 '평안'<에이레네>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깊이를 묵상합니다.

샬롬과 에이레네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평강'<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함', '조화'를 뜻합니다. 이는 영혼과 육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 완벽하게 정렬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여호와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찌니라” (민수기 6:26)

반면, 헬라어 '평안'〈에이레네〉는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결합되어 누리는 '평화'와 '화목'을 뜻합니다. 이는 특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화해하게 된 상태를 강조합니다. 구약의 〈샬롬〉이 평화의 넓고 깊은 '상태'를 보여준다면, 신약의 〈에이레네〉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화평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에이레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함(〈샬롬〉)을 누리는 자입니다.

“평안을(〈에이레네〉)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27)

구속사적 진리 : 우리의 평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는 인류에게서 평화를 앗아갔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에이레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에베소서 2:14)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셨습니다. 주님이 치르신 희생을 통해 우리는 참된 화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당신의 마음은 지금 평안합니까? 세상은 소유와 성공이 평안을 줄 것이라 말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흘러나

웁니다. 주님께 당신의 모든 염려를 맡기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먼저 낮아지고 용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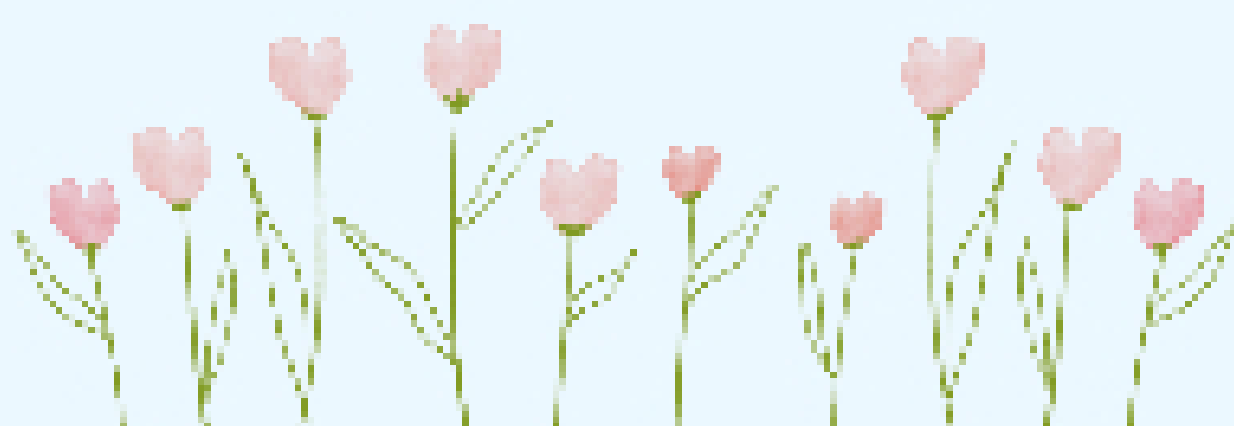
평강의 점검: 오늘 마음이 불안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진 틈은 없는지 돌아보고, "주님, 저를 주님의 '평안'<에이레네>로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화해의 도구: 오늘 내가 먼저 사과하거나 손 내밀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주님의 '평강'<shalom>을 위해 먼저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제29장

세상에 선포되는 복된 소식과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
<유앙겔리온>과 <로고스>



제29장 세상에 선포되는 복된 소식과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 <유앙겔리온>과 <로고스>

복음의 선포와 말씀의 실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며 복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헬라어 '복음' <유앙겔리온>과 '말씀' <로고스>를 통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말씀의 권능을 묵상합니다.

유앙겔리온과 로고스의 심층 분석

헬라어 '복음' <유앙겔리온>은 '좋은(eu)'과 '소식(angelia)'이 합쳐진 단어로, 본래 전쟁의 승전보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최고의 '복음'이라 부릅니다. 이는 들을 때 기쁨이 넘치는 폭발적인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유앙겔리온>)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16)

반면, '말씀'(<로고스>)는 단순히 '말'이나 '단어'를 넘어 만물의 이성, 질서, 존재의 근원을 뜻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 바로 <로고스>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창조와 생명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인 <로고스>가 역사 속에 구체적인 승리의 소식인 <유앙겔리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로고스>)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1)

구속사적 진리 : 복음의 실체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죄는 인류를 하나님의 '말씀'<로고스>에서 분리시켰고, 우리는 소망 없는 절망의 소식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자 최고의 기쁜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말씀이(<로고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로고스>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최대의 승전보인 '복음'<유앙겔리온>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의 소식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당신의 삶을 채우고 있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우울하고 절망적인 소식에 귀를 기울

이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의 소식인 '복음'〈유앙겔리온〉을 매일 들으십시오. 복음은 당신을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말씀'〈로고스〉이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말씀 안에 거할 때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질서로 정돈되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는 배달부로 부르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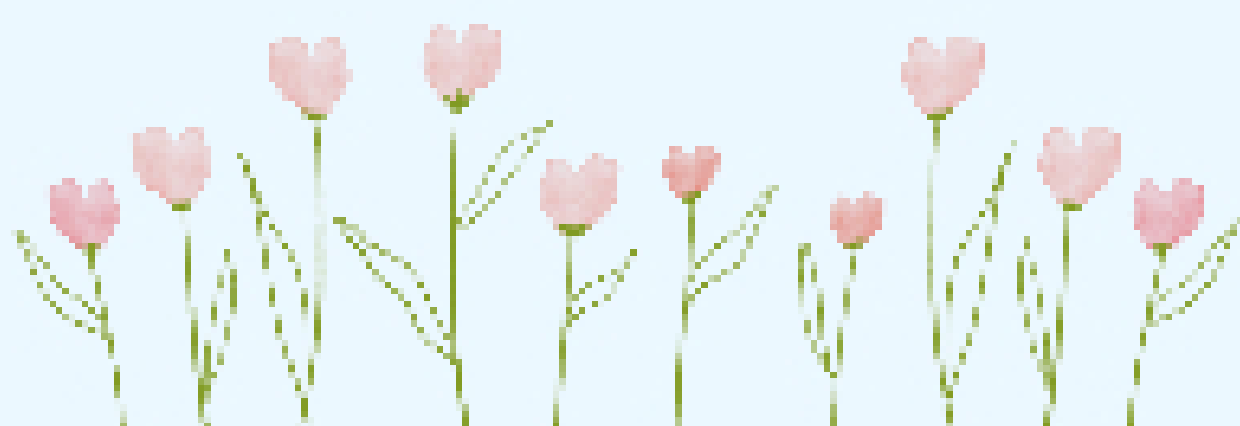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삶의 적용

승전보 묵상: 오늘 아침,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이것이 나의 '복음'〈유앙겔리온〉이다!"라고 크게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의 거주: 내 생각의 질서가 깨질 때마다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며, 살아계신 '말씀'〈로고스〉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제30장
위로부터 부어지는 복과
말씀의 길을 걷는 자의 행복 :
<바라크>와 <아샤르>



제30장 위로부터 부어지는 복과 말씀의 길을 걷는 자의 행복 : <바라크>와 <아샤르>

복의 근원과 삶의 형통

성경은 '복'에 대하여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복을 주다'<바라크>와 '복 있는 사람'<아샤르>를 통해 진정한 복의 의미를 회복합니다.

바라크와 아샤르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복을 주다'<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어원을 가집니다. 이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뜻합니다. 즉,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흘러 내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일도 바로 <바라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바라크>)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28)

반면, ‘복 있는 사람’<아샤르>는 ‘똑바로 가다’, ‘길을 걷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로, 흔히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에 사용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해진 길을 곧게 걷는 자가 누리는 내면적인 행복과 삶의 형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라크>라면,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말씀의 길을 걸으며 누리는 상태가 <아샤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아샤르>)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시편 1:1-2)

구속사적 진리 : 복의 근원이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를 거부하게 했고(<바라크> 상실),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사망의 길로 치닫게(<아샤르> 상실) 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26)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끊어졌던 하나님의 복(<바라크>)을 우리에게 다시 연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친히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아샤르>) 자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당신은 지금 어떤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의 복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이 주시는 '복을 주다'<바라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권
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십
니다.

또한 당신의 삶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아샤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입니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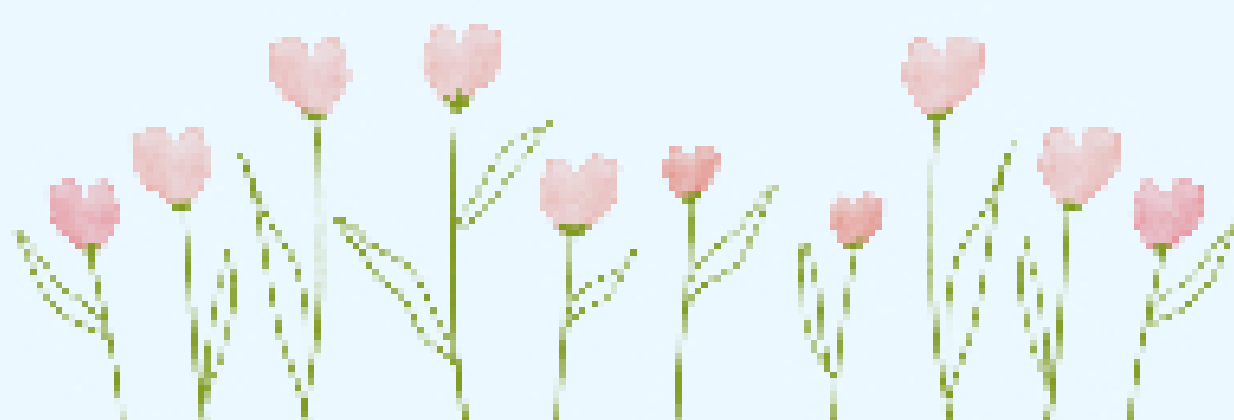
경배의 자세: 오늘 아침 기도의 자리에서 잠시
무릎을 꿇고 "주님, 주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복을 주다'<바라크>)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의탁하십시오.

말씀의 행보: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할 일들 중에

서 '악인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정직한 길('복 있는 사람'<아샤르>)을 선택하
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제31장
생명을 걸고 듣는 경청과
들은 대로 살아내는 순종 :
<췌마>와 <아사>



제31장 생명을 걸고 듣는 경청과 들은 대로 살 아내는 순종 : <쉐마>와 <아사>

듣는 신앙과 행하는 제자도

성경은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단순히 귀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전 존재로 하나님의 통치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청입니다. 히브리어 '들으라' <쉐마>와 '행하는' <아사>를 통해 들음과 행함이 어떻게 생명의 하나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쉐마와 아사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들으라' <쉐마>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가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실행하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에 이미 순종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인 "쉐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

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지엄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4-5)

여기에 짝을 이루는 ‘행하는’<아사>는 ‘행하다’, ‘만들다’,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들은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면, ‘들으라’<쉐마>는 그 씨앗을 마음 밭에 받는 것이고, ‘행하는’<아사>는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제대로 들었다면(<쉐마>) 반드시 행하게(<아사>)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24)

구속사적 진리 : 온전한 경청과 순종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는 우리의 귀를 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고, 우리의 발을 굽게 하여 불순종의 길로 치닫게 했습니다. 이 닫힌 귀를 여시고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 몸소 보이시기 위해 최고의 순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완벽하게 귀를 기울이신 분이셨고, 그 들은 말씀대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행하는' <아사> 하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철저한 <쉐마>와 <아사>의 결정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정보로 듣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생명으로 듣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당신의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순종 없는 경청은 자기 기만입니다.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오늘 내 삶에서 순종으로 옮길 때, 그 말씀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음성을 달게 듣고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제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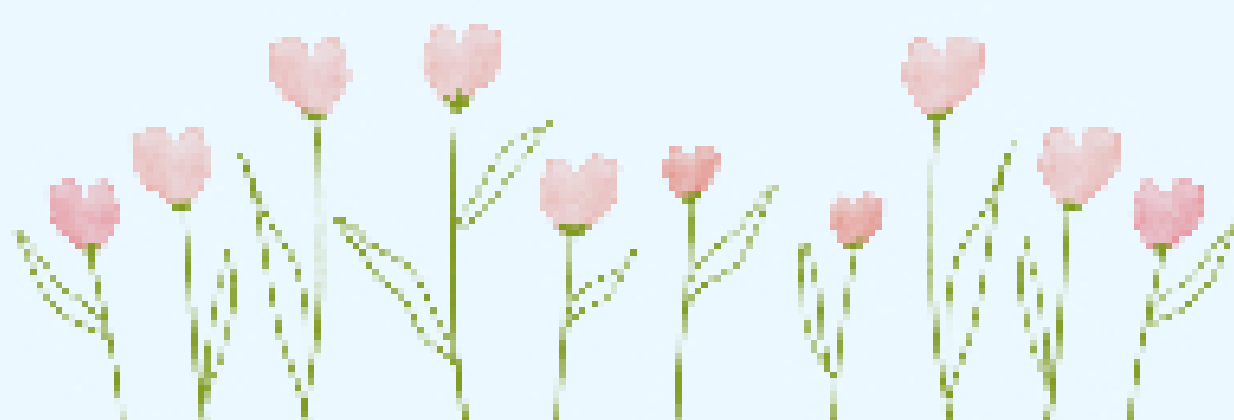
삶의 적용

침묵의 경청: 오늘 하루 중 10분간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성경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들으라' <쉐마>)에 집중하십시오.

즉각적 실행: 오늘 아침에 깨달은 말씀이나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다면, 계산하지 말고 오늘이 지나기 전에 한 가지만 즉시 행동('행하는' <아사>)으로 옮기십시오.



제32장
바위처럼 견고한 신뢰와
수동적으로 내맡기는 의탁:
<아만>과 <바타흐>



제32장 바위처럼 견고한 신뢰와 수동적으로 내맡기는 의탁: <아만>과 <바타흐>

믿음의 견고함과 평안한 안식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태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견고함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몸을 던지는 것 같은 전적인 의탁입니다. 히브리어 '믿으니' <아만>과 '의뢰하는' <바타흐>를 통해 진정한 믿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만과 바타흐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믿으니' <아만>은 '확실하다', '견고하다', '지지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하는 '아멘'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임을 믿고, 그 위에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굳게 세우는 능동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아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6)

반면, ‘의뢰하는’<바타흐>는 ‘의지하다’, ‘신뢰하다’는 뜻이지만, 그 뉘앙스는 훨씬 더 수동적이고 전적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자신의 모든 무게를 땅에 맡기는 모습, 혹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돌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아무런 걱정 없이 안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붙잡는 능동적 신뢰가 <아만>이라면, 나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전적 의탁이 <바타흐>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바타흐>)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편 125:1)

구속사적 진리 : 믿음의 대상이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렸고,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방황하게 되었습

니다. 이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벽한 <아만>과 <바타흐>를 보여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믿으셨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전적으로 의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불확실한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내 인생 전체를 던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요동치 않는 영원한 기초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내 확신을 키우는 심리적 훈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아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폭풍우처럼 몰아쳐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십시오.

또한 당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다 지쳤다면 이제는 '의뢰하는' <바타흐> 하십시오. 모든 염려와 짐을 주님의 발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진정한 평안은 내가 상황을 통제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할 때 찾아옵니다. 견고한 신뢰(<아만>)와 전적인 의탁(<바타흐>)이 만날 때,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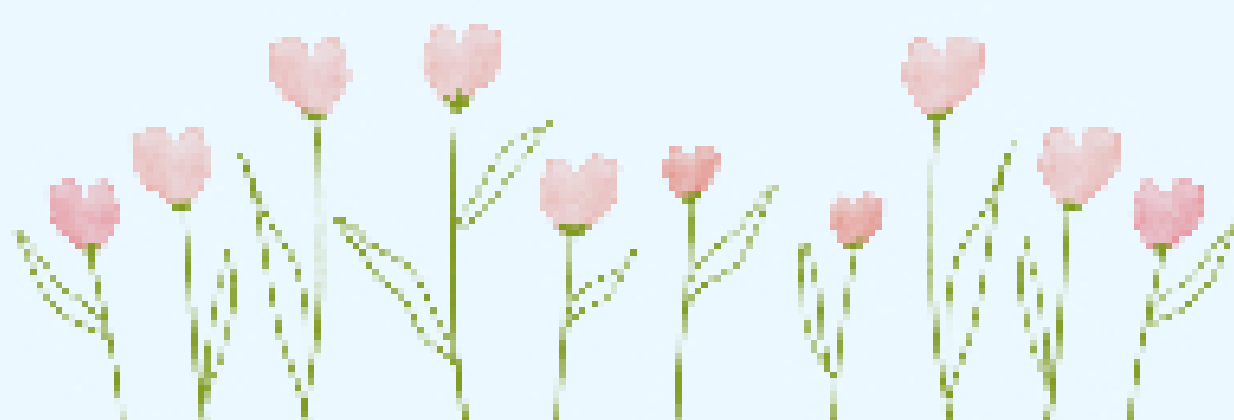
약속 붙들기: 오늘 나를 불안하게 하는 문제 하나를 떠올리고, 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 약속 한 구절을 찾아 "이 말씀은 견고하다('믿으니' <아만>)"라고 선포하십시오.

짐 내려놓기: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주님께 나의 모든 염려를 말로 다 고백하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잠들 듯 주님께 내 삶을 완전

히 던지는(’의뢰하는’<바타흐>) 기도를 드리십시오.



제33장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
<피스티스>와 <엘피스>



제33장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 : <피스티스>와 <엘피스>

믿음의 도약과 소망의 인내

신약 성경은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믿음과 소망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영적인 확신입니다. 헬라어 '믿음' <피스티스>와 '소망' <엘피스>를 통해 보이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걷는 성도의 능력을 묵상합니다.

피스티스와 엘피스의 심층 분석

헬라어 '믿음' <피스티스>는 '믿음', '신뢰', '확신'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거는 '충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붙잡는 영적인 손입니다.

“믿음은(<피스티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

여기에 짝을 이루는 ‘소망’<엘피스>는 ‘소망’, ‘
기대’를 뜻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바람
(wish)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미래를 확신하며 기다리는 태
도입니다. <피스티스>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을 신뢰하는 ‘수직적인 확신’이라면, <엘피스>
는 그 신뢰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수
평적인 인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이 있는 자만이 오늘
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엘피스>)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
면 참음으로 기다릴찌니라” (로마서 8:24-25)

구속사적 진리 : 믿음과 소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앗아갔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절망의 늪에 믿음의 대상이며 산 소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음' <피스티스>의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다시 오실 영광의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 <엘피스>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담대히 살아갑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부활은 우리 소망의 마침표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 배를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믿음' <피스티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실력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

이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세상의 헛된 소망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망은 아침 안개와 같으나, 주님이 주시는 '소망'<엘피스>은 영원합니다. 소망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미소 짓게 하며,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영적인 근력입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소망이 뜨거워져서, 어떤 거친 풍랑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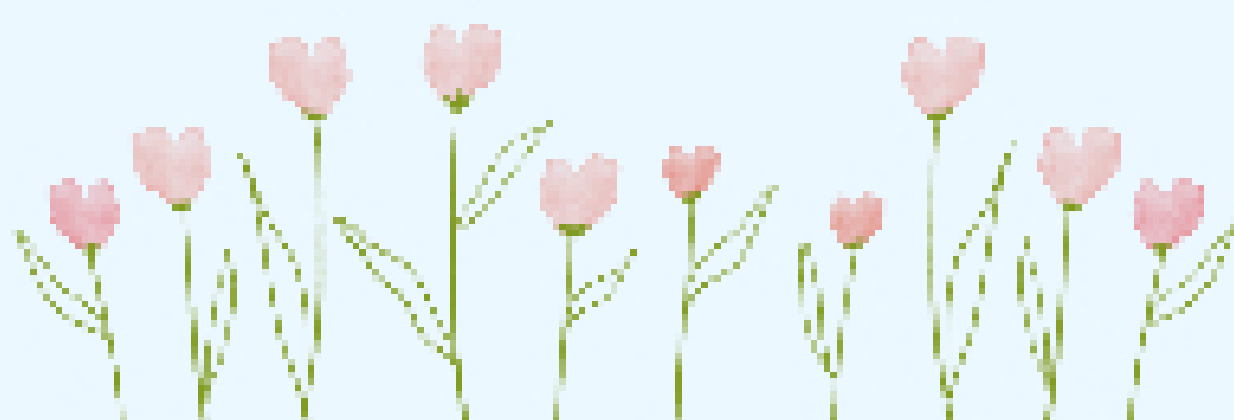
믿음의 선포: 오늘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피스티스>을 입술로 크게 선포하십시오.

소망의 목록: 장차 주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엘피스>의 제목들을 3가지만 적어보고, 그것이 주는 위로를 묵상하십시오.



제34장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억과
은혜를 망각하는 연약함 :
<자가르>와 <샤카흐>



제34장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억과 은혜를 망각하는 연약함 : <자가르>와 <샤카흐>

잊지 않으시는 사랑과 잊어버리는 연약함

우리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종종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반복하여 선포합니다. 히브리어 '기억하사' <자가르>와 '잊어버리다' <샤카흐>의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기억이 우리 인생에 어떤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가르와 샤카흐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기억하사' <자가르>는 단순히 과거의 일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지적인 회상을 넘어, '기억한 바를 바탕으로 구속사적인 행동을 취하다'라는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자가르> 하셨다는

것은, 곧 그를 돕고 구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기억하사(<자가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창세기 8:1)

반면, '잊어버리다'<샤카흐>는 '잊어버리다', '망각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홍수의 기적을 보고도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다'<샤카흐>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의 망각보다 강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변덕을 덮고도 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찌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

할 것이라” (이사야 49:15)

구속사적 진리 : 우리를 기억하시려 손바닥에
새기신 주님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처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 끊어진 기억을 잇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를 기억하시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하
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16)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
에 영원히 새기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상
처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피
뎀은 서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
를 기억하소서”라고 부르짖던 강도의 요청에
즉각 응답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사' <자가르>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당신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잊어도, 당신을 만드신 분은 당신의 이름과 형편을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 두셨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다' <샤카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나오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매 순간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기억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자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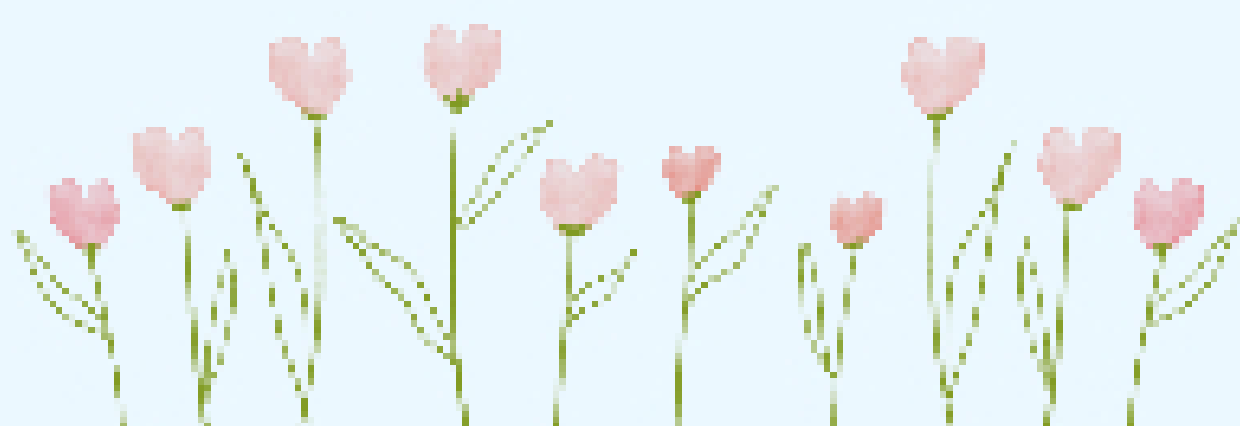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은혜의 일기: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작은 은혜 3가지를 수첩에 기록하며 망각('잊어버리다' <샤카흐>)의 유혹을 이기십시오.

확신의 선포: 외로움이 찾아올 때 손바닥을 펴서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기억하사' <자가르>)"라고 크게 고백하십시오.



제35장

경험을 통해 깊이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 :
<야다>와 <사칼>



제35장 경험을 통해 깊이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 : <야다>와 <사칼>

친밀한 관계와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은 만남을 통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그 앎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합니다. 히브리어 '알자'<야다>와 '지각'<사칼>을 통해 참된 지식과 지혜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다와 사칼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알자'<야다>는 '알다'로 번역되지만, 이는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을 넘어 '경험을 통해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은 깊은 인격적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자'<야다>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직접 맛보고 체험하는 사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야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호세아 6:3)

한편, ‘지각’<사칼>은 ‘지혜롭다’, ‘통찰력이 있다’, ‘성공하다’는 뜻으로,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신중하게 행동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알자’<야다>)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별하는 지혜(‘지각’<사칼>)를 얻게 됩니다. 지식은 주님과와의 사귄에서 오고, 지혜는 그 사귄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해석할 때 완성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사칼>)이 있는 자니” (시편 111:10)

구속사적 진리 : 하나님을 아는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사귄('알자'<아다>)을 끊어버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기노스코>) 것이니 이다" (요한복음 17:3)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벽한 계시이십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지각'<사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은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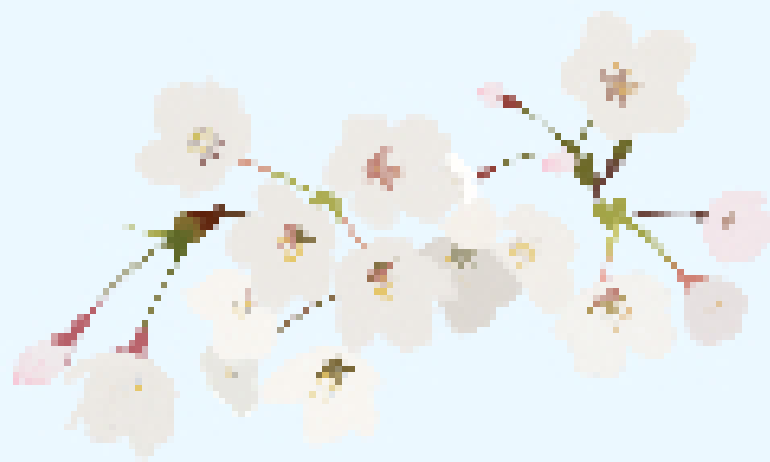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아는 사람입니까? 교리는 알지만 주님과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메마른 지식일 뿐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서 당신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십시오('알자' <야다>).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당신의 인생에는 하늘의 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또한 명철함('지각' <사칼>)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복잡한 문제 앞에서 내 경험으로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공의 길을 찾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당신의 힘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당신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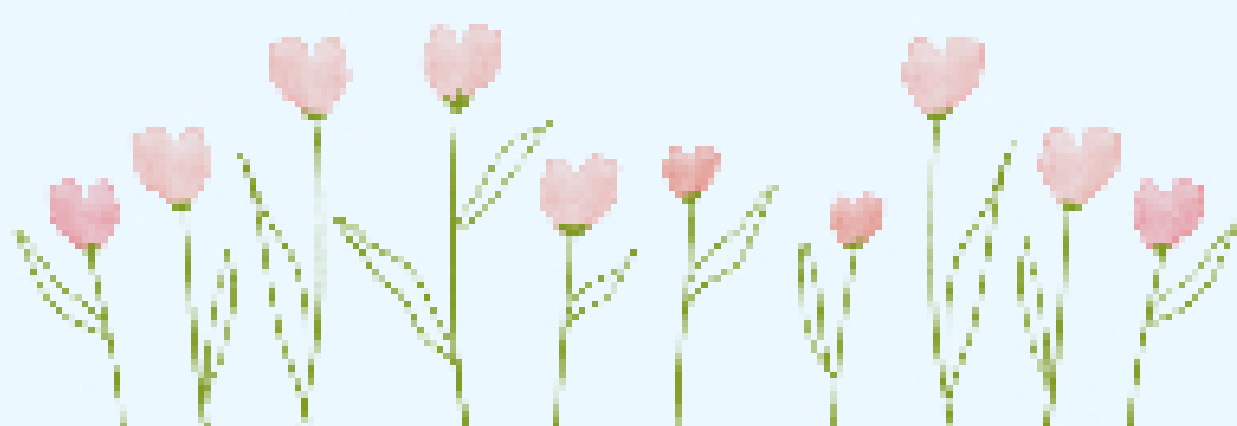
삶의 적용

친밀한 사귄: 오늘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주님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인격적인 대화('알자'<야다>)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혜의 선택: 오늘 내려야 할 결정들 앞에서 내 이익이 아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며 하나님의 명철('지각'<사칼>)을 선택하십시오.



제36장
지식의 초등 학문을 넘어
영적인 깊이로 나아가는 완전한 앎 :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



제36장 지식의 초등 학문을 넘어 영적인 깊이로 나아가는 완전한 앎 :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

지식의 확장과 영적 성숙

우리는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얕은 지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한 깊이까지 나아가길 촉구합니다. 헬라어 '지식'<그노시스>와 '앎'<에피그노시스>를 통해 우리 영혼이 도달해야 할 완전한 지식의 세계를 탐구합니다.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의 심층 분석

헬라어 '지식'<그노시스>는 일반적인 '지식' 혹은 '이해'를 뜻합니다. 이는 사물이나 진리에 대해 배우고 깨닫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지식은(<그노시스>)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8:1)

반면, '앎' <에피그노시스>는 '위에(epi)'와 '지식(gnosis)'이 합쳐진 단어로, '철저한 지식', '완전한 앎', '체험적 확신'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그 진리가 내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 일체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이 <에피그노시스>의 단계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식' <그노시스>가 진리의 씨앗을 아는 것이라면, '앎' <에피그노시스>는 그 진리가 내 삶에서 꽃피우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에피그노시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2)

구속사적 진리 : 모든 지식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는 우리의 총명을 가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을 파괴했습니다. 인간은 헛된 철학과 초등 학문에 매여 참된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무지의 흑암을 뚫고 모든 지식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그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통로이십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앎'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초등 학문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드러낸 지혜의 현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영적인 지식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신앙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 <그노시스>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지식이 당신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

식이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당신의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앎' <에피그노시스>가 되게 하십시오.

진리에 잠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이 당신의 삶을 해석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수록 세상의 유혹은 작아 보이고 하늘의 영광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귄 속에서만 완성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당신의 삶에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삶의 적용

지식의 내면화: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 내 삶의 어떤 문제에 해답을 주는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의 결과를 경험해 보는 '앎' <에피그노시스>의 과정을 실천하십시오.

교만 버리기: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아가야 할 어린아이와 같다”고 고백하며 겸손
히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십시오.

제 4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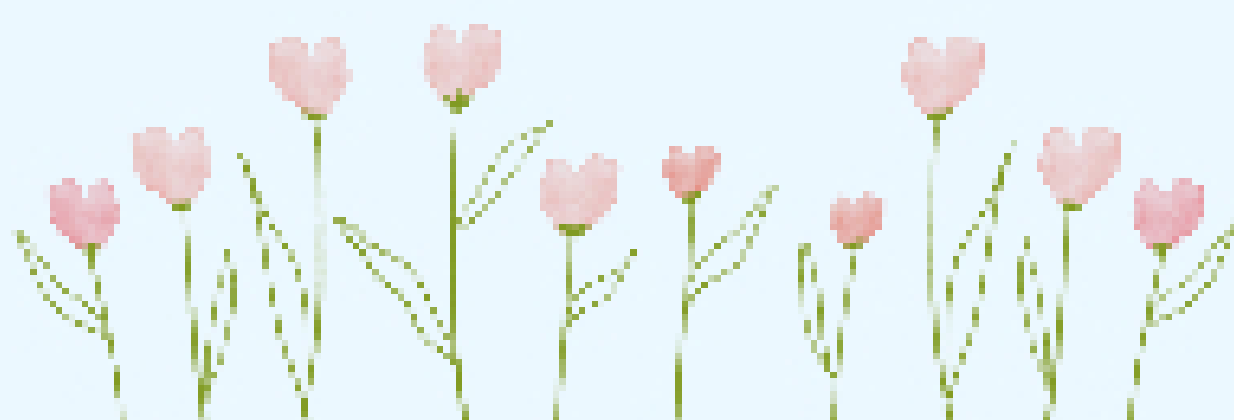
성품과 제자도 - 어떻게 살 것인가





제37장

자격 없는 자에게 부여되는 은혜와
그 결과로 주어진 은사:
<카리스>와 <카리스마>



제37장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그 결과로 주어진 은사: <카리스>와 <카리스마>

은혜의 깊이와 선물의 목적

신앙생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헬라어 '은혜'<카리스>와 '은사'<카리스마>를 통해 은혜와 은사의 신비로운 관계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카리스와 카리스마의 심층 분석

헬라어 '은혜'<카리스>는 '은혜'로 번역되며,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호의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이는 조건 없는 선물이며,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순수한 호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뿌리는 바로 이 <카리스>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카리스>)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8)

반면, ‘은사’<카리스마>는 ‘은혜의 구체적인 결과물’ 혹은 ‘은사’를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카리스>)를 입은 자들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카리스마>는 개인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신 도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카리스>)를 받은 자인 동시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한 선물(<카리스마>)을 소유한 자입니다.

“은사는(<카리스마>)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고린도 전서 12:4-5)

구속사적 진리 : 은혜의 본체이시며 은사를 주

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는 인류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었고, 우리는 은혜를 구할 자격조차 상실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우리에게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빛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이 치르신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카리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카리스마>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무력한 자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오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카리스>)임을 고백하십니까? 내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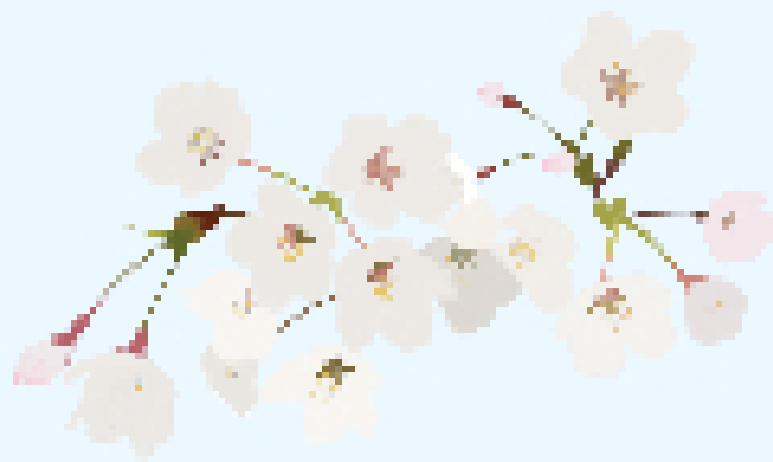
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당신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당신의 삶은 감사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사(<카리스마>)를 발견하고 발전시키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단순히 구원만 하시려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재능과 성품, 그리고 삶의 환경까지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도구입니다. 은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은사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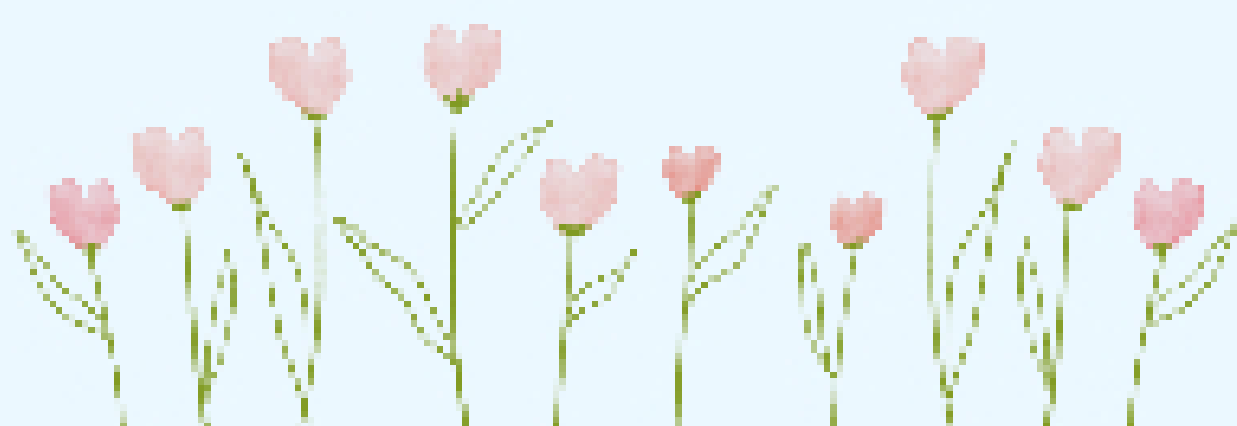
은혜의 수용: 오늘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은혜'<카리스>로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은사의 발견: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거나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찾아, 오늘 하
루 그것을 누군가를 돕거나 섬기는 일('은사'<
카리스마>)에 사용해 보십시오.



제38장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낸
죄인과의 영광스러운 화목 :
<디카이오쉬네>와 <카타라게>



제38장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낸 죄인과 의 영광스러운 화목 : <디카이오쉬네>와 <카 타라게>

공의와 사랑의 입맞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여 건져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헬라어 '의'<디카이오쉬네>와 '화목'<카타라게>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죄인과의 화복을 이루어냈는지 그 웅장한 구원의 드라마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디카이오쉬네와 카타라게의 심층 분석

헬라어 '의'<디카이오쉬네>는 '의', '공의'로 번역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굽음이 없고 완벽하게 곧다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정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엄중한 성격을 지닙니다.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디카이오쉬네>)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26)

반면, '화목'<카타라게>는 '화목', '화해'를 뜻합니다. 이는 원수 되었던 관계가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디카이오쉬네>)를 만족시키고 다시 그분과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죄를 심판함과 동시에, 그 심판을 스스로 담당하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거룩한 화해(<카타라게>)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카타라게>)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11)

구속사적 진리 : 의를 완성하시고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 되게 했습니다. 이 막힌 담을 허물고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디카이오쉬네>)는 만족되었고, 그 공로를 믿는 우리에게 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교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카타라게>)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채찍이 자기 아들에게 내리침으로, 죄인에게는 평화의 입맞춤이 주어지는 장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화목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존재입니까? 나의 행위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디카이오쉬네>)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정죄함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십니다.

또한 당신은 이제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미움이 있는 곳에 복음의 화해(<카타라게>)를 선포하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화목의 기쁨을 세상에 전파하는 거룩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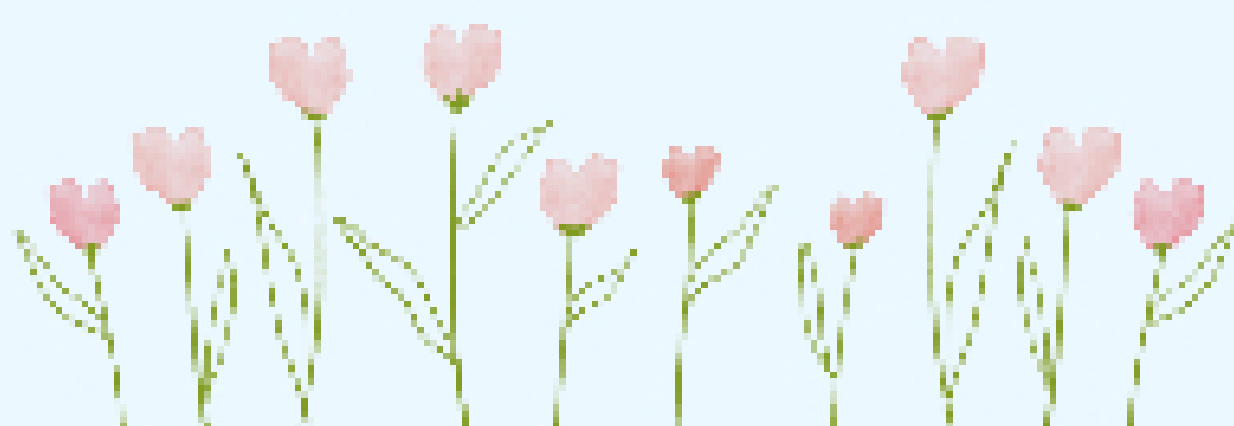
삶의 적용

의의 옷 입기: 정죄감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의 완벽한 '의' <디카이오쉬네>를 입혀 주셨다"고 3번 선포하며 어깨를 펴십시오.

화해의 편지: 오늘 내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미안하다"거나 "화해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냄으로 하나님의 '화목' <카타라게>를 실천하십시오.



제39장
가난한 자의 겸비함이 길들여진
야생마 같은 온유함이 됨 :
<아나우>와 <프라위스>



제39장 가난한 자의 겸비함이 길들여진 야생 마 같은 온유함이 됨 : <아나우>와 <프라위스>

낮아짐의 영성과 다스려진 능력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며, 땅은 온유한 자가 기업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온유는 단순히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아래 철저히 훈련된 강력한 성품입니다. 히브리어 '온유한 자' <아나우>와 헬라어 '온유하고' <프라위스>를 통해 성도가 지녀야 할 내면의 아름다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나우와 프라위스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온유한 자' <아나우>는 '가난하다', '낮아지다', '고통당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을 넘어, 인생의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낮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노래했던 겸비한 자들의 태도가 바로 이 <아나우>입니다.

“온유한 자는(<아나우>)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시편 37:11)

반면, 헬라어 ‘온유하고’<프라위스>는 ‘온유’로
번역되는데, 그 어원은 ‘길들여진 야생마’를 뜻
합니다. 이는 힘이 없어서 고분고분한 것이 아
니라,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지휘 아래 그 힘을 완벽하게 통제하
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온유는 ‘길들여
진 능력’입니다. 고난을 통해 낮아진 <아나우>
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나타
나는 성품이 바로 <프라위스>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프라위스>)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
음이 심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29)

구속사적 진리 : 온유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
리스도

죄는 인간을 교만하게 하여 스스로 주인이 되

게 만들었고, 그 통제되지 않는 욕망은 세상을 파괴했습니다. 이 거친 인간의 본성을 치료하고 참된 온유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멸하실 능력이 있으셨으나,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통제하신 지고의 온유(<프라위스>)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인 <아나우>의 자리에 두심으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복음은 교만으로 일그러진 우리 성품을 주님의 온유함으로 재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뽐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겸비한 자('온유한 자'<아나우>)입니다. 인생의 고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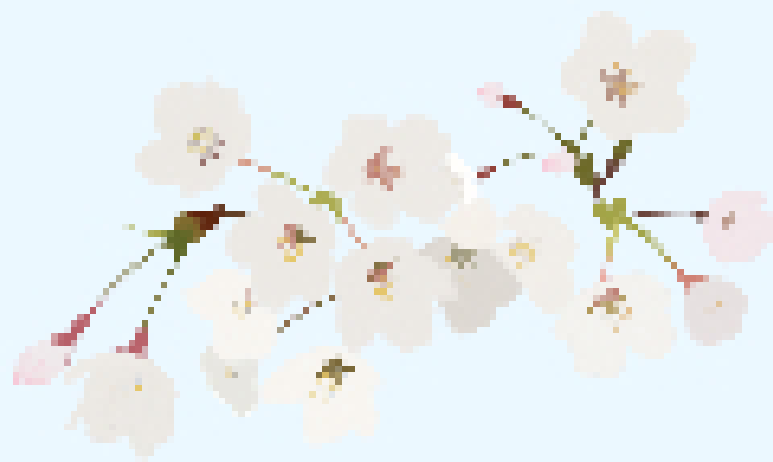
이 당신을 낮춘다면 그것을 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 머무는 때입니다.

또한 당신의 성격과 재능을 주님의 말씀 아래 길들이십시오('온유하고' <프라위스>). 거친 감정과 날 선 언어를 성령의 다스림 아래 두십시오. 온유함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부드러움입니다. 화를 내야 할 때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니기에 멈추는 것이 온유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힘차게 달려가고 멈추라 하시는 곳에 즉시 멈추는 거룩한 온유함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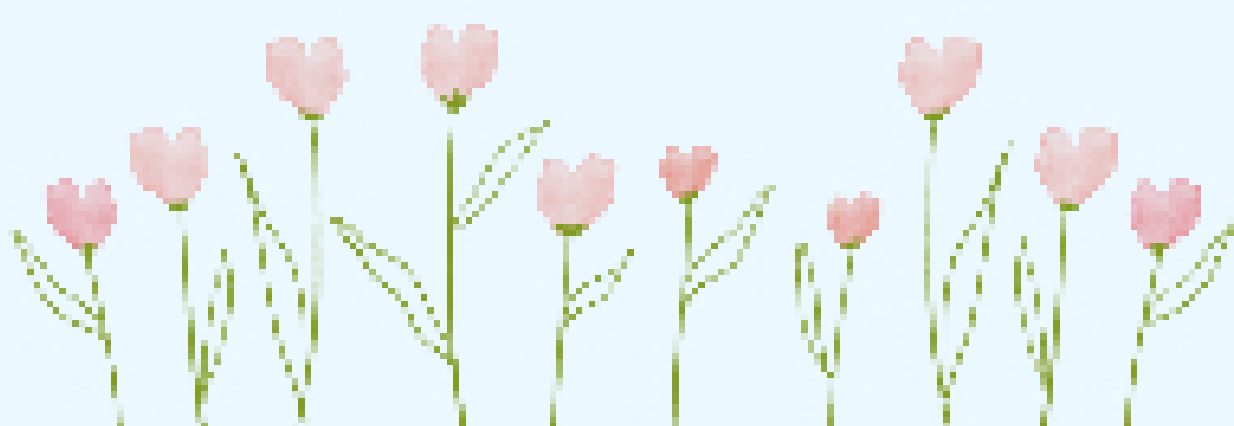
낮아짐의 고백: 오늘 내가 잘한 일에 대해 칭찬받을 때,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겸손히 고백('온유한 자' <아나우>)하십시오.

혈기 다스리기: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길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주님, 제 마음의 고삐를 잡아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부드럽게 대답하는 '온유하고' <프라워스>를 연습하십시오.



제40장

고난 아래서의 견고한 인내와
사람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
<휘포모네>와 <마크로뒤미아>



제40장 고난 아래서의 견고한 인내와 사람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 <휘포모네>와 <마크로뒤미아>

인내의 두 차원: 상황과 사람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완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헬라어 '인내를' <휘포모네>와 '오래 참고' <마크로뒤미아>를 통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인 인내의 깊이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휘포모네와 마크로뒤미아의 심층 분석

헬라어 '인내를' <휘포모네>는 '아래에(hypo)'와 '머물다(menein)'가 합쳐진 단어로, 무거운 짐이나 어려운 환경 아래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상황에 대한 인내'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 소망을 품고 끝까지 버티는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휘포모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로마서 5:3-4)

반면, ‘오래 참고’<마크로뒤미아>는 ‘길다(makros)’와 ‘분노(thymos)’가 합쳐진 단어로,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향해 즉시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참아 주는 ‘사람에 대한 인내’를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오래 참으심’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상황을 견디는 것이 <휘포모네>라면,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마크로뒤미아>입니다. 성도는 모진 환경 속에서도 견고하며, 까다로운 이웃 앞에서도 끝까지 기다려 주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마크로뒤미아>)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4)

구속사적 진리 : 인내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

도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작은 고난에도 쉽게 원망하게 했고, 타인의 허물을 조금도 참지 못하는 조금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깨어진 성품을 치료하고 인내의 정석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통의 환경 아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는 <휘포모네>를 보이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끝까지 용납하시는 <마크로뒤미아>를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긴 참으심이 빚어낸 구원의 열매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고난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까? 주저앉지 말고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 머무십시오('인내를'<휘포 모네>). 주님이 함께 지고 계십니다. 인내는 당신을 정금같이 연단하여 소망의 항구로 인도 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힘든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 습니까? 주님이 당신을 향해 보여주신 그 기나 긴 참으심('오래 참고'<마크로뒤미아>)을 기억 하십시오. 사랑은 결국 견디는 것입니다. 내 힘 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 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향해 넉 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 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인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 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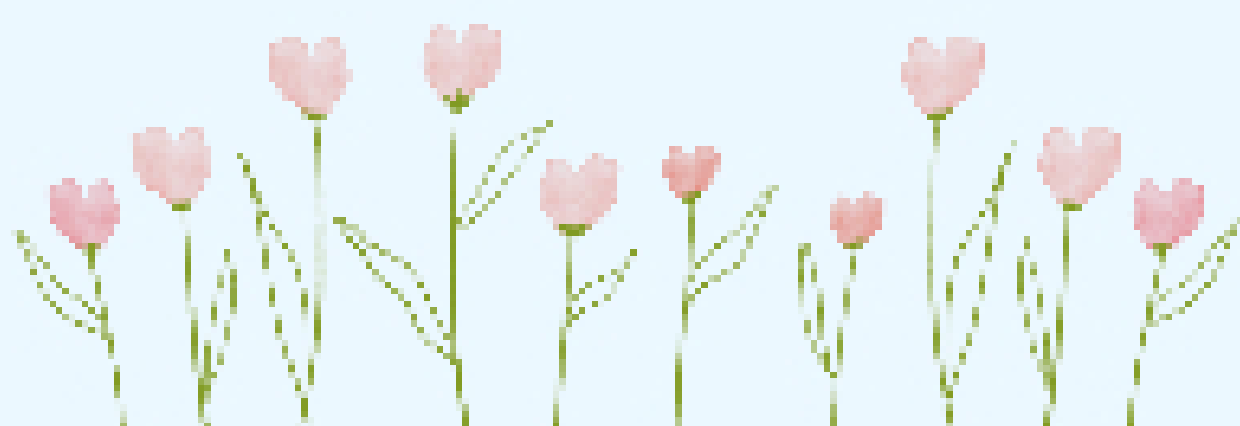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포기하지 않기: 오늘 그만두고 싶은 환경이나 관계가 있다면, "주님이 아래서 받쳐주고 계신 다"고 믿으며 오늘 하루만 더 자리를 지키는 '인내를'<휘포모네>를 발휘하십시오.

한 번 더 참기: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향해, 입술을 깨물고 한 번 더 부드럽게 웃어주는 '오래 참고'<마크로뒤미아>를 보여주십시오.



제41장

모든 일을 멈추는 거룩한 중단과
안전한 곳에 머무는 영혼의 안착:
<샤바트>와 <누아크>



제41장 모든 일을 멈추는 거룩한 중단과 안전한 곳에 머무는 영혼의 안착 : <샤바트>와 <누아크>

안식의 두 차원: 정지와 평안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잠을 자거나 쉬는 생물학적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영적 행위입니다. 히브리어 '안식하시니라' <샤바트>와 '평안함으로' <누아크>를 통해 우리 영혼이 누려야 할 참된 쉼의 본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샤바트와 누아크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안식하시니라' <샤바트>는 '멈추다', '중단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내 힘과 계획으로 인생을 경영하려던 모든 시도를 멈추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손을 놓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중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샤바트>)” (창세기 2:2)

반면, '평안함으로' <누아크>는 '머물다', '안심하다', '정착하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돌던 인생이 비로소 가장 안전한 포구인 하나님의 품에 내려앉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샤바트>라면, 그 결과로 하나님 안에서 요동치 않는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누아크>입니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누아흐>) 돌아갈찌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시편 116:7)

구속사적 진리 :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

리스도

죄는 인류에게서 안식을 뺏어갔고, 우리는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고단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쉼을 주시기 위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 애쓰던 모든 율법적 수고를 끝내셨습니다(<사바트>). 이제 우리는 주님의 완벽한 공로 위에 우리 영혼의 닳을 내리고 안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누아크>). 주님의 부활은 죽음의 공포마저 끝내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복음은 내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의 수고에 기대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영혼은 지금 쉬고 있

습니까? 바쁜 일상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다면, 지금 즉시 주님 앞에서 당신의 손을 놓으십시오. 안식은 내가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겸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당신의 모든 무게를 맡기십시오. 안식은 환경이 조용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풍랑 중에도 주님과 함께 배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영적 저항입니다.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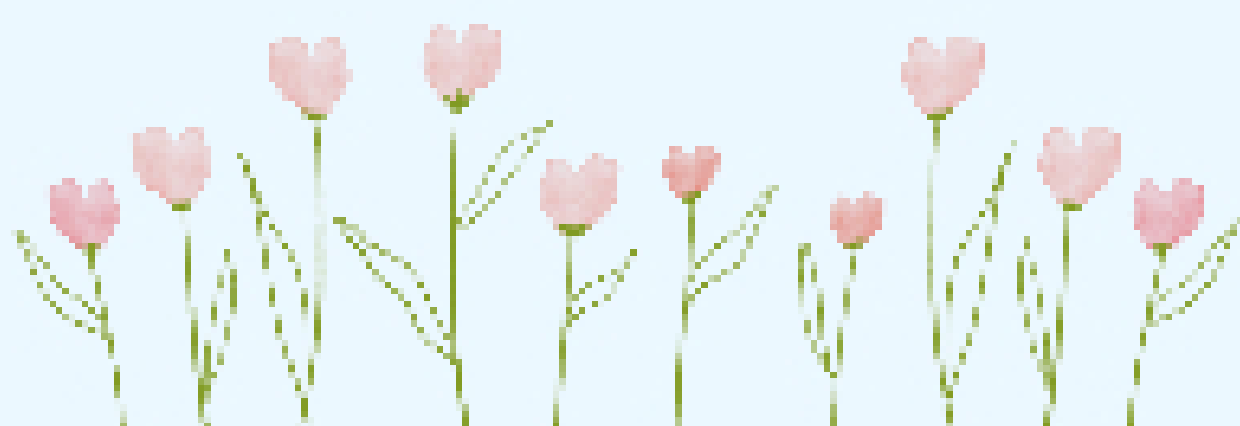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삶의 적용

거룩한 중단: 오늘 하루 중 15분간 모든 디지털 기기와 업무를 멈추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안식하시니라' <샤바트>를 실천하십시오.

평안의 복귀: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내 영혼
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가라"는 시편 116편 말
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품이라는 안전한 항구('
평안함으로'<누아크>)에 마음을 내리십시오.



제42장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
<하기오스>와 <나오스>



제42장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 <하기오스>와 <나오스>

존재의 정체성과 거처의 영광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헬라어 '거룩한' <하기오스>와 '성전인' <나오스>를 통해 성도가 이 땅에서 지켜내야 할 존귀한 가치와 거룩한 무게감을 묵상합니다.

하기오스와 나오스의 심층 분석

헬라어 '거룩한' <하기오스>는 '거룩한', '성도'를 뜻합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뜻보다 '하나님의 소유로 따로 떼어놓아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우리 행위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하기오스>)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15)

여기에 연결되는 ‘성전인’<나오스>는 ‘성전’을 뜻하는데, 성전의 뜰이나 외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머무는 ‘지성소’ 혹은 ‘내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몸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나오스>라고 선언합니다. 즉, 우리는 움직이는 지성소이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구별된 존재(‘거룩한’<하기오스>)인 우리가 모일 때, 그곳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나오스>가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나오스>)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16)

구속사적 진리 :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죄로 인해 부정한 존재가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파괴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깨어진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혈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덮고 있던 죄의 오물을 씻어내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셨고,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인' <나오스>로 빚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부정한 우리를 거룩한 성도('거룩한' <하기오스>)로 신분을 변화시킨 영적 세탁소이며, 우리 몸을 하나님의 보좌로 만든 기적의 현장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구별된 보물('거룩한' <하기오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평가하

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우주의 창조주가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관리하십시오. '성전인' <나오스>에는 부정한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의 눈이 보는 것, 당신의 귀가 듣는 것, 당신의 입술이 발하는 말이 하나님의 거처에 합당한지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거룩은 고립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과 다른 향기를 내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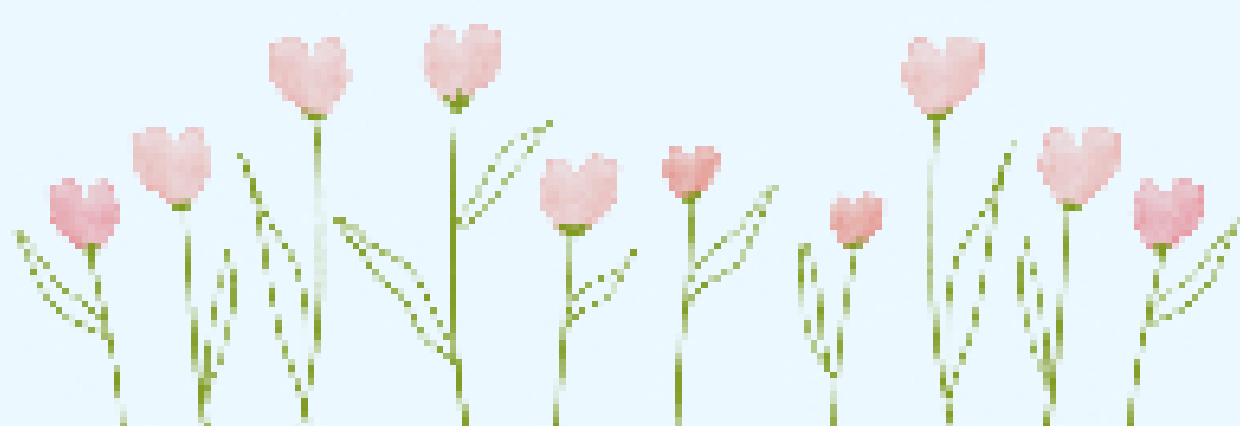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성전 정화: 내 마음의 '성전인' <나오스>를 더럽히고 있는 미움, 시기, 음란의 찌끼들을 오늘 보혈의 기도로 깨끗이 씻어내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도의 품격: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

거룩한<하기오스>)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평소보다 더 정중하고 선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제43장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와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자:
<말라크>와 <나비>



제43장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와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자: <말아크>와 <나비>

소명의 신비와 대언의 책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 특별한 통로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영물인 '사자가'<말아크>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외치는 '선지자로'<나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시며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아크와 나비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사자가'<말아크>는 '사자', '사신'이라는 뜻으로, 흔히 '천사'로 번역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늘의 소식을 땅으로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말아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메시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

때로는 사람 사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의 사자가(<말아크>)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창세기 22:11)

한편, ‘선지자로’<나비>는 ‘선지자’를 뜻하며, ‘거품이 일다’, ‘쏟아내다’라는 어원을 가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분의 뜨거운 마음과 말씀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쏟아내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자가’<말아크>가 소식을 전달하는 ‘우편배달부’라면, ‘선지자로’<나비>는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그분의 눈물과 진노, 사랑을 삶으로 외치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자와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나비>) 세웠노라” (예레미야 1:5)

구속사적 진리 : 최고의 사자이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닫힌 소통의 통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최고의 '사자' <말아크>가 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대언하신 위대한 '선지자' <나비>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심장박동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온 우주 앞에 쏟아낸 선지자적 선포였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입술과 삶을 통해 어떤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소문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신실한 '사자' <말아크>가 되십시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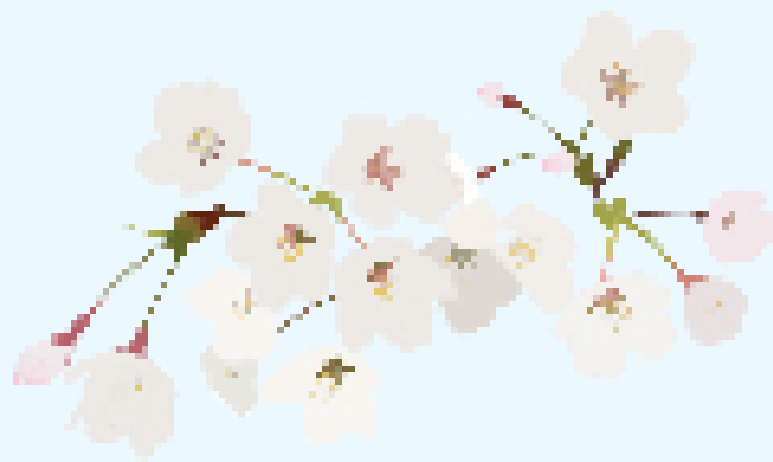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아픔과 눈물을 공감하며 진리를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선지자' <나비>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자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장박동을 느끼고 그 뜨거운 사랑을 이웃에게 쏟아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대언할 때 메마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

메신저 훈련: 오늘 내가 전하는 말들이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부정적인 소식인지, 주님의 소망을 담은 하늘의 소식('사자' <말아크>)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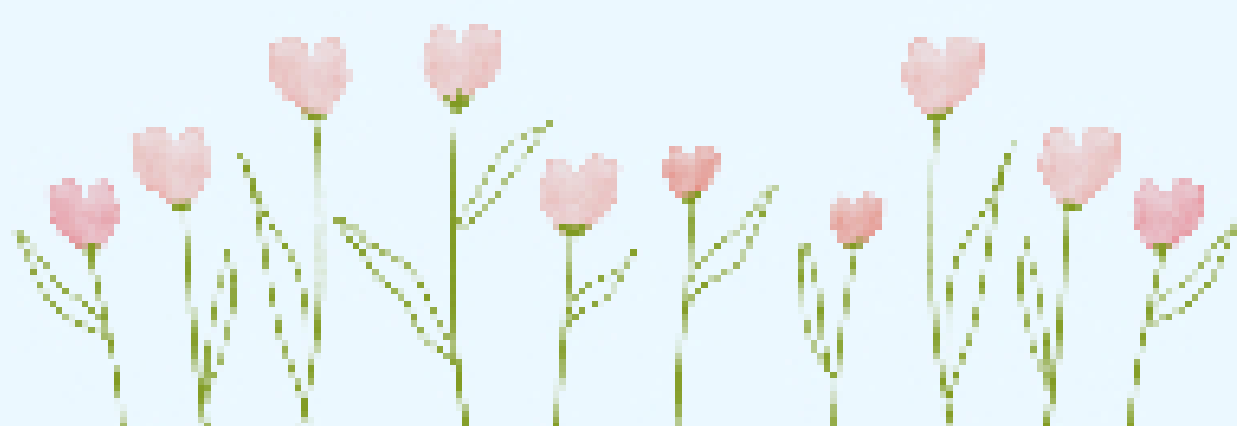
점검하고 긍정적인 복음을 전하십시오.

중보의 대언: 고통받는 이웃이나 나라의 상황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 그 마음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쏟아내는 '대언'<나비>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제44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봉사와
주님의 주권에 매인 종 :
<디아코니아>와 <둘로스>



제44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봉사와 주님의 주권에 매인 종 : <디아코니아>와 <둘로스>

섬김의 미학과 소속의 영광

세상은 높은 자리에 앉아 다스리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지만, 천국은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를 위대하다 말합니다. 헬라어 '직분이' <디아코니아>와 '종' <둘로스>를 통해 성도가 지녀야 할 참된 제자도와 섬김의 자세를 묵상합니다.

디아코니아와 둘로스의 심층 분석

헬라어 '직분이' <디아코니아>는 '봉사', '직분', '섬김'을 뜻합니다. 그 어원은 '먼지를 뚫고 달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식탁에서 시종드는 종처럼 주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신속하고 겸손하게 움직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직분은 군림하는 계급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디아코니아>) 휘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고린도후서 6:3)

반면, '종' <둘로스>는 '종' 혹은 '노예'를 뜻합니다. 이는 자기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주인의 뜻에만 매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상에서 종은 비참한 신분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으로의 전이를 뜻합니다. <둘로스>가 주님과와의 '관계적 정체성'이라면, <디아코니아>는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실천적 사역'입니다. 주님의 종이기에 기꺼이 이웃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둘로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1)

구속사적 진리 :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죄로 인해 스스로 왕이 되려 했고, 타인을 억압하며 자기 욕망을 채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교만한 인류에게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옴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재이심에도 불구하고 '종' <둘로스>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친히 최고의 '봉사' <디아코니아>를 보이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섬김의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신 충격적인 사랑의 현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이어받았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섬김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께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대접받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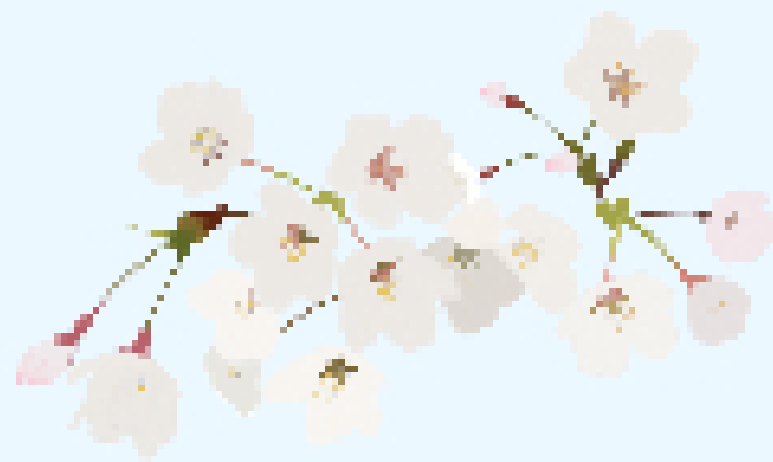
려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나는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십시오. 당신의 작은 '봉사'<디아코니아>를 통해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평판이나 물질의 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둘로스>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절대 순종의 미학을 배우십시오. 주님의 종으로 사는 자는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됩니다. 당신의 낮아짐이 하늘에서는 가장 높은 상급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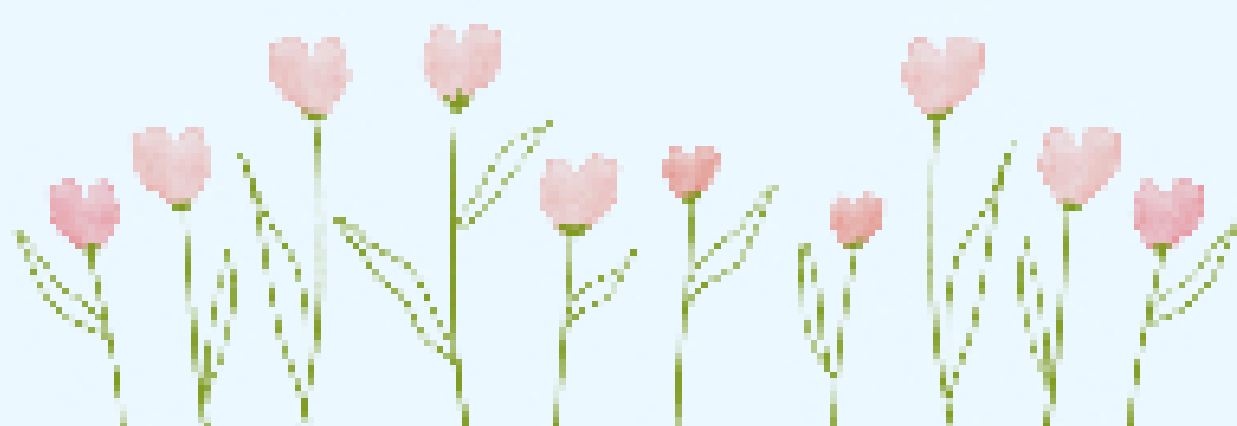
삶의 적용

식탁의 섬김: 오늘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청소나 뒷정리 같은 '봉사'<디아코니아>를 한 가지만 찾아 묵묵히 실천하십시오.

주권 양도: 오늘 결정해야 할 일들 앞에서 내
고집이 앞설 때, "나는 주님의 '종'<둘로스>입
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내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십시오.



제45장
생명을 건 증인의 고백과
선포되는 복음의 전령 :
<마르투리아>와 <케리그마>



제45장 생명을 건 증인의 고백과 선포되는 복음의 전령 : <마르투리아>와 <케리그마>

증언의 책임과 선포의 능력

복음은 감추어둘 수 없는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증인으로, 그리고 왕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부르셨습니다. 헬라어 '증거가' <마르투리아>와 '전파함은' <케리그마>을 통해 성도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묵상합니다.

마르투리아와 케리그마의 심층 분석

헬라어 '증거가' <마르투리아>는 '증언', '증거'를 뜻하며, 여기서 '순교자(martyr)'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진리를 목숨을 걸고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살아있는 <마르투리아>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마르투리아>) 너희 속에 견고케 되어” (고린도전서 1:6)

여기에 짝을 이루는 ‘전파함은’<케리그마>는 ‘선포’, ‘전파’를 뜻합니다. 이는 고대 국가에서 왕의 칙령을 백성들에게 공포하던 전령의 외침을 의미합니다. 전령은 자기 의견을 덧붙이지 않고 오직 왕이 주신 메시지만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 <케리그마>입니다. <마르투리아>가 성도의 ‘삶의 고백’이라면, <케리그마>는 그 고백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케리그마>)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로마서 16:25)

구속사적 진리 : 충성된 증인이시며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아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거짓된 세상에 하나님의 진실함을 증언하시고 하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죽기까지 성실하게 증언하신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친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시며 첫 번째 '전파'<케리그마>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복음의 내용이자 전파자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마르투리아>이며, 부활은 사망 권세가 무너졌다는 우주적인 '전파'<케리그마>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증인입니까? 증인은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변화된 인격과 삶의 방식이 곧 세상이 읽는 그리스도의 편지('증거'<마르투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만왕의 왕의 전령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위축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전파'<케리그마>). 메시지의 능력은 전파자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의 진실성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입술과 삶을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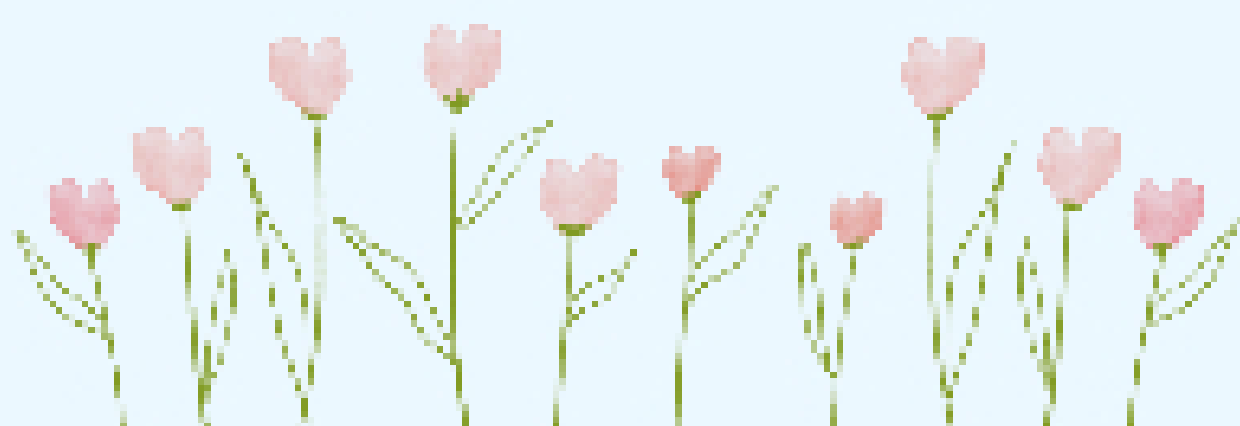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삶의 증언: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백 마디 말보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손해 보고 참아주는 행동 하나로 그리스도를 '증거'<마르투리아> 하십시오.

복음 선포: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혹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는 복음의 핵심('전파'<케리그마
>)을 용기 내어 전해 보십시오.



제46장
자신을 살피는 간구와
생명을 걸고 부딪히는 중보의 기도 :
<테필라>와 <파가>



제46장 자신을 살피는 간구와 생명을 걸고 부딪히는 중보의 기도 : <테필라>와 <파가>

기도의 두 기둥: 성찰과 도고

기도는 단순히 내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 수단
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뜻 앞에
세우는 정렬인 동시에, 무너진 세상을 위해 하
나님의 공해를 끌어당기는 치열한 영적 전투
입니다. 히브리어 '기도를'<테필라>와 '막아서
서'<파가>를 통해 기도의 참된 신비 속으로 들
어갑니다.

테필라와 파가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기도를'<테필라>는 '중재하다', '판단
하다'는 뜻의 '팔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기
도가 단순히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
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조정하는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즉,
참된 기도의 시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살피는

성찰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테필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39:12)

반면, ‘막아서서’<파가>는 ‘부딪히다’, ‘만나다’,
‘막아서다’는 역동적인 뜻을 가집니다. 이는 흔히
‘중보기도’로 번역되는데,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과 아군 사이의 갈라진 틈으로 달려가 몸
으로 부딪히며 막아서는 모습을 연상시킵니
다. 하나님과 범죄한 세상을 이어주기 위해 그
경계선에 생명을 걸고 서는 것이 바로 <파가>
입니다. 나를 살피는 기도가 <테필라>라면, 세
상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며 부딪히는
기도가 <파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에스겔
22:30)

구속사적 진리 :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죄로 인해 스스로를 온전케 할 수도('기도'<테필라>),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막아서서'<파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막힌 기도의 문을 여시기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온몸으로 부딪히셨습니다(<파가>). 그분은 범죄한 인류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갈라진 틈을 자신의 몸으로 메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나를 살피고 세상을 구하는 기도의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먼저 기도의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 무너진 가정과 사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자가 되십시오.

중보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갈라진 틈에 서서 눈물로 '중보' <파가>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고 긍휼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당신의 인생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가십시오.

삶의 적용

기도의 거울: 오늘 기도할 때 내 요구 목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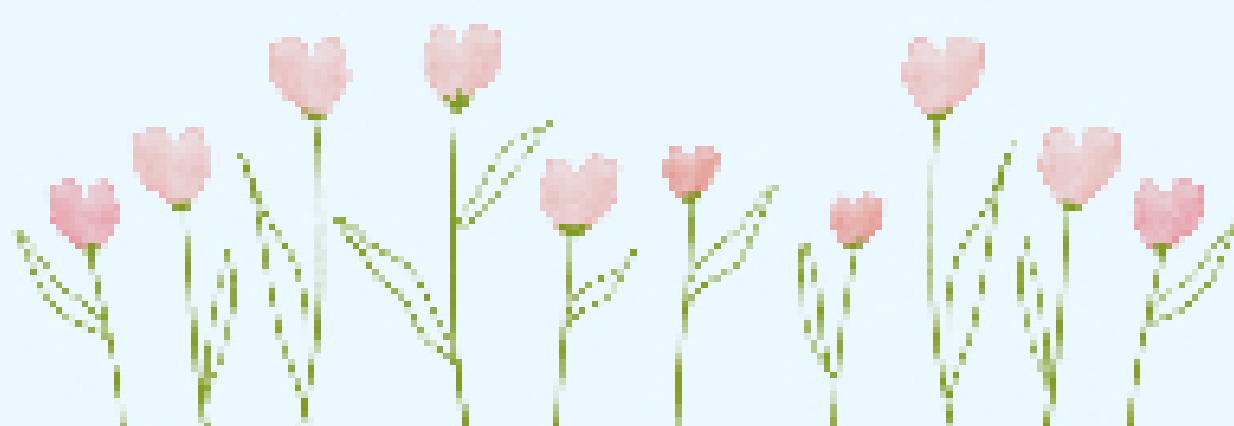
먼저 내놓지 말고, 5분간 침묵하며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기도' <테필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틈새 막기: 오늘 내가 가장 미워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사람 한 명을 정해,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대신 그와 하나님 사이의 틈을 '막아서'는 <파가> 중보의 기도를 3분간 드리십시오.



제47장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귀히 여기는 예배의 태도 :
<포보스>와 <세바스마>



제47장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귀히 여기는 예배의 태도 : <포보스>와 <세바스마>

거룩한 두려움과 경배의 대상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위대함 앞에 압도되는 경험을 포함합니다. 헬라어 '두려워하지' <포보스>와 '위하는 것들을' <세바스마>를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룩한 두려움과 참된 경배의 태도를 묵상해 봅니다.

포보스와 세바스마의 심층 분석

헬라어 '두려워하지' <포보스>는 '두려움', '공포'를 뜻하지만, 성경적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과 영광 앞에서 피조물이 느끼는 '거룩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니라,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존재 앞에 서서 자신의 작음을 깨닫고 떨리는 '사랑의 두려움'입니다.

"만국이 주께 와서 경배하리이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포보스>)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요한계시록
15:4)

반면, '위하는 것들을' <세바스마>는 '예배의 대
상', '경배하는 물건 혹은 행위'를 뜻합니다. 이
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무엇
앞에 무릎을 꿇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우상을 <세바스마>로 삼지 않
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의 대
상으로 삼는 자입니다. <포보스>가 마음 깊은
곳의 '영적 정서'라면, <세바스마>는 그 정서가
향하는 '구체적인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진심
으로 경외하는 자만이 참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대저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세바스마>)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사도행전 17:23)

구속사적 진리 : 경외의 대상이며 예배를 받으
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포보스>)을 잃어버렸고, 썩어질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세바스마>)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 비틀린 예배를 바로잡기 위해 경배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벽한 경외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유일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분이 얼마나 사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지를 증명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주가 아니라, 거룩한 경외의 대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기도 하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두려운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두려움' <포보스>)이 회복될 때 당신의 삶은 무질서에서 벗어나 정돈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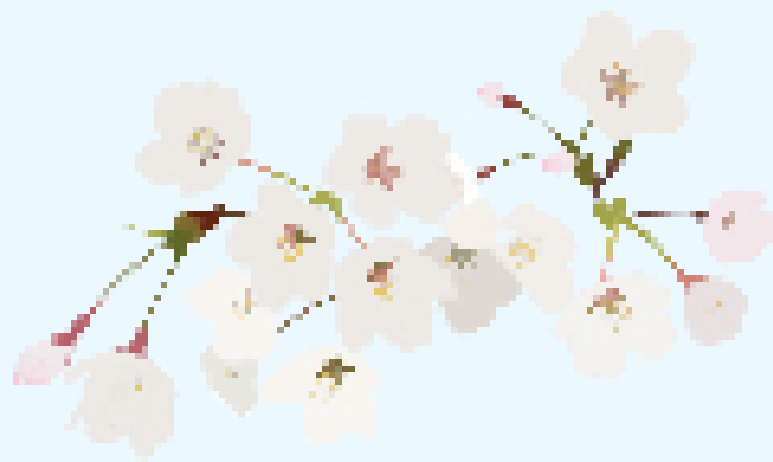
또한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위하는 것' <세바스마>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자녀가 당신의 경배 대상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배는 주일 한 시간에 끝나는 의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당신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만을 경배하십시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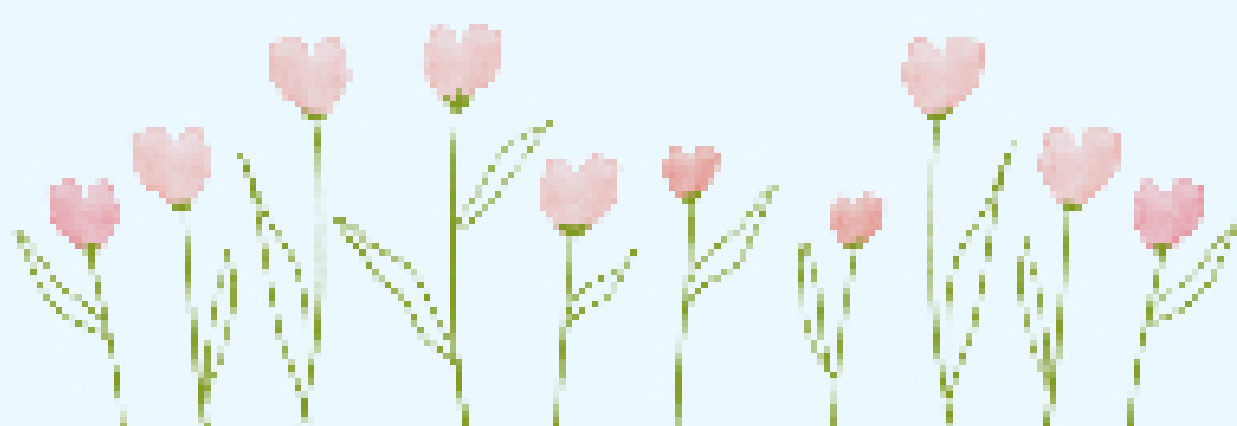
경외의 기도: 오늘 기도를 시작할 때 내 필요를 말하기 전, 2분간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거룩

하심을 묵상하며 그 위엄 앞에 압도되는 '두려움' <포보스>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상 제거: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위하는 것' <세바스마>(걱정거리, 취미, 물질 등)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을 주님 발등상 아래로 내려놓는 결단을 하십시오.



제48장
범사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
<유카리스티아>와 <카이로>



제48장 범사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 : <유카리스티아>와 <카이로>

감사의 신비와 기쁨의 동력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는 가장 확실한 표지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헬라어 '감사함으로' <유카리스티아>와 '기뻐하라' <카이로>를 통해 환경을 초월하여 흐르는 하늘의 에너지를 묵상합니다.

유카리스티아와 카이로의 심층 분석

헬라어 '감사함으로' <유카리스티아>는 '좋은(eu)'과 '은혜(charis)'가 합쳐진 단어로 '감사'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밖으로 고백하는 성찬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감사함으로(<유카리스티아>) 그 문에 들어가

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찌어다” (시편 100:4)

여기에 짝을 이루는 '기뻐하라'<카이로>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입니다. 이 기쁨은 외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느끼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내면에 흐르는 끊이지 않는 생명력입니다. 흥미롭게도 감사를 뜻하는 '감사'<유카리스티아>와 기쁨을 뜻하는 '기뻐하다'<카이로>는 모두 '은혜(charis)'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유카리스티아>할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카이로>이 샘솟게 됩니다. 감사는 기쁨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카이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4)

구속사적 진리 : 감사의 제물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인류는 죄로 인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메마른 영혼에 감사의 축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쁨의 근원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유카리스티아)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카이로>)을 선물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슬픔의 장소였으나, 그 결과로 인류에게는 구원의 대환희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입술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합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원망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불평은 축복을 가로막고, 감사

는 하늘 문을 엽니다. 사소한 일부터 감사를 시작하십시오('감사'<유카리스티아>). 감사가 습관이 될 때 당신의 영혼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십시오('기뻐하라'<카이로>).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며 성도의 실력입니다. 슬픈 일이 생겨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의 향기를 날리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적용

감사 일기: 오늘 잠들기 전, 오늘 겪은 일들 중 아주 작고 사소한 감사 제목 5가지를 적어보고 하나님께 '감사'<유카리스티아>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쁨의 전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

은 미소와 격려의 말을 건네며,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 <카이로>을 나누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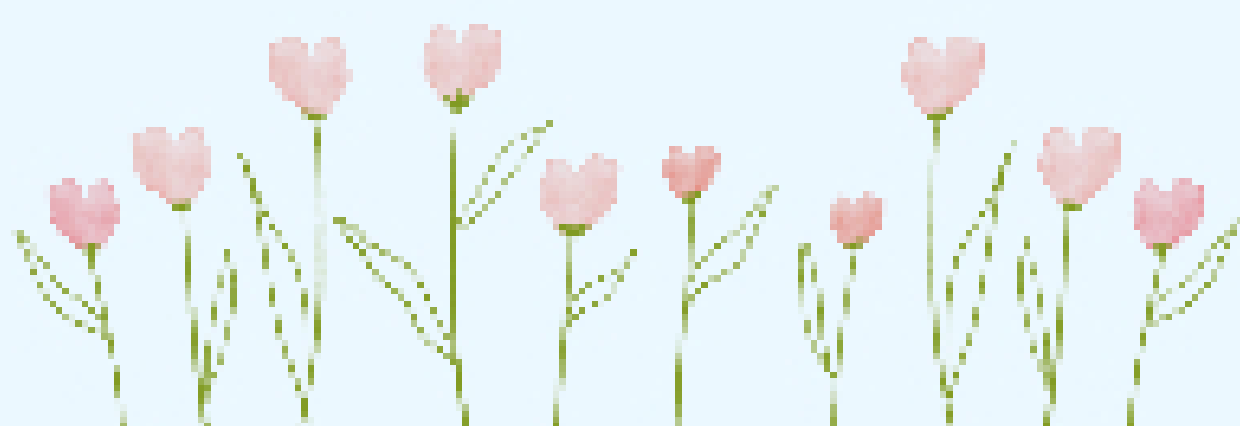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제 5 부

임재와 소망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제49장
겉에서 도우시는 보혜사와
생명의 호흡인 성령 :
<파라클레토스>와 <프뉴마>



제49장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와 생명의 호흡인 성령 : <파라클레토스>와 <프뉴마>

성령의 위로와 역동적인 권능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동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와 '성령이' <프뉴마>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묵상합니다.

파라클레토스와 프뉴마의 심층 분석

헬라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는 '곁으로 (para)'와 '부름받은 자(kletos)'가 합쳐진 단어로, 흔히 '보혜사'로 번역됩니다. 이는 법정에서 피고를 돕는 변호사나 고난 중에 위로하고 권면하는 조력자를 뜻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파라클레토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16)

한편, ‘성령이’<프뉴마>는 ‘바람’, ‘호흡’, ‘영’을 뜻합니다. 이는 만물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성령님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강조합니다. ‘보혜사’<파라클레토스>가 성령님의 ‘인격적 위로’를 보여준다면, ‘영’<프뉴마>은 성령님의 ‘창조적 권능’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안아주시며 동시에 폭풍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성령이(<프뉴마>)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구속사적 진리 :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죄는 인류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프뉴마>)을 떠나게 했고, 우리는 소망 없는 고아처럼 방황했습니다. 이 메마른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영원히 동행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마치신 후,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멀리 계신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성전 삼아 거하시는 <파라클레토스>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결합하셨다는 구속사의 영광스러운 정점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성령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혼자서 고민하고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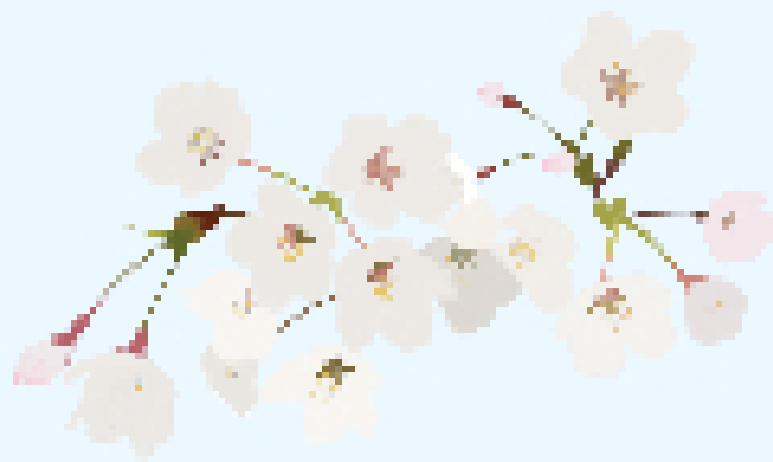
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당신을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의 역동적인 바람('영' <프뉴마>)에
당신의 인생 뜻을 맡기십시오. 내 힘으로 노를
저으려 하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
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삶에는 창조적인 생명
력이 역동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
적인 흥분이 아니라 보혜사의 인도하심에 온
전히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서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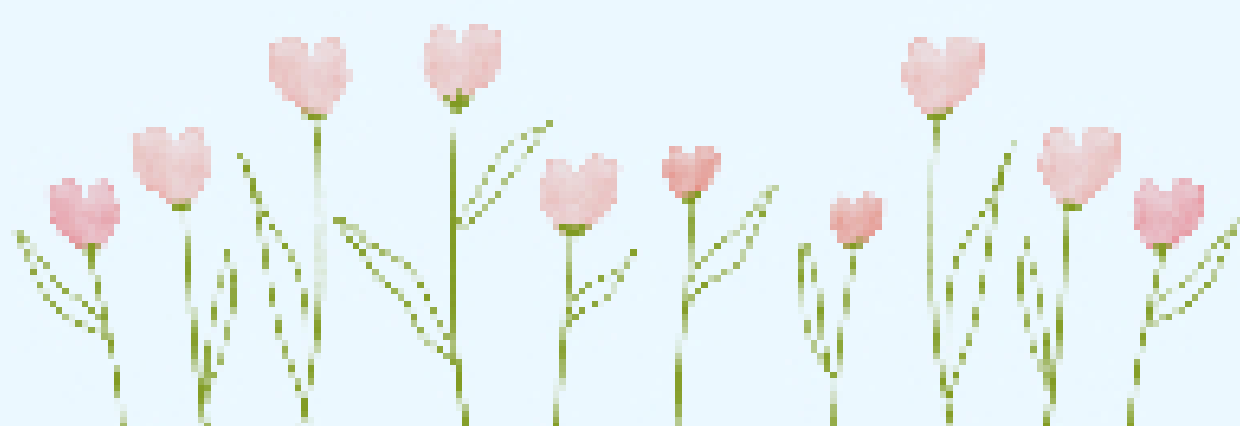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보혜사 찾기: 오늘 어려운 선택이나 고민거리
가 생길 때,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 전 먼저 “
보혜사<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묻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십
시오.

생명의 호흡: 가슴이 답답하거나 영적으로 침체될 때, 크게 심호흡하며 "성령의 바람<프뉴마>이여 내 안에 불어와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제50장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
<코이노니아>와 <에클레시아>



제50장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 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 <코이노니아>와 < 에클레시아>

연합의 신비와 공동체의 사명

성도는 홀로 믿는 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헬라어 '사킴은'<코이노니아>와 '교회를'<에클레시아>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연합의 원리를 묵상합니다.

코이노니아와 에클레시아의 심층 분석

헬라어 '사킴은'<코이노니아>는 '교제', '사킴', '참여'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친목 도모를 넘어, 그리스도라는 한 몸 안에서 생명과 은혜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나누는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 사랑 안에서 서로의 삶과 신앙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의 사침은(<코이노니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한일서 1:3)

반면, ‘교회를’<에클레시아>는 ‘~로부터 밖으로(ek)’와 ‘부르다(call)’가 합쳐진 단어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 앞에 따로 세워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불러내심을 받은 것(<에클레시아>) 이 교회의 시작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생명을 나누는 것(<코이노니아>)은 교회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로 모여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에클레시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구속사적 진리 :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끊어버렸고, 인간 사이에는 미움과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이 파괴된 관계를 사랑으로 묶고 영원한 사권을 회복하시기 위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사권'<코이노니아>)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이룬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높은 담을 허문 우주적인 사랑의 다리입니다. 복음은 고립된 개인을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교회'<에클레시아>

입니까? 교회는 일요일에 방문하는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신분이자 삶의 터전이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자답게 사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삶을 사십시오.

또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자랍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아픔을 나누며, 기도의 불을 함께 지피십시오. 교제는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삶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증거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형제를 섬길 때 세상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공동체가 천국 잔치와 같은 기쁨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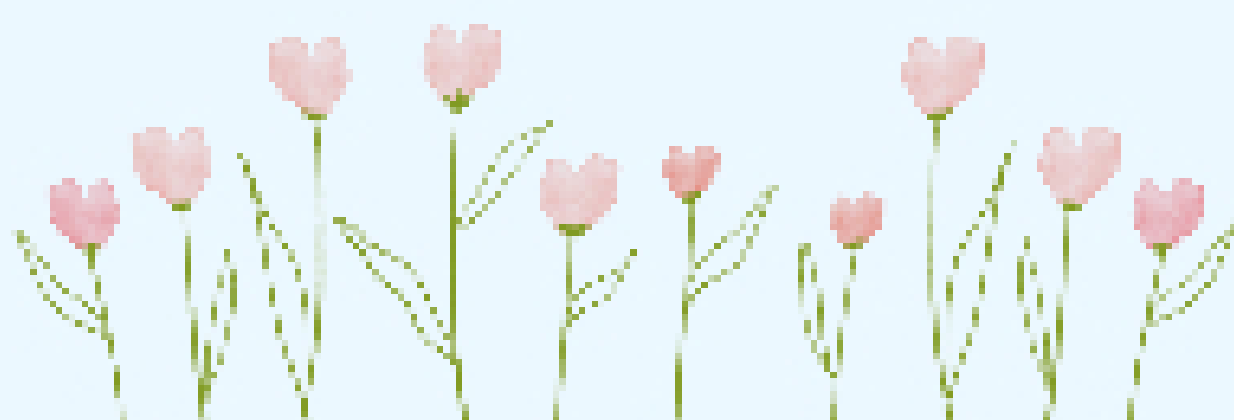
구별된 신분: 오늘 내가 속한 세상 모임이나 일터에서 "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교회' <에클레시아>)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부끄

러운 대화나 행동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깊은 사침: 오늘 신앙의 지체 중 한 명에게 연락하여 형식적인 안부를 넘어, 최근 주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를 나누는 '영적 교제'<코이노니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제51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영원한 거처 :
<샤칸>과 <야샤브>



제51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영원한 거처 : <샤칸>과 <야샤브>

임재의 신비와 통치의 안착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복판에 텐트를 치고 거하시며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어 '거할' <샤칸>과 '좌정하셨음이여' <야샤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에 가져오는 변혁을 묵상합니다.

샤칸과 야샤브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거할' <샤칸>은 '거하다', '장막을 치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중에 성막을 통해 그들 사이에 임재하셨던 방식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동하시며 우리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성막(미쉬칸)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샤칸>)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되” (출애굽기 25:8)

여기에 연결되는 ‘좌정하셨음이어’(<야샤브>)는 ‘앉다’, ‘거주하다’,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잠시 머무는 것을 넘어, 왕좌에 앉아 자리를 잡고 영원히 다스리는 정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장막을 치실(<샤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 보좌에 앉으셔서(‘좌정’<야샤브>) 영원히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이동하는 임재(<샤칸>)가 안정된 통치(<야샤브>)로 이어지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어(<야샤브>)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시편 29:10)

구속사적 진리 :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샤칸>)를 잃어버렸고, 주님의 통치(<야샤브>)를 거부했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임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에서 '거하시매'는 헬라어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구약의 '거하다'<샤칸>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야샤브>,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세우신 영원한 장막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

습니다. 당신이 고통받는 광야 한복판에 이미 장막을 치고('거하고'<샤칸>) 계십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과 보조를 맞추어 함께 걷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이 당신의 인생 보좌에 앉으시게 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삶에 정착하여 다스리실 때('좌정'<야샤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내 생각과 욕심이 주인 노릇 하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왕이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오늘 당신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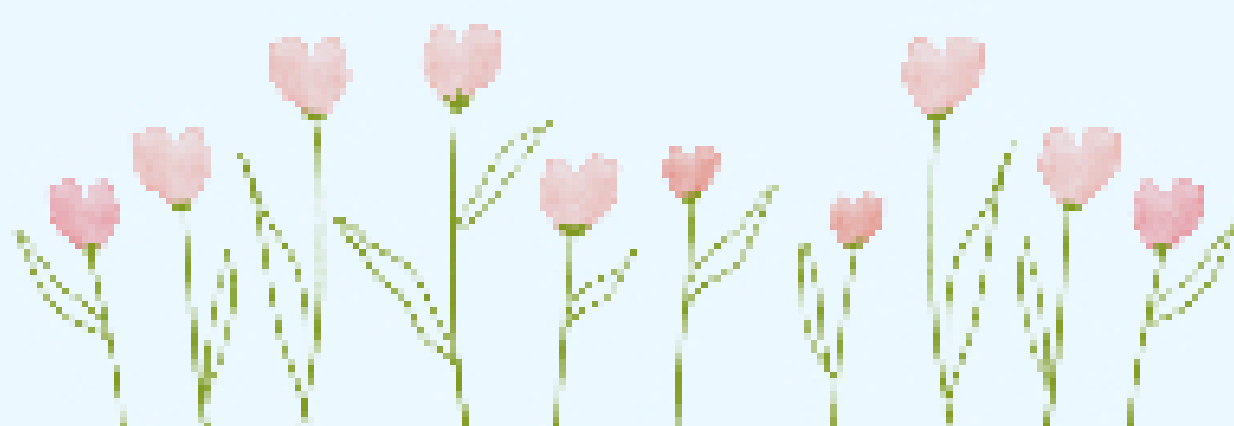
임재 의식: 오늘 이동하거나 일할 때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장막을 치고('거하여'<샤칸>)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짧은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보좌 양도: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던

일 한 가지를 멈추고, "주님, 제 인생 보좌에 앉으셔서('좌정하여'<아샤브>) 주님의 뜻대로 명령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주권을 양도하십시오.



제52장
소식을 전하는 영물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말라크>와 <나하>



제52장 소식을 전하는 영물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말라크>와 <나하>

메신저의 음성과 인도자의 지팡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시고, 그 길을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어 '사자가' <말라크>와 '인도하시되' <나하>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묵상합니다.

말라크와 나하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사자가' <말라크>는 '사자', '사신'을 뜻하며 흔히 '천사'로 번역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들며 백성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고 위기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자들을 보내어 성도의 걸음을 지키십니다.

“여호와와 사자가(<말라크>)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시

편 34:7)

여기에 연결되는 '인도하시되'(<나하>는 '인도하다', '안내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 떼를 앞서가며 안전한 길로 이끄는 것과 같은 책임 있는 동행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소식을 전하실(<말라크>)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 앞서가며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십니다(<나하>).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나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애굽기 15:13)

구속사적 진리 : 최고의 사자이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없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해 유리하는 양과 같았습니다. 이 미로 같은 인생 속에 최고의 사자이자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최고의 '사자' <말라크>입니다. 또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인도' <나하>) 분입니다. 십자가는 길 잃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발자국이며, 부활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의 길을 닦으신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안전하게 걷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 '사자들을' <말라크> 당신 곁에 배치 하셨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당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나하>에 순종하십시오. 양은 목자를 앞서 가지 않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지팡이로 가리키시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때로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목자가 함께하신다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길이 됩니다. 주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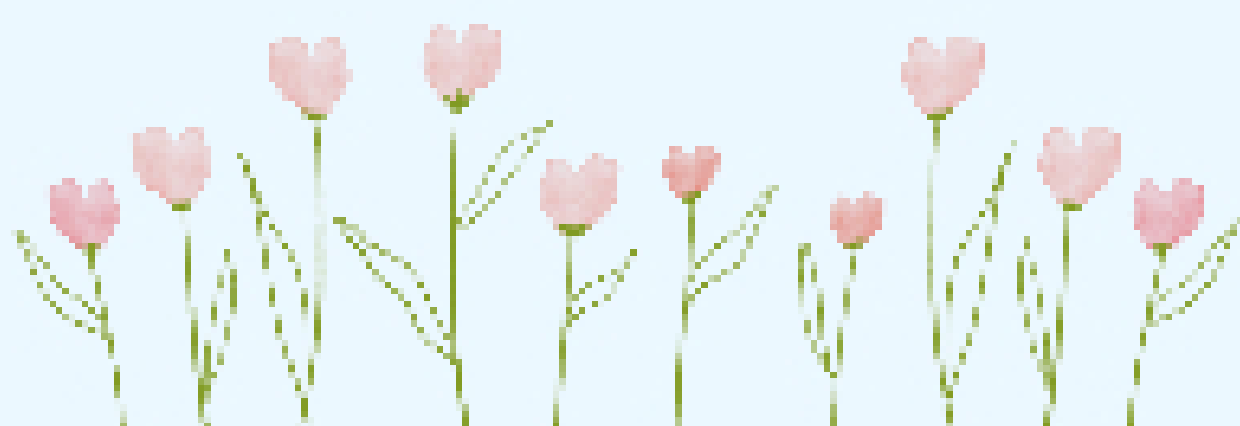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삶의 적용

보호의 확신: 오늘 위험하거나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 "여호와와 '사자가'<말라크> 나를 둘러진 치고 계신다"는 약속을 암송하며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인도의 순종: 오늘 계획한 일들 중에서 내 욕심이 앞서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주님의 평강이 가리키는 방향('인도'<나하>)을 따라 내 계획을 수정해 보십시오.



제53장
목소리 높여 외치는 찬양과 악기로
고백하는 영혼의 노래 :
<할랄>과 <자마르>



제53장 목소리 높여 외치는 찬양과 악기로 고백하는 영혼의 노래 : <할랄>과 <자마르>

찬양의 본질: 자랑과 정돈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천하에 자랑하고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악기처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히브리어 '할렐루야' <할랄>와 '찬양하며' <자마르>를 통해 예배자의 진정한 자세를 묵상합니다.

할랄과 자마르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할렐루야' <할랄>은 '빛나다', '자랑하다', '축하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할렐루야'(여호와를 찬양하라)의 어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여 그분을 높여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감격을 표현합니다. 즉, 찬양은 내가 받은 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뽐내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할랄>) 여호와와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13:1)

반면, ‘찬양하며’<자마르>는 ‘악기를 연주하다’, ‘노래하다’는 뜻과 함께 ‘가지를 치다’라는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찬양이 정교하게 다듬어진 예술적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불순물들을 잘라내고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임을 가르쳐 줍니다. 정성스러운 가락(‘연주’<자마르>)에 담긴 뜨거운 자랑(‘빛나게 함’<할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여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영적인 연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자마르>) 죽기까지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2)

구속사적 진리 : 영원한 찬양의 제목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을 앗아갔고, 대신 불평과 원망을 채웠습니다. 깨어진 악기처럼 불협화음만 내던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 노래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밝게 빛내시는 분('자랑'<할랄>)이셨고,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연주하신 분('연주'<자마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평생토록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영혼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감사의 노래를 심어준 구원의 악보입니다.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입술에는 지금 무엇

이 가득합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원망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빛내십시오' <할랄>). 당신의 삶이 잘될 때뿐만 아니라, 깊은 수렁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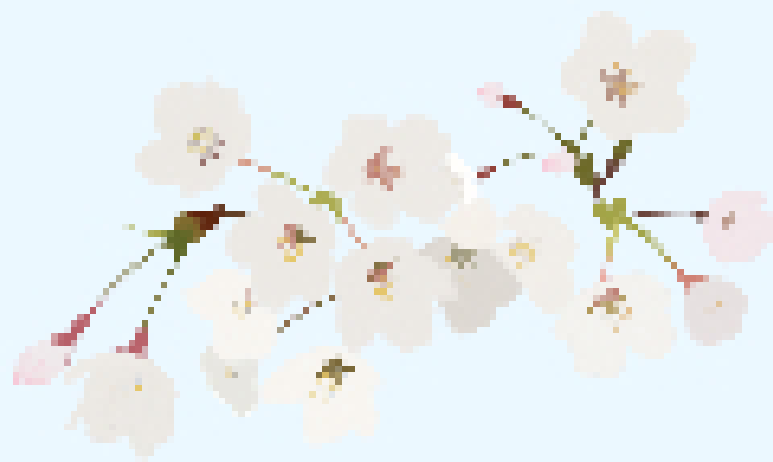
또한 당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악기로 내어드리십시오('연주' <자마르>). 불평의 가지를 치고, 교만의 가지를 잘라내어 맑고 고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때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찬송의 무대로 만드십시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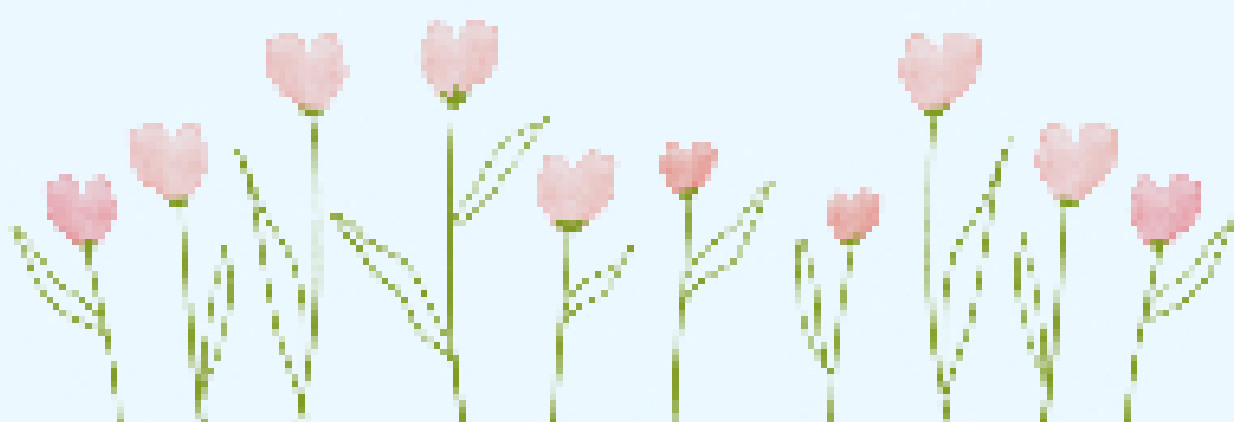
하나님 자랑: 오늘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의 성공이나 자녀 자랑이 아닌,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선한 일들을 한 가지만 '자랑' <할랄>하십시오.

오.

내면 조율: 오늘 마음속에 원망이나 짜증의 '가지'가 돌아날 때마다 찬송가 한 소절을 부르며 그 마음을 '잘라내고' <자마르> 영혼을 주님께 조율하십시오.



제54장
공적인 섬김의 예배와 굴복하여
경배하는 헌신 :
<레이투르기아>와 <프로스쿠네오>



제54장 공적인 섬김의 예배와 굴복하여 경배하는 헌신 : <레이투르기아>와 <프로스쿠네오>

예배의 형식과 중심

예배는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질서 있는 섬김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앞드리는 개인적인 항복입니다. 헬라어 '섬겨'<레이투르기아>와 '예배하는'<프로스쿠네오>를 통해 예배의 참된 정신을 묵상합니다.

레이투르기아와 프로스쿠네오의 심층 분석

헬라어 '섬겨'<레이투르기아>는 '백성(laos)'과 '일(ergon)'이 합쳐진 단어로, 본래 국가를 위한 공적인 봉사를 의미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예배' 혹은 '제사장적 직무'를 뜻할 때 사용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은혜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거룩한 공적 서비스'입니다.

다.

“저희가 주를 섬겨(<레이투르게오>)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사도행전 13:2)

반면, ‘예배하는’<프로스쿠네오>는 ‘향하여(pros)’와 ‘입맞추다(kuneo)’가 합쳐진 단어로, 고대 왕 앞에 엎드려 발에 입을 맞추는 ‘경배’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전적인 굴복과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질서 있는 공적 예배(<레이투르기아>)가 드러질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굴복(<프로스쿠네오>)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레이투르기아>) 없는 마음은 무질서해지기 쉽고, 마음(<프로스쿠네오>) 없는 형식은 종교적 껍데기가 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프로스쿠네오>)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23)

구속사적 진리 : 영원한 예배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는 죄로 인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썩어질 우상에게 '경배'(<프로스쿠네오>하는 비극에 빠졌습니다. 이 비틀린 예배를 바로잡고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려 완벽한 '공적 예배'(<레이투르기아>)를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사단에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프로스쿠네오>)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예배의 주권을 되찾아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늘와 땅을 잇는 영원한 예배의 다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매 순간 하나님께 상달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예배를 어떻게 준비

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는 당신의 한 주간 삶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레이투르기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정돈된 마음과 예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역입니다.

또한 당신의 일상이 '경배'<프로스쿠네오>가 되게 하십시오. 주일 한 시간의 예배를 넘어,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돈, 명예, 사람의 눈치를 보는 대신 오직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입 맞추는 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할 때, 주님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 주실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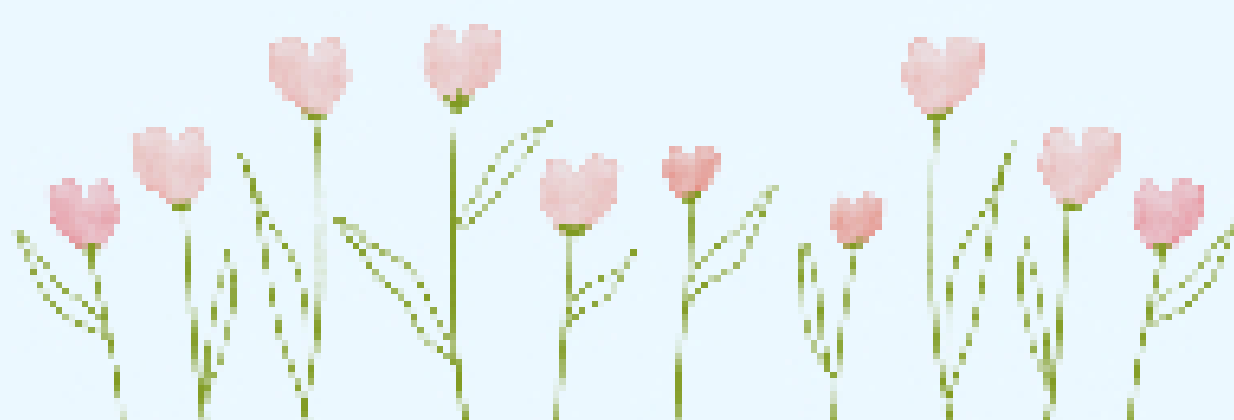
예배의 직무: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은혜받으러 가는 시간'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직무<레이투르기아>'로 인식하고 10분 일찍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생활 속 경배: 오늘 어려운 문제나 유혹을 만날 때,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경배' <프로스쿠네오>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제55장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
<도카>와 <에피파네이아>



제55장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 <도카>와 <에피파네이아>

영광의 본체와 승리의 현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 영광은 지금도 우리 안에 머물고 있으나,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천하에 찬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헬라어 '영광을' <도카>와 '나타나심을' <에피파네이아>를 통해 성도가 소망해야 할 최종적인 영광을 묵상합니다.

도카와 에피파네이아의 심층 분석

헬라어 '영광을' <도카>는 '영광'을 뜻하며, 본래 의미는 '무게감' 혹은 '평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하고 찬란한 성품이 밖으로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주님의 훌륭한 일을 만천하에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도카>를 반사하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도카>) 위하여 하라”(고린도전서 10:31)

반면, '나타나심을'<에피파네이아>는 '나타남', '현현'을 뜻합니다. 이는 특히 가려져 있던 주님의 영광이 다시 오시는 날 온 세상 앞에 찬란하게 공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림 때의 예수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숨겨져 오셨으나, 재림 때의 주님은 모든 피조물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장엄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광'<도카>은 장차 주님이 '나타나실 날'<에피파네이아>에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에피파네이아>) 기다리게 하셨으니”(디도서 2:13)

구속사적 진리 :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도카>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수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영광'<도카>을 가장 밝게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광의 승리였으며, 주님의 재림은 그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될 대단원입니다. 십자가는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은 현장이며, '재림'<에피파네이아>은 그 영광의 통치가 영원히 시작되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썩어질 영광은 금세 시들지만, 하나님의 '영광'<도카>은 영원합니다. 오늘 당신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

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주님도 당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나타나심' <에피파네이아>은 믿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보상이며 승리의 날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장차 나타날 영광의 무게를 생각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실 왕의 영광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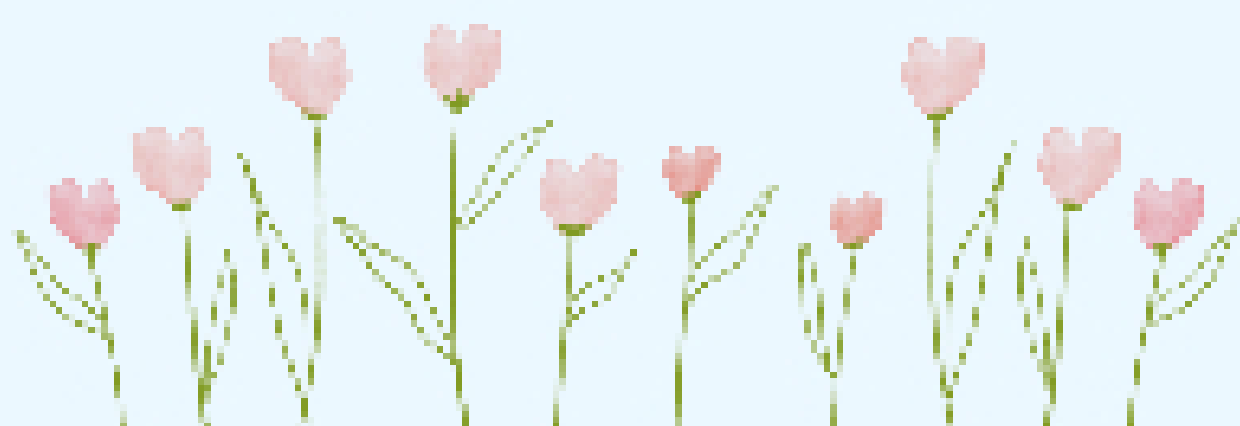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영광의 목적: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도카)을 위한 것인가,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인가"를 질문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하십시오.

재림 소망: 오늘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기보

다, 성경의 재림 약속을 한 구절 묵상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에피파네이아)을 사모하는 기도를 짧게 드리십시오.



제56장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과
신령한 상급 :
<스테파노스>와 <브라베이온>



제56장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과 신령한 상급 : <스테파노스>와 <브라베이온>

경주의 완주와 승리의 상급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완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라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와 '상상을' <브라베이온>을 통해 성도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묵상합니다.

스테파노스와 브라베이온의 심층 분석

헬라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는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화관' 혹은 '면류관'을 뜻합니다. 이는 왕이 쓰는 금면류관(디아데마)과는 달리, 고난과 경주를 끝까지 견디고 이긴 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징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스테파노스>)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디모데 후서 4:8)

반면, '상을'<브라베이온>은 경주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혹은 '상'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장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주를 위해 지불한 모든 수고와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브라베이온>을 얻기 위해 핏대를 향해 쫓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스테파노스>가 승리자의 '명예'라면, <브라베이온>은 그 승리에 따르는 '실제적인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자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브라베이온>)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14)

구속사적 진리 : 가시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

관을 사신 그리스도

인류는 죄로 인해 죽음의 패배를 당했고, 심판의 형벌 아래 놓였습니다. 이 절망적인 경기장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주님이 치르신 수치와 고통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스테파노스>을 안겨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주적인 승리의 '상급' <브라베이온>을 얻으셨으며, 이제 그 승리를 믿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패배를 승리로 바꾼 역전의 현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승리를 힘입어 영광스러운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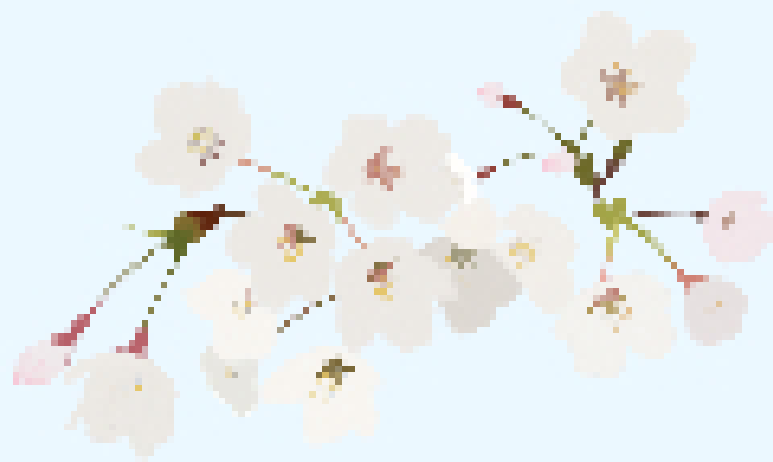
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썩어질 상급을 얻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면류관은 금세 시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스테파노스>은 영원히 빛납니다. 경기가 힘들고 숨이 가쁠 때, 결승선에서 당신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미소를 바라보십시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급' <브라베이온>은 끝까지 완주하는 자의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헌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눈물, 복음을 위해 참아낸 인내를 주님은 날날이 세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내일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오늘 하루도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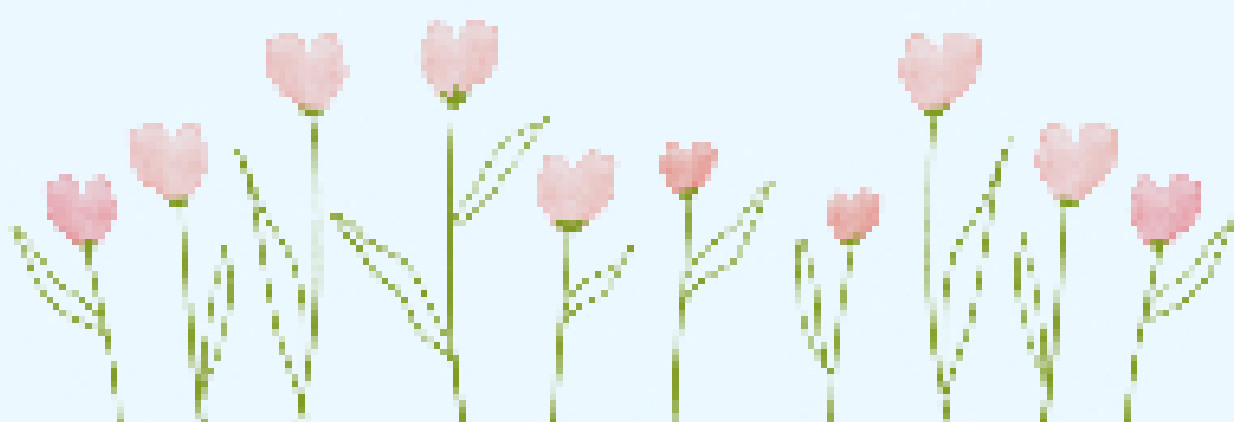
삶의 적용

풋대 설정: 오늘 내가 하는 일들 중에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브라베이온)이 될 만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 찾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내의 경주: 오늘 그만두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님이 면류관(스테파노스)을 들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만 더 인내하십시오.



제57장
완전한 건짐을 얻는 구원과
온전함에 이르는 성숙 :
<소테리아>와 <텔레이오스>



제57장 완전한 건짐을 얻는 구원과 온전함에 이르는 성숙 : <소테리아>와 <텔레이오스>

구원의 완성과 존재의 성숙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헬라어 '구원을' <소테리아>와 '온전하라' <텔레이오스>를 통해 구원의 전 과정과 성도가 지향해야 할 완성을 묵상합니다.

소테리아와 텔레이오스의 심층 분석

헬라어 '구원을' <소테리아>는 '구원', '안전', '건짐'을 뜻합니다. 이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건짐(과거), 죄의 지배력으로부터의 해방(현재), 그리고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장차 구원을 완성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소테리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16)

반면, '온전하라'<텔레이오스>는 '온전한', '성숙한', '목적을 달성한'을 뜻합니다. 이는 도덕적 결함이 전혀 없는 상태라기보다, 창조의 목적과 부르심의 분량에 맞게 '충분히 성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갓난아이 수준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함'<텔레이오스>에 도달하길 원하십니다. '구원'<소테리아>이 출발이라면, '성숙'<텔레이오스>은 그 구원이 지향하는 목표점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텔레이오스>)” (마태복음 5:48)

구속사적 진리 : 구원의 창시자이며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는 죄로 인해 멸망의 웅덩이에 빠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결코 스스로 '온전함'<텔레이오스>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이 무력한 죄인들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십시오. 우리 '구원'<소테리아>의 완벽한 기초를 닦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텔레이오스> 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숙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어가는 우리를 건진 생명줄이며, 부활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어가는 성숙의 원동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작은 예수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젝트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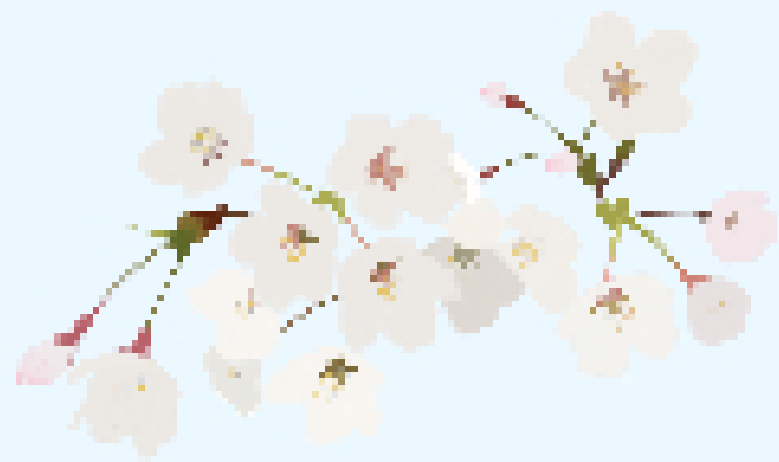
이미 당신은 안전한 '구원'<소테리아>의 반석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는 안주하지 말고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당신의 성품과 인격을 연단하십시오.

'성숙'<텔레이오스>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때로는 고난이 당신을 괴롭히더라도, 그것이 당신을 온전하게 빛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십시오.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지만, 성숙에는 당신의 헌신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당신의 인격에서 배어 나오기까지, 멈추지 말고 온전함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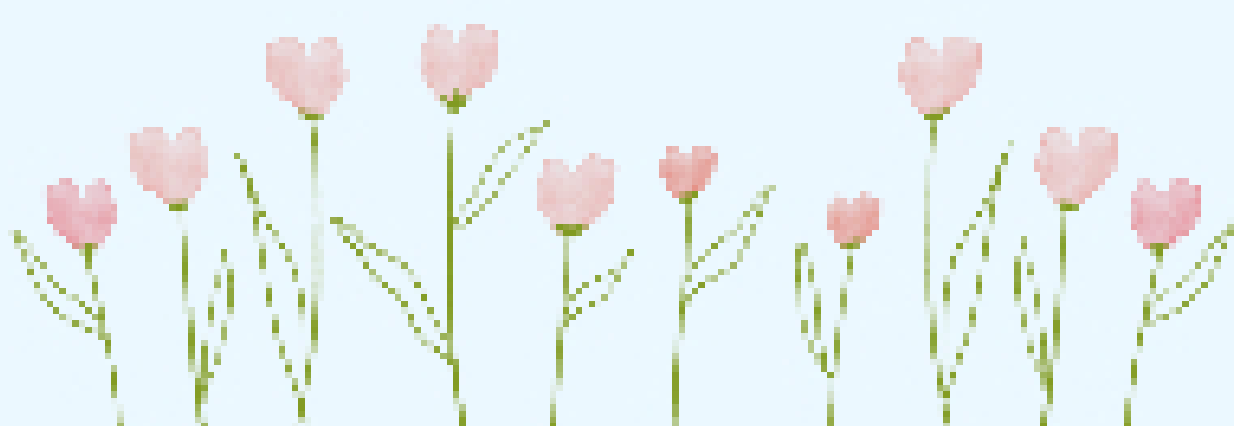
삶의 적용

구원의 감사: 오늘 내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짐받았음('구원'<소테리아>)을 확신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숙의 한 걸음: 오늘 내 성품 중 가장 고쳐지지 않는 연약한 부분(분노, 게으름 등) 한 가지를 정하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을 닮은 '온전한 모습' <텔레이오스>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제58장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과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삶:
<코하브>와 <차다크>



제58장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과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삶 : <코하브>와 <차다크>

빛나는 정체성과 거룩한 행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빛은 우리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옷을 입을 때 반사되는 광채입니다. 히브리어 '별'<코하브>와 '의가'<차다크>를 통해 성도가 추구해야 할 영광스러운 삶을 묵상합니다.

코하브와 차다크의 심층 분석

히브리어 '별'<코하브>은 '별'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광,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별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코하브>)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단
12:3)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별처럼 빛날 수 있
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의’<차다
크>에 있습니다. 이는 ‘의롭다’, ‘정직하다’, ‘하
나님의 기준에 정렬되다’는 뜻입니다. 별이 스
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
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의’<차다크> 안에 거
할 때 비로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영광스러
운 <코하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은
성도의 광채이며, 세상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강력한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
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
에서 하나님의 의가(<디카이오쉬네/차다크>)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21)

구속사적 진리 : 의의 태양이시며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는 우리 안의 빛을 꺼뜨렸고,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이 짙은 어둠을 뚫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차다크>를 입혀 주셨습니다. 주님은 의의 태양이 되셔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캄캄한 세상에서 소망을 비추는 '별'<코하브>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광명한 새벽별이 되심으로, 우리 인생이 도달해야 할 영광스러운 목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복음은 추한 죄인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별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가 빛을 잃었기 때문일

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다시 빛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차다크> 앞에 당신의 삶을 정렬해야 합니다. 정직함과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당신을 빛나게 하는 광채입니다.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십시오.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길 잃은 영혼들에게 하늘을 가리키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당신이 주님의 의 안에 거할 때 세상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별'<코하브>처럼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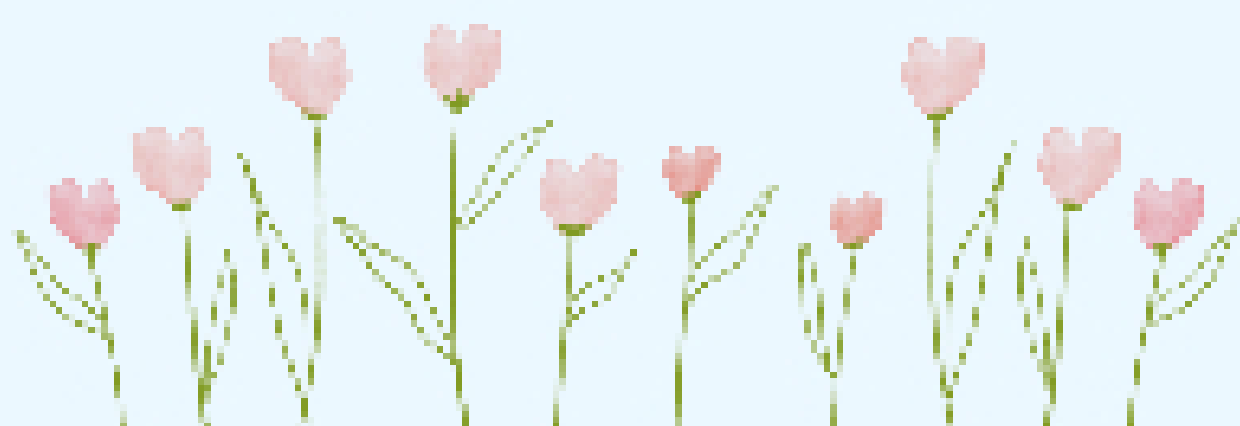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의의 정렬: 오늘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차다크)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을 즉시 회개하십시오.

빛의 선행: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보

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작은 선행
하나를 실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별
(코하브)이 되십시오.



제59장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소망과
그대로 되리라는 확신 :
<마라나타>와 <아멘>



제59장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소망과 그대로 되리라는 확신 : <마라나타>와 <아멘>

역사의 마침표와 신앙의 확증

신앙의 여정은 소망으로 시작하여 확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물음표에 대한 최종적인 마침표는 다시 오실 주님께 있습니다. 아람어 <마라나타>와 히브리어 <아멘>을 통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를 묵상합니다.

마라나타와 아멘의 심층 분석

아람어 <마라나타>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원입니다. 이는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나누었던 소망의 인사였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며,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공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입니다."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마라나타>)" (요한계시록 22:20)

여기에 신앙의 확증인 <아멘>이 더해집니다. 이는 '참되다', '그대로 될 줄 믿는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동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기에 우리의 소망은 <마라나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끝에 붙이는 <아멘>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며 내가 복종합니다"라는 최종적인 행복의 고백입니다. <아멘>의 삶을 사는 자만이 기쁨으로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20)

구속사적 진리 : 시작과 끝이며 '아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는 우리에게서 영원한 미래를 빼앗아갔고, 우리를 허무와 죽음의 공포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 절망의 마침표를 찍고 영광스러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자신의 몸으로 친히 이루신 완전한 <아멘>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확증이며, 주님의 부활은 다시 오심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끝내는 <아멘>의 사건이며, 재림은 우리 신앙의 경주를 완성하는 <마라나타>의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짧은 삶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고달플수록 <마라나타>를 외치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모든 슬픔은 기쁨이 되고, 모든 눈물은 보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매일을 <아멘>으로 채우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아멘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십시오.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될 때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오늘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삶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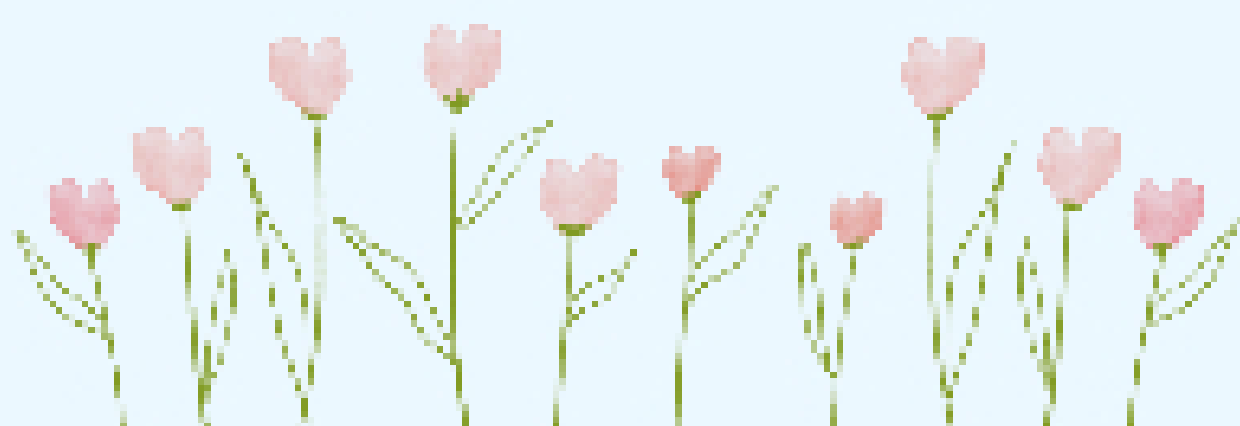
종말적 소망: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밤하늘을 바라보거나 창밖을 보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며 소망을 정비하십시오.

확신의 순종: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내 이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되리이다(아멘)”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제60장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과
완성된 영원한 나라 :
<알파>와 <오메가>



제60장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과 완성된 영원한 나라 :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주관자와 영원한 마침표

성경의 대장정은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완성하실 분입니다. 헬라어 <알파>와 <오메가>를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의 결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묵상하며 전권을 맞섭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심층 분석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파>와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주권'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First)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목적지(Last)가 되심을 의미합니다."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8)

하나님이 <알파>이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메가>이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결말이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작과 끝 사이에 흐르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첫 단추부터 마지막 매듭까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가라사대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1:6)

구속사적 진리 : 역사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역사는 죄로 인해 파괴되었고, 죽음이라는 허무한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서사시를 생명의 드라마로 바꾸시기 위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

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세상을 시작하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길을 여셨으며,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의 승리를 확정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낡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완성하시는) 이십니다. 십자가는 죄로 오염된 역사를 씻어낸 분기점이며, 재림은 알파와 오메가가 만나는 영원한 완결입니다. 복음은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끝내신다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영적인 적용과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알파>)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존재 가치를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또한 당신의 결말(<오메가>)을 두려워하지 마

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대충 끝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
고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고난과 슬픔은 전체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당
신의 오늘을 맡기십시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으
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삶의 적용

시작의 의탁: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님
은 나의 알파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
루의 모든 계획과 만남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를 드리십시오.

결말의 신뢰: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고통스러
운 상황이 계속될 때 "주님은 나의 오메가이
십니다"라고 선포하며, 주님이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끝내실 것을 믿고 평안을 선택하십시
오

원어로 푸는 하늘 비밀

초판발행	2026. 1. 29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 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